



9

199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6. 9호

(루게 587)



◆◆◆◆◆◆◆◆◆◆

차 례

◆◆◆◆◆◆◆◆◆◆

작가들은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당이 요구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	4
집, 고향, 조국.....	6
최고의 성지	7
오늘도 높이 드신 수령님 손길	7
그 영상 세월이 못잊고 인민이 못잊어	8
언제나 수령님 생각하며	8
노래로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 우리 장군님	9
꼭같이만 보입니다(외 1 편).....	11
아바이의 발걸음	11
어머님을 닮고 싶습니다	12
사랑의 길우에 새겨진 전설	13
한편의 노래로부터 세계적인 걸작의 영화를	15
고향집의 자장가소리.....	17
인생과 래일	17
백두산 찾아오는 아들딸들에게	18
김정일 동지께 경의를.....	19
동해명승 칠보산아.....	19
통일대장수	20

한편의 전설을 두고	23
푸른 제방.....	25
내 사는 집	32
어머니 치마폭은 한겹이여도	37
집과 세월을 두고.....	38
조국에 대한 생각.....	40
한 녀교원의 사랑.....	41
금강의 물이 되고싶어.....	48
사회주의 너와 이야기한다.....	49
나도 한 병사의 아버지	51
별.....	52
허균과 《홍길동전》	61
제자의 눈빛	65
반일애국문학인 신채호	66
고향길	71
신선이 사는 금강산	73
우리 집 층계.....	75
이런 때 이런 순간에는(외 1 편).....	76
성미 세차다 말하지 마오.....	76
팔월추석	77
선생님	79
새봄을 불러(외 2 편).....	79
저녁의 한때	80
햇쌀밥	80

작가들은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당이 요구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와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로부터 문학예술부문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분발하여 우리 인민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그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주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 문학예술부문에서 우리 인민을 투쟁과 승리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오늘의 투쟁은 어렵고 잔고한 조건에서 진행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적인 세력균형이 파괴된 복잡한 정세를 기회로 《반공》소동을 더욱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주체의 사회주의기치,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자주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나라를 정치적으로 압살하고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 하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운 난관이 가로놓여도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문학은 마땅히 시대와 함께 전진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선도하여야 한다. 현 정세와 시대의 요구는 작가들이 우리 인민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주고 빛나는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하도록 고무하는 명작을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져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당의 혁명적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이다.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명작을 창작하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작가들속에서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실력전을 벌린다는것은 작가들이 자기의 재능과 정열을 다 발휘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예술적생명력이 있는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가진 명작을 창작하도록 한다는것이다.

작가들속에서 실력전을 벌리는것은 문학발전의 현실적요구이다. 작가들속에서 실력전을 벌려야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할수 있다.

또한 실력전을 벌리면 작가들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이 확립됨으로써 남의 그늘밑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현상도 없어지게 되고 그들이 다 제구실을 할수 있게 될뿐아니라 그 과정에서 재능있는 작가들이 많이 나올수 있다.

실력전을 벌려 인민의 요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에 민감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는 곧 시대의 요구이며 지향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와 구상에 민감하여야 시대와 인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의의있는 문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를 종자로 잡고 당이 요구하고 인민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에 옳은 해답을 줌으로써 당의 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시대의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

서사시들인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가사들인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높이 들자 붉은기》의 명작으로서의 풍격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에 민감하고 그를 빛나게 구현한 심오한 예술적형상에 있다.

실력전을 벌려 명작을 많이 창작하기 위해서는 또한 작가들의 예술적재능을 높여야 한다.

실력전이란 말그대로 실력을 겨루는것이며 작가에게 있어서 실력은 예술적재능이다.

작가들은 실력이 있어야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작가의 실력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이다. 작가는 높은 정치적식견과 넓은 정치적인목, 창작적기량을 소유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작가에게 있어서 재능은 생명이라고 할수 있다. 작가들은 높은 예술적재능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전공부문에 정통한 박식가, 창작의 능수가 되여야 한다.

명작을 내놓는가, 내놓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작가들의 예술적재능을 갖추는데서는 당의 사상에 기초하여 형상의 대를 세울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일부 작가들속에서 손끝재간을 부리거나 종자를 바로 쥐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일화를 흥미거리로 조립하는것과 같은것은 다 형상의 대를 세울줄 아는 능력이 부족한것과 관련된다.

작가들이 예술적재능을 갖추는데서 창작적사색

을 깊이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창작은 사색의 과정이며 작품은 사색의 산물이다. 철학적심도가 있는 명작은 깊은 사색을 전제로 한다. 사색의 빈곤은 작품의 철학적빈곤을 가져온다.

창작적사색을 깊이해야 명작을 내놓을수 있다.

작가의 참다운 창작적사색은 언제나 예술창조에 대한 수렁의 미학관, 문예관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사색이며 시대의 거세찬 흐름과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속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찾아내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꽃피우기 위한 묘술을 탐구하는 데로 지향되는 사색이다.

작가는 어떻게 하면 오늘의 정세와 난관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락관을 그대로 심어주어 그들을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겠는가 하는데 그 창작적사색을 집중하여야 한다.

작가는 깊은 창작적사색을 통하여 무르익힌 구상을 작품에 재치있게 형상할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현시기 당이 바라고 인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명작이 태어나게 된다.

작가는 자기의 전공부문에 정통하여 창작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작가자신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작가들이 전공부문에 정통하는데서 기본은 학습을 강화하는것이다. 작가들은 주체사상학습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하고 주체사상학습을 주체적문예사상학습 그리고 창작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야 한다. 작가들은 전공부문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전공부문의 깊은 지식과 높은 예술적기량을 소유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아야 하고 자매예술에 대한 조예도 깊어야 하며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작가들은 전공부문에 정통함으로써 창작에서 줄타기를 하거나 지난날의 경험에 매달리는 그릇된 창작경향을 결정적으로 없애야 한다.

실력전의 요구에 맞게 명작을 많이 창작하기 위해서는 또한 작가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현실체험을 잘해야 한다.

현실체험은 창작활동의 필수적요구이다. 작가들이 약동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우리 나라의 위대한 현실을 똑똑히 느낄수 있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다운 모습을 볼수 있으며 그속에서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찾아내어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작가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과 침식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하면서 창작하여야 정치적식견과 창작적시야를 넓힐수 있고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

련할수 있다. 현실속에 들어가는 작가들만이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

작가는 현실체험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목적지향성있게 하여야 한다.

작가는 현실체험을 한번 하여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여야 하며 생활의 본질을 파악할수 있도록 높은 탐구정신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

장편소설 《백금산》의 창작경험은 현실체험을 잘 하는것이 작품의 성과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부 작가들이 오래동안 현실속에 들어가있으면서도 이렇다할 작품을 써내지 못하는것은 생활의 본질, 생활의 깊은 의미를 밝혀내는 탐구정신이 부족하고 생활에 대한 예술적파악능력을 소유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숭고한 인간미를 체현한 전형적인 성격을 탐구하지 못하고 생활을 미화분식하는 문제, 작품의 종자와 주제, 사상, 인간성격을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하고 미사려구로 형상을 굵때려하는 경향 등은 현실체험을 잘하지 않고 탁상문학을 할 때 빚어지는 현상들이다.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잘함으로써 오늘 우리 사회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들을 적극 찾아내고 감명 깊은 예술적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작가들속에서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는 또한 작품창작에 대한 지도를 바로 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창작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기본은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창작방향을 옳게 세워주고 사상적대를 바로 세우며 형상을 통하여 당의 사상이 힘있게 울려나오게 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창작지도일군들은 작품의 정책적대를 세우고 방향을 그어주며 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풀어나갈수 있도록 작가들을 잘 이끌어 주고 밀어주어야 한다.

창작지도일군들은 작품창작계획을 실력을 기본으로 세우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젊은 작가라고 하여도 실력이 있으면 대담하게 중요한 창작적과제를 맡김으로써 새 세대 작가들이 명작창작에서 뚜렷한 몫을 차지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또한 작가와 작가들사이에 창작경쟁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함으로써 창작활동이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는데서 더 큰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오늘 당이 요구하는 시대의 명작을 창작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우리 작가들을 끝없이 고무추동하고있다.

작가들은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당이 요구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 나가야 한다.

집, 고향, 조국

리명근

생활의 평범한 나날
때없이 조용히 불러보면
다함없는 정다움을 안고
한모습인듯 우렷이 안겨오는
집이여
고향이여
조국이여

오늘의 행복만이 아닌
태어난 그날부터 긴 세월
얼마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나의 정든 집이던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나를 안고
빨간 별을 금별처럼 쏘아보던 할머니
새 교복 타입고 들어선 그날엔
온 집안이 웃음속에 이야기도 많았지
지금도 귀가에 쟁쟁한 수도물소리
행주치마에 손을 씻으며 나를 깨우던
사랑어린 어머니의 목소리...

오늘의 기쁨만이 아닌
내 자라온 하많은 그 나날
얼마나 귀중한 삶의 발자국이 찍힌
나의 정든 고향이던가

우리를 기다려 언제나 열려있던
탁아소, 유치원, 학교들의 정문이며
우리 집 주소와 식구들의 이름적힌
담당의사의 파란색 건강기록부
상점의 보풀 인 우리 가정수첩
황철나무 늘어선 정든 학교
이웃들의 다정한 눈빛...

그래서 내 초소에 섰던 그밤
행복이 출렁이는 나의 집이
뛰놀며 마음껏 자란 나의 고향이
그토록 소중하고 귀중한
조국의 모습으로 안겨왔거니
지키여 그것을 지키
수호자의 눈동자엔 순간도
안개가 끼지 않았더라

혈육이 사는 그 집이 없다면
나서자란 그 고향이 없다면
어찌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 느낄 수 있으랴
어떻게 조국에 대한
감사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집에서 고향에서 안고사는
거창한 조국의 숨결
무진장한 재부를 싣고 달리는
열차의 유정한 기적소리
황금벌의 벼이삭 설레임소리
령넘는 포차들의 우렁찬 발동소리-

정녕 이 세상 그 누구에게든
집과 고향, 나라가 있다 해도
어느 하나를 잃고 헤매는이
천이던가 만이던가
나는 이 모든것 하나처럼 안고
행복의 락원속에 살고있나니

집이여
고향이여
조국이여

장군님 이끄시는
조국의 은혜론 손길이
항시 품어주는 나의 집
항시 가꾸어주는 나의 고향
정깊은 부모형제가 있고
잊지 못할 모교가 있고
병들세라 보살피는 병원이 있는
그 집 그 고향은
진정코 사회주의 내 조국

가정에 넘치는 웃음속에
조국의 기쁨이 있고
고향의 흥성임속에
조국의 번영이 있나니
그 어느것도 없어서는 아니될
혼연일체의 한모습
한평생 안겨살며 또 안고살
세상에 다시 없는 태양의 품
영원한 영원한 내 운명의 품
떼여놓고 갈라놓고 살수 없는
아
나의 집
나의 고향
나의 조국이여!

최고의 성지

박근원

나를 태운 사랑의 전동차
어느새 벌써
이 마음과 나란히
금수산기념궁전앞에 와닿았구나

아, 예가 주체의 최고성지
보고 또 보아도 성스러워라
거룩한 기상 안고 높이 솟은
금수산기념궁전
앞에는 시원히 펼쳐진 광장
주위에는 푸른 숲, 향기 뿜는 꽃잎들

이보다 더 웅장한 궁전 없어
이보다 더 드넓은 광장 없어
이보다 아름답고 청신한곳 없어
예가 어디서나 보며
언제나 찾는 최고성지인가

아니, 그것만이 아니리
인민이 주인된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영생의 열쇠를 인류에게 주신
만민의 아버지수령님 여기에 계셔
주체의 최고성당

불멸의 혁명업적 영원히 빛나고

온 지구를 붉게 물들인
주체사상의 빛발 펼쳐가는곳이어서
주체의 최고성지이리

인간이면 누구나 안기여
자기 운명 개척해갈
혁명의 빛발 받아안은곳이어서
혁명의 최고성지이리

그래서 이 땅
그 어디서나 보이는 거룩한곳
그래서 이 행성
그 어디에 사는 사람이건
찾고 따르는 만민의 최고성지
인류의 최고성지이리

아 정녕 이 세상에
성지라 이르는곳 그 아무리 많아도
주체의 최고성지
혁명의 최고성지
인류의 영원한 최고성지는
천상천하에 유일무이
금수산 여기에 빛나는
조선의 성지
위대한 주체의 최고성지뿐이여라

가사

오늘도 높이 드신 수령님 손길

윤석범

백두의 노을비긴 만수대 우러르면
위대한 그 손길 인민을 부르신다
오늘도 높이 드신 수령님 그 손길
우리 길 밝히시는 장군님 손길이어라
아 물을 헤쳐 폭풍을 헤쳐
그 손길따라 우리 백승하리라

오르며 다지는 충성의 상상봉
불타는 맹세 안고 인민은 내린다
오늘도 높이 드신 수령님 그 손길

총진군 부르시는 장군님 손길이어라
아 물불을 헤쳐 폭풍을 헤쳐
그 손길따라 우리 백승하리라

그 손길아래서 천만이 뭉치고
우리 식 사회주의 만방에 펼친다
오늘도 높이 드신 수령님 그 손길
조선을 이끄시는 장군님 손길이어라
아 물불을 헤쳐 폭풍을 헤쳐
그 손길따라 우리 백승하리라

그 영상 세월이 못잊고 인민이 못잊어

정영호

못잊어 오늘도 못잊어
파도는 밀려와 철썩 쳐질썩
잔교를 치며 흰 포말을 뿌리고
하늘가 천정기중기슭넘어
갈매기들도 끝없이 날아드는가

못잊어 그날을 못잊어
만리대양을 향해 닻을 올린 대형집배들
은은한 배고동소리도
싱그러운 해풍에 실려
하늘가 저 멀리로 메아리치는가

그날은 한겨울도 대한추위의 날
날씨가 몹시 차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간절한 만류에
아버이수령님 호탕하게 웃으시었지
뒤편은가고, 어서 항을 돌아보자고

하지만 우리 걸음 굳어졌더라
항을 더 잘 꾸리자시며
앞서 걸으시던 그이
바람찬 부두가에서
흔연히 방한모의 귀덮개를 내리우실 때

아, 순간 우리모두 가슴들을 쳤더라

아버이수령님을
찬바람 부는 로고의 길에
오늘도 오르시게 해야 하는가

돌이켜볼수록
너무도 안녕을 못지켜드린
되살아오르는 피로운 마음이어
부두가에 나서면
때없이 끝없이 못견디게 어려오는
못잊을 오늘엔 더욱 못잊을 아버이의 그 모습

우리 수령님을
여기 다시 모실수만 있다면
으리으리하게 뻗어나간 항만을 걸으시며
그 어떤 나라와도 대외무역을 할수 있는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꾸려졌다고
환히 웃으시는 그 모습을 다시 뵈을수만 있다면

아, 그 영상 세월이 못잊고 인민이 못잊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더욱 높이 받들어
나의 조국은 대를 이어 위대한 조국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이 있는 인민
이 행복, 이 영광을 온 세상에 떨치고싶어
오늘 만방을 향해 활짝 열어젖혔어라
굴지의 무역항 자랑스런 조국의 대문을...

가사

언제나 수령님 생각하며

백윤길

고르른 발전기의 동음을 들을 때면
가슴에 울려오네 수령님 그 유혼
불밝은 내 조국의 미래를 펼치시며
위대한 심장 불태우신 수령님
아 언제나 수령님 생각하며
창조와 혁신으로 날과 달을 이으리

높이 솟은 첩탑들과 송전선 바라보면
뜨겁게 흘러드네 베푸신 그 사랑
락원의 이 강산에 행복을 펼치시며

한평생 모든것 바쳐오신 수령님
아 언제나 수령님 생각하며
창조와 혁신으로 날과 달을 이으리

행복의 창가마다 불빛이 흐를 때면
눈앞에 어려오네 자애론 그 미소
수령님 바라시던 밝고밝은 내 조국
장군님 령도따라 대를 이어 빛내리
아 언제나 수령님 생각하며
창조와 혁신으로 날과 달을 이으리



위대한인간

노래로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 우리 장군님

노래와 정치는 서로 연관되어있다. 그것은 노래가 가지고있는 예술정서적힘이 정치의 감화력을 끝없이 높여주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가라고 하여 노래와 정치를 밀접히 결합시켜 성공적인 정치를 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인류력사는 노래와 정치에 다같이 정통한 령도자에 의해서만 이것이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음악은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진다. 음악의 사상정서적감화력은 참다운 음악만이 높이 발휘할수 있다. 음악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존재로 키우기 위한 사상정서적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인 생활과 투쟁에 복무하여야 하며 인간의 자주적인 사상을 반영하고 인민대중이 누구나 다 리해하고 즐길수 있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이러한 격동적인 장엄한 현실은 음악으로 혁명을 전진시키고 음악과 함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자랑스런 결실이다.

음악과 정치, 혁명가요와 혁명투쟁을 결합시켜 인민들을 혁명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풍모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실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음악과 정치를 밀접히 결합한 독창적인 령도예술을 창조하시여 만방에 과시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음악이 노는 커다란 인식교양적역할을 심오히 통찰한데 기초하여 음악을 당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정치사상적무기로 능숙하게 활용하여나가고 계신다.

친애하는 그이께 있어서 음악은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회를 하나로 단합시키며 시대를 혁명적으로 변혁해나가는데 이바지하는 가장 고상하고도 힘있는 정치예술로 되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처럼 음악으로 인민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고무추동해나가는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음악에 충만된 뜨거운 열정과 감정의 분출로 천만대중을 감화시켜 시대를 변혁하며 역사를 창조해나가는 령도의 묘술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독창적이고도 건인력있는 정치방식의 하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음악에 대한 깊은 조예와 풍부한 지식을 천품으로 지니신 문학예술의 거장, 음악의 대가이시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벌써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심오한 사상을 주옥같은 선률에 담은 노래를 친히 작곡하시는 놀라운 예술적기질을 보여주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청소년시절에 동서고금의 이름난 음악들에 정통하시였으며 음악리론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가수들의 소리는 물론 관현악에서 울리는 색다른 하나의 소리까지도 식별하여 바로잡아주시는 천품을 소유하고계신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창작된 모든 음악과 노래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를 받지 않은 작품이란 없으며 수많은 명곡들이 그이의 빛나는 예지를 받아 시대의 명작으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실로 위대한 정치가, 걸출한 령장,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실뿐아니라 음악에서도 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령도자로 모신것은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행운중에서도 크나큰 행운이다.

음악이 발휘하는 예술정서적감화력으로 사상전선의 돌파구를 열어나감에 혁명투쟁의 진격로를 헤쳐나가는 령도의 묘술,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펴나가는 사회주의정치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음악에서 그 내용적인 핵을 어디에 두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여나가는가 하는것은 음악으로 혁명승리를 추동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탁월한 정도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한다. 혁명의 승리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그 위업의 승리이다. 사회주의음악의 중요한 특징과 사명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여 수령의 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는데 있는것만큼 수령에 대한 송가와 같은 수령의 위대성주체의 노래들을 널리 창작하는것은 사회주의음악에서 근본문제로 제기된다. 수령에 대한 노래를 창작하는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인민대중의 지향이고 념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에 대한 노래를 핵으로 하고 그것으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이룩해나가고 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에 대한 노래창작을 친히 발기하시고 몸소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온 나라에 수령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신것은 수령에 대한 노래를 핵으로 하는 조선음악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장엄한 포성이였으며 당 사상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변이였다.

친애하는 그이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밑에 창작된 가요들은 수령과 우리 인민이 깊이 련결된 혼연일체의 위력을 소리높이 노래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이 세상 끝까지 모시고 따를 충성의 결의로 인민의 마음을 한없이 높뛰게 하여 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래전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충성의 노래》**를 창작하시였다. 불멸의 송가 **《충성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우리러모시려는 친애하는 그이의 뜨거운 충효심의 숭고한 정화였으며 수령송가 창작의 위대한 모범으로서 창작가들을 힘있게 고무하여 주었다.

실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체 인민이 수령이 안겨준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수령에게 다진 맹세를 신념과 의리로 지켜 일심단심 수령과 운명을 함께 해나가는 가장 값높은 삶을 누리도록 교양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80년대초 만수대예술단을 지도하시면서 무게있고 열정에 넘친 노래들을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시여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신데는 수령과 더불어 빛나는 삶을 누리도록 우리 인민을 예술적으로 깨우쳐주시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또다시 영원한 신념의 노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와 **《높이 들자 붉은기》**를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었

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함모의 마음과 끝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이 노래들을 부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는 1990년대의 **《적기가》**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붉은기, 승리만을 기록해온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나갈 결의로 가슴불태우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창작된 혁명의 노래들은 전체 인민을 붉은기아래 혼연일체가 되어 투쟁의 화불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전변시켜나가게 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하는 노래들과 혁명적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수많은 노래들을 창작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수령과 조국을 생각하면서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굳게 다져가게 하시였다.

또한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휘파람》**, **《도시 처녀 시집와요》**, **《축복하노라》**, **《아직은 말 못해》** 등 수많은 생활적이며 락천적인 노래들을 창작하도록 하심으로 온 사회에 혁명적인 랑만과 희열을 안아오시고 웃음속에 기쁨속에 사회주의총진군운동을 세차게 벌려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야말로 일찌기 세계정치사에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령도방식으로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이다.

노래와 함께 주체혁명위업의 첫기슭을 떠난 우리 혁명은 세찬 격랑을 헤치며 바야흐로 21세기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고 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결히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는 오늘의 자랑스런 현실이야말로 음악으로 혁명투쟁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힘있게 증시해주고 있다.

위대한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령장이시며 풍부한 정서를 소유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모시고있기에 우리 인민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다.

본사기자

꼭같이만 보입니다 외 1 편

김웅희

어제도 오늘도
힘한 령 넘고넘으시며
초소를 찾아 끝없이 걸으시는

김정일장군님

태양의 그 모습 안을 때면
걸음걸음 옮기시는 그 걸음 안을 때면
이 가슴속엔 몽클
그 걸음이 아니신가

세간넌 아들집 찾아
그처럼 바쁜 걸음 하시는
이 나라 아버지들의 그 마음 다 안은
그 걸음 그 걸음이 아니신가

조국을 지키는 그 일이
국사중에도 제일 큰 국사로 되시여
찬바람 눈바람 불어도
한품에 다 안고 걸으시는
우리 어버이장군님

어쩌면 그리도 꼭같이실가
친아들을 만나려 가시는 그 걸음
친아버지의 그 걸음같이실가
시집간 딸네 집 돌보려 가시는
친어머니의 그 걸음같이실가

어느 초소에 들리시여서도
전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생활의 구석구석
헤아리며 보살펴주시는 다심한 손길

이 나라 부모들의 마음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해 따를수도 없어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위대한 령장의 모습이여!

그러면 환히 웃으시여라
전사들을 한품에 안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우리의 어버이 **김정일**장군

조선을 안고
인민을 안고
언제나 전사들속에 계시는
그이는 우리의 친어버이
수령님의 그 모습과 함께
언제나 꼭같이만 보입니다

이 가슴속에는
이 마음속에는
그 언제나
친아버지처럼
친어머니처럼
꼭같이만 보입니다
사랑의 그 걸음도
은정의 그 손길도

아바이의 발걸음

이른새벽 논머리 천리별 안고
논물보던 아바이 집으로 가네
마누라 들에 나서기전에
무엇부터 다부릴가 생각을 하며
씨엿씨엿 걸음도 바쁘기만 해라

내 잘못된 가슴속에 묻어만 두자
새벽안개 질다고 아빨사
벼꽃을 피우는 도란도란 물소리
그 탓이야 아니였지

그처럼 가까이에서 올리시던

다정한 음성 귀전에 쟁쟁
-수고를 하십니다
천하가 다 아시는 우리 장군님
그이가 곁에 오신줄도 모르고
그이의 인사부터 받았으니 백성의 도리
천벌을 받아 마땅도 하지

한뼘 땅과 함께 굳어진 잔뼈
한뼘 들과 함께 살았어도
오늘처럼 기쁜날이 그 언제 있었던가
오늘처럼 영광속에 묻힌 날이 그 언제
있었던가

가던 걸음 멈추고 생각을 하면
 그이께서 흙물이 뱀 손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그 누가 들으실가봐 손나팔하시며
 귀전에 올리시던 목소리 목소리
 - 오늘 아침엔 무슨 반찬 하셨습니까?

서해라 물고기반찬이라고
 귀속말로 조용조용 대답드렸지
 마늘많은 이 고장 그 매력도 잘 아시고
 그 반찬이 어떤가고 물으실 때
 사실대로 실토하니 웃음도 가득
 - 로친네가 각쟁이라...

우렁우렁 올리시는
 그이의 목소리
 천리벌에 벼꽃도 피우고
 천리벌에 웃음꽃도 피웠네

이런 경사 안왔으니
 재우치는 아바이의 그 걸음
 천리벌이 따라서며 재촉을 하네

암 그렇지 그렇구말구
 앞뒤뜰에 가득한 마늘을 농구
 세간넌 아들딸집부터 생각하는
 로친네의 《고약》한 그 버릇
 그 어디 있을법이나 한 일인가
 《호통》도 쳐볼가 생각하였네

어디 가나 인민들 그 생활부터
 헤아리시며 보살피시는 우리 장군님
 이른새벽 남모르게 천리벌에 나오시어
 만풍년의 웃음소리 올려주시었네
 논물보던 아바이의 그 걸음에도
 영광의 나래를 돌쳐주시었다네

어머님을 닮고 싶습니다

정은옥

닮고 싶습니다
 늘 즐거입으신 자주빛 저고리차림의
 그 소박한 어머님의 모습을
 가리마 곧게 타시던
 어머님의 그 단정한 마음을

웃음이면
 봄빛같은 그 웃음을
 인정이면
 강설도 녹이시던
 그지없이 뜨거운 그 인정미를

그저 어머님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닮고 싶습니다
 동지를 위해선
 뚫는 죽가마도 선뜻 머리에 이시던
 그 불같은 사랑도
 그리고 산나물김치를 맛나게 담그시던
 정갈한 그 일솜씨도

명사수의 그 권총도
 가슴우에 소중히 있어보는 이 마음
 내 진정 닮고 싶습니다
 싸움터에 나서시던
 용맹하신 백두산의 녀장군

대사하언덕 그런 탄우속에도
 어머님처럼 주저없이 서고 싶습니다
 원쑤의 철창속에서도 굶핍했던 혁명절개

어머님처럼 값높이 안고 살고 싶습니다

아, 어머님
 혁명의 폭풍속에 총을 메시고
 이 나라 녀성들앞에, 조국앞에
 군복입은 첫 녀성의 장한 모습을 보여주신
 혁명의 어머님

이 땅에 별처럼 새겨오신
 그 빛나는 생애의 자옥자옥
 인자함과 강의함과 결백함으로
 한생을 아름답게 빛내이신
 조선의 어머님

한없이 깊고 뜨겁고
 그리도 다심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 어머니들이 지닌 그 모든 마음을
 어머님께서 다 안고계시는듯
 내 천만분의 하나라도 닮고 싶습니다
 조국과 혁명 그리고 생활앞에서
 어머님처럼만 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모두앞에, 시대앞에
 언제나 해님처럼 웃고계시는 어머님
 어머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차있는
 아름다움의 끝없는 세계입니다, 하늘입니다
 아, 어머님
 우리 어머님

사랑의 길우에 새겨진 전설

가을의 경치가 만산에 어려 풍요한 계절의 의미를 어디서나 느낄 수 있다.

커가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그대로 무르익었는가 산에 들에 오탁백과 주렁지고 그 향기속에 묻혀가는 내 조국.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차창에 비껴실고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가고있다.

락원의 이 강산 그 어디를 가보아도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사랑의 열매가 그대로 이 나라의 가을을 맞은듯싶다.

홍겹게 달리던 우리는 잠시 차를 멈추었다.

청고운 새들이 지저귀는 맑은 하늘이 열려지고 가을바람에 너울치는 누런 벼바다가 안겨든다. 굽이굽이 연연히 흘러간 만산에 물든 단풍, 펼쳐 넓어져 흐르는 푸른 강물은 한쪽의 병풍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절묘한 경치에 끌려서가 아니었다.

화려한 꽃밭이 담을 두른 자그마한 표식비가 우리를 부르고있었다.

우리는 비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다녀가신 포전.》

쪼아박은 한자한자의 붉은 글밭이 뜨겁게 안겨왔다.

(이 길에도 사랑이 어린 로고의 자욱이 새겨져 있었구나.)

경쾌하던 마음은 자못 숭엄함으로 바뀌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

사랑을 안고오시고 사랑을 주시며 가시던 그 자욱자욱이 평범한 이 길에도 스며져있다.

눈부리 시리도록 흐뭇한 저 현실이 여기에서 펼쳐지지 않았다고 어찌 생각지 않을 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걸어오신 그 길,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걸고계시는 인민을 위한 길이 밝혀온다.

두메의 산간벽촌으로부터 서해의 자그마한 섬 마을이며 산중의 초소길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그 어디나 나있는 사랑의 길.

그 모든 길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치한치 열어가신 전인미답의 길이었다.

사선의 고비에서 넘으시던 천교령의 눈보라길, 건국의 초행길과 포연이 서렸던 전선길처럼 준엄하고 시련에 찬 길도 있으며 내 나라 그 어디나 그분들의 인민행 길이 있다.

그러나 그런 길이 얼마이고 그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우리 다는 모른다.

저녁별이 돈을 때부터 한밤을 꼬박 달리시던 현지지도의 길이며 솟을길을 누벼가시는 자신보다 먼저 인민들을 위하시던 사랑의 이야기들을 과연 저 자그마한 기념비가 다 담고있고 우리가 부르는 몇편의 노래로만 칭송할 수 있단말인가.

눈시울을 적셔주는 그 이야기가 또다시 떠오른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름모를 외진 길에 남기신 숭고한 품도.

1992년 5월초 어느날 새벽.

온 나라가 아직도 잠에서 깨지 않은 그때도 우리 수령님께서 새벽공기를 가르며 현지지도의 길을 가고계시었다.

일군들은 년로하신 수령님을 한시빨리 현지에 모시려고 마음이 조급해있었다.

그런데 러명이 틀무렵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인가도 없는 대도로옆에 차를 세우게 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인민들에게 폐도 끼치지 않고 시간도 절약해서 좋으니 여기서 아침식사를 하고 가자고 하시며 몸소 자신께서 준비하여가지고 오신 밥팩을 일군들에게 들려주시었다.

인민들때문에 세월의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고 모진 풍상을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행복의 상상봉에 올라 온갖 부럼없는 생활을 누려가는 인민들이 뜨끈한 방에서 김이 문문 나는 밥상을 마주하고있을 때 이처럼 한적한 길에서 끼니를 에우시고계셨으니 세상에 우리 수령님같은 분이 또 어데 있으랴.

바로 여기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쌀쌀한 새벽공기를 맞으시며 나물채 몇가지가 들어있는 밥팩을 드시고 때식을 하시던 그곳은 아닌지.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곳에 처마를 가리운 소박한 정각이나마 있었다면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 보내시던 아침식사시간이며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드시던 쥬기밥에 대한 이야기가 그토록 이 마음을 아

프게 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쏟아지는 눈비와 피약별을 얼마만이라도 막아드릴수 있고 이 좋은 가을날에 순간의 휴식이나마 드릴수 있지 않을까.

력사의 지점에 서니 죄스러움에 잠긴 생각은 또다시 번져간다.

이 길은 그 길일수도 있으리.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눈보라치는 겨울날 평범한 너인과 그의 자식에게 소문없이 은정을 베풀어주시던 길.

그날은 찬바람이 눈가루를 뿌리며 모질게 불어대던 날이었다.

어느 한 둔덕길로 한 너인이 급한 걸음을 하고 있었다. 눈보라는 뿔뿔 기승을 부렸으나 너인의 이마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있다.

등에는 아이가 업혀있었다. 앓고있는 아이를 업으니 마음이 급하고 발걸음도 급하여 땀뺏을 녀를 못하고 경황이 없는데 등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 한대가 그의 옆에 이르러 멎어서는것이였다.

《아주머니, 이 추운 날씨에 아이를 업고 어디로 갑니까?》

차문이 가볍게 열리며 친근한 음성이 들려왔다.

숨이 가쁜탓도 있지만 차를 타고가던 간부가 묻는다는데 어려움을 느낀 너인은 잠시 갑자르다가 겨우 낮은 목소리로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올렸다.

《그럼 이 차를 타고 함께 갑시다.》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왔다.

소박한 너인은 사양하였다.

《일없습니다, 바쁘시겠는데 어서 가보십시오.》

오히려 그는 바쁘신 그분의 길을 방해하는것이 죄스러웠다.

《아이를 업고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걸어간다고 그렇니까. 어려워말고 어서 차에 오르십시오.》

다정한 음성이 거듭 울려서야 어쩔수 없게 된 너인은 마지못해 차에 올랐다. 했으나 송구스러워 차문결에 쏘그리고 앉아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그분께서는 편히 앉으라고 이르시며 자리까지 살펴주시더니 어린애의 머리도 짚어보시고 맥박도 가늠해보시는것이였다. 그러시면서 운전사에

게 차를 좀더 빨리 몰라고 이르기기도 하시였다.

《어린것이 잘못하니 그렇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앓으면 인차 치료를 받아야지 절대로 병을 길러서는 안됩니다. 병이 자라면 고치기 힘들니다.》

이렇게 걱정스럽게 말씀하신 그분은 어린애를 잘 키우자면 밥도 시간맞추어 적당히 먹이고 옷도 절기에 맞추어 입히며 필요한 운동도 시켜야 한다고 다정히 타일려주시였다.

너인은 어머니로서 아이의 건강관리를 잘못한 데 대한 가책으로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붉히였다.

(어쩌면 이렇게 아이를 걱정하실까?)

너무도 큰 고마움에 눈곱이 찢릿해 너인은 살며시 머리를 들고 그분을 바라보았다.

인자하고 환하신 보습! 꼭 어디선가 뵈온듯한데... 했으나 너무도 스스럼없으신 그이를 알아뵈지 못한 너인이였다.

그분께서는 병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차를 세워주시고 어서 들어가라고 손짓하시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시였다.

죄송함과 함께 그분의 인품에 뿔어오르는 걱정을 참을길 없어 그는 한동안 그자리에 서서 눈보라속으로 지는 그분의 차를 바라드려했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집에 모시던 날 그이를 알아뵈지 못한 안타까움에 가슴을 쥐여뜰으며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손목을 잡고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말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너와 나의 운명과 미래까지 다 맡아 보살펴주시는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모두를 사랑의 꽃수레에 태워 행복의 락원으로 이끌어가고계신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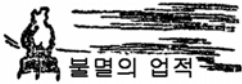
정녕 이 나라 방방곡곡으로 나있는 모든 길들에는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감동적인 사실들이 얼마나 많이 스며져있으랴.

우리 수령님 한생토록 걸으셨고 우리 장군님 쉬임없이 걷고 걸으시는 그 길이 있어 오늘의 락원은 솟아났고 조국의 래일은 그리도 창창한것 아닌가.

하기에 공산주의언덕으로 끝없이 뻗어간 이 길에서 인민들은 충성을 맹세다진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 한길로 신심높이 가려는 인민의 의지는 영원히 변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로창일



한편의 노래로부터 세계적인 걸작의 영화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시대의 기념비적대작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제기하고있는 문제의 세계적인 의의와 그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해명으로 하여 단연 세계적인 걸작으로 됩니다.》

사람들을 놀래우며 시대를 격동시키는 세계적인 걸작은 위대한 령도자의 손길아래서만 창작된다.

로동당시대에 창작된 특출한 성과작으로 되고있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영화의 수많은 속편들을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하게 만들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에서 우리는 그이의 비범한 창조적에지에 대하여 깊이 느끼게 된다.

이 다부작예술영화에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혁명적세계관과 인생관, 미학관이 집중적으로 집대성되어있다. 이것으로 하여 이 영화는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처럼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기념비적걸작은 과연 어떻게 태어났는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자신께서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상으로 하여 만들도록 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종자를 주시였을뿐아니라 문학예술의 비옥한 토양에 깊이 묻어주시고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게 하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다.

경사스러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79돐을 맞이하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충성의 열정으로 뛴어버지던 때인 1991년 4월초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미 보천보 전자악단에 과업을 주시여 창작완성한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친히 들어주시였다.

한번 들으시고 또다시 주의깊게 들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노래 《내 나라 제일로

로 좋아》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진한 좋은 노래라고 하시면서 아주 좋은 노래가 나왔다고 더없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 노래는 이 땅에서 살고있는 우리 인민들과 다른 나라에 출장가있는 사람, 남조선피괴군에 복무하였던 퇴역장령, 다른 나라에 가서 망명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늙은이나 어린이 할것없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에 다 맞는 참으로 훌륭한 노래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노래를 부르면 강냉이밥에 된장을 먹어도 우리 나라가 제일이라는 감정이 나온다고 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이 노래는 민족적색채가 진한 노래인만큼 널리 보급하여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게 하여야 한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그 이후에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 노래에 대하여 또다시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 노래는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다는 사상을 심오하고도 극적인 인간관계속에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잘 형상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 노래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즐기치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한편 이 노래를 가지고 다부작의 대걸작영화를 만들 구상을 펼치시였다.

1991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가 가지고있는 사상정서적감화력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노래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다부작의 대걸작영화를 만들수 있다고 하시였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독창적인 발견이였다.

영화의 창작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앞으로 만들 영화들은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기본으로 끌고나가면서 이미 창작된 노래들을 배합하여 쓰면 훌륭한 영화로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영화에서 원형인물들을 전형화하여 인간관계를 특색있게 엮을데 대한 형상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높뛰는 열정을 안고 창작 전투에 들어섰으나 이렇다할 구성안을 내놓지 못

하고있었다.

그들은 다부작예술영화의 제목은 무엇으로 달며 종자는 어떻게 심어야 앞으로 펼칠 속편 영화들에서 형상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나가겠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앞으로 창작할 속편 영화들에서 나서는 창작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세심히 밝혀주시었다.

1991년 6월 어느날 당중앙위원회 어느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또다시 창작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는 다부작예술영화의 제목을 여러가지로 생각해보았는데 《민족과 운명》이라고 하는것이 제일 좋을것 같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형상될 주요인물원형들의 생활이 민족을 위한 길에서 운명적인 이야기로 일관되어있기때문에 제목을 《민족과 운명》이라고 달면 민족과 운명에 관한 문제를 깊이있게 철학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한편의 노래에 담겨진 하나의 사상으로부터 민족과 운명이라는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밝혀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예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로 놀라운것이였다.

참으로 수천년의 인류문예사를 돌이켜보아도 민족의 운명문제를 이처럼 전면에 내세운 그런 작품은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처음으로 자주성을 사람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보는 주체철학에 기초하시여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종자를 심어주시고 그에 올바른 예술적해답을 줄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민족의 자주성문제를 주체의 인간학에 기초하여 예술적화폭으로 깊이있게 그릴수 있는 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제목과 종자를 받아안게 된 창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에서 속도전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면서 곧바로 줄기차게 나아갔다.

그리하여 불과 몇달사이에 주인공 최현덕을 형상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제1~2부가 완성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92년 2월 3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주시고 력사적인 로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으로 되여야 한다》**를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에서 거둔 성과를 총화하시고 앞으로 속편 영화창작에서 지켜야 할 미학실천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로작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세계적인 걸작으로 완성하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였다.

한편의 노래에 담겨진 사상을 심오히 헤아려보시고 다부작의 대결작영화로 만들도록 이끌어주신 그때로부터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다부작예술영화에 형상된 주인공들인 최현덕, 차흥기, 윤상민, 리정모, 림은정, 진웅산, 허정순, 리찬 등은 파란곡절 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오는 인간형상으로서 마침내 어머니 사회주의조국의 따사로운 햇빛아래서 참된 삶을 마음껏 꽃피운다.

그런가 하면 영화는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내 나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며 그 길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는 강태관과 같은 인물들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실로 한편의 노래에 담겨진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闊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다는 사상이 다부작예술영화에서 민족과 운명이라는 심오한 사상으로 승화되어 사람들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사람들이 영화의 주제가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들으며 그토록 환희로운 감정을 가지게 되는것은 우리 수령님이 제일이시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인민이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온몸에 그대로 뜨겁게 맥박쳐오기때문이다. 또한 한편의 노래로 세계적걸작의 영화를 만들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예지에 대한 경탄이 분화구에서 터져오르는 불길마냥 솟구쳐올랐기때문인것이다.

우리는 세계적인 걸작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속편들을 받아안을 때마다 문학예술의 영재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돌이켜보며 그이를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고향집의 자장가소리

리기택

해지고 날이 저무니
백두밀영고향집 창가에
소리없이 켜지는 불빛
은은히 흐르는 불빛

이런 밤 이런 때이면
조용히 울리곤했던가
추억에 잠기는 이 가슴속에
금시 들려오는 자장가소리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어서 자라 속히 자라 붉은기 들고
...

타래치는 눈보라
너대원들 정성이 한뼘한뼘 뜨거운
한쪽의 쪽무이포단으로 막으시며
우리 어머니
조선의 미래를 안고 부르신 노래

소백수물결도 도란대며
그 숨결 고르로이 지켜가는 천출위인
어리신 그 모습에 비껴있는
창창한 조선의 래일을 불러
자장가 새벽까지 밀림을 쓰다듬었던가

그 노래 들으시며
위대한 그이 혁명의 첫자욱 떼시였고
백두의 기상과 천지의 슬기로
심장의 고동소리 키우셨나니

노래속에 담겨있던 어머니의 소원
이 강산에 수령복으로 꽃피여났건만
어머님은 어디 가시고 노래만 남았는가
그리움에 젖어 안아보는 귀틀집이여

아, 잊을수 없으리
잊혀질수 없으리
누리에 솟아 찬란한
향도의 그 빛발속에 어려있는
어머님의 그 노래, 사연깊은 자장가

창가의 불빛도 어머니 그러 타는듯
지붕우의 별무리도 어머니 그러 내려앉는듯
차넘치는 그리움을 안고
발걸음 못떼는 이 가슴속에
그 노래 오늘도 뜨거움 불러내며 울리네

공산주의 새 세상 펼치는곳에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싸우자

인생과 래일

홍민식

내 벌써
몇번째 다시 외워보는지 모르노라
길지 않은 그 한마디-
만마디를 대신한 뜻이 깊은
장군님의 말씀

오늘과 래일
인생과 조국...
세상철리가 그 한마디에 다 담긴
그 숭고한 뜻에
내 생각은 깊어지나니

행복한 오늘을 두고
오늘로 떠밀어준 어제를 생각하노라
간고했던 향일의 나날

시련 많던 전화의 날들, 전후의 시기...
그날에 산 삶들을

그렇게 오지 않았더냐, 오늘은
고난의 행군의 그 눈보라를 헤치고
불타는 락동강을 넘으며
재더미를 털고 솟아오른
천리마의 그 역센 나래에 얹혀

그렇게 또 오고있지 않느냐, 래일은
뻗어가는 초고층의 새 거리
넘치는 창가의 웃음소리를 타고
넓어지는 풍요한 땅
흥치며 설레는 낯알향기를 안고
더 높이 든 붉은기의 세찬 퍼덕임에 실려

이제 래일이 오면
그날에 살 후대들 또한
더 큰 행복에 목매이며 생각하리
래일로 떠밀어준 오늘을
오늘에 산 우리모두의 삶들을

오늘이 가서 래일이 오는것 아니더라
바치는 사랑이 없고
위하는 투쟁이 없이는 오지 못할 래일
오, 래일은
지향으로 뛴 오늘을
오늘에 산 우리모두의 인생의 값이 아니나

그래서 우리 장군님
인생의 행복도
인생의 보람도 래일에 있다는 철리로
가장 값높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주시는
우리의 삶

래일이 없는
그 어떤 오늘의 락도 바라지 않노라
래일을 위한 삶에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천만준령도 두렵지 않노라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고
우리의 세월은 밝고
그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미래는 양양하고
우리의 조국은 강대하여라

아, 참되게 살자 오늘의 순간순간을
래일에 욕됨이 없이
후대들앞에 부끄럼이 없이
다치고다지는 피땀은 가슴에
장군님의 명언 심장처럼 새겨안노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백두산 찾아오는 아들딸들에게

리찬영

백두산마을이
나서자란 고향이라고
때없이
멀리 갔던 자식들이 찾아온다

평양과 원산
멀리 외국까지 갔다가도
휴가때면 북관땅
백두산기슭으로

그럴 때면
고향의 덕이에 올라
백두산 바라보며 발돋움하네

그러면 백두산은
그 큰품을 한껏 벌리고
부모들보다 먼저 안아주듯
승엄히 솟아오르네

내 나라 강산우에
저리히도 백두가 솟아오르지 않았다면
고향이 다 무엇이라
조국이 다 무엇이라

바라만봐도
심장깊이 흘러드는것

말없이도
백두가 다 전해주는것...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자신의 뜻깊은 고향 백두산을
때없이 찾으시여
새라새힘을 가다듬으시나니

너희들 마음속에도
백두의 바람이 새 활력으로 넘치기를
백두의 혁명정신이 마음속 갈피마다
속속들이 더 스며들기를

장군님과 한식솔로 사는 조국땅에서
언제나 백두산 아들딸로
더 억세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백두의 정신으로만 일하시는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처럼

이 땅에서 사는 의미
더 뜨겁게 안으라
장군님의 조국을 받들어가는 마음속에
언제나 백두산을 더 높이 세우고 살라

김정일동지께 경의를

길레르모 알가싸르 리베라

평화의 수호자이신

김정일 동지께 경의를 드리노라

평화를 달가와하지 않는자들

증오와 저주를 받으리

조선은 생각도 걸음도 하나인

일심단결의 나라

김정일 동지는 당과 대중

사상을 향도하시는 해불

그 불길 세차게 타올라

전쟁의 불구름 가세지고

불을 즐기는 호전분자들

공포속에 허덕이네

그 해불 들고 나아가는 조선인민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과 아픔 하늘에 닿았어도

눈물을 거두고

조국의 분렬을

피를 물고 추구하는

분렬주의자들을 맞받아나아가노라

조선은 생각도 모습도

하나인 일심단결의 나라

조선은 비행기도 선박도

척척 만들어내는 공업국가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모시여

세기와 인류앞에

고귀한 업적 쌓았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진두에 모시여

우여곡절 모르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라

저 멀리 조선에서 울려오는

승리의 만세소리

배신을 모르고 혁명의 길

걸어가는 세계인민들에게

과학적신념 북돋아주고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는

준엄한 철추를 내리어라

경의를 드리노라

착취받고 억압받는 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 안겨주며

보다 큰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필자는 빼루시인임)

가사

동해명승 칠보산아

전계승

동해의 푸른 물에 일만경치 드리우고

아름다운 그 모습 자랑하는 칠보산아

봉이마다 기암절벽 전설 깃든 천하절경

금수강산 내 나라 온 세상에 떨치누나

계곡마다 수정폭포 옥돌바위 날아넘어

가야금을 타는듯 노래하는 칠보산아

일만경치 황홀한 해철보의 천하절경

금수강산 내 나라 온 세상에 떨치누나

나라 지켜 싸운 용맹 슬기를 안고서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난 칠보산아

천하의 절경으로 천만심장 불태우며

금수강산 내 나라 온 세상에 떨치누나

통일대장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김정일**장군님의 인격만으로도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는 말이 짝 퍼지더니 피뢰군내에서는 《통일대장수 **김정일**장군》이란 말과 함께 여러가지 이야기가 떠돌고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통일의 구성으로, 민족의 령수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는것으로서 피뢰군우두머리들의 간담을 서늘게 하고있다.

이렇게 되니 피뢰군사병들속에서는 물론 중하층 장교들속에서까지 군부의 우두머리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가고있다.

《**김정일**장군님의 명함만 들어도 벌벌 떠는것들이 어떻게 감히 맞서보겠다는거야.》

《광복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의 명함만 들어도 왜놈들이 벌벌 떨더니 오늘 통일대장수 **김정일**장군의 성함은 매국노들을 기절초풍하게 하누만.》

이런 이야기가 더한층 활기를 띠고 떠돌게 된것은 몇해전 어느날 아침 갑자기 피뢰군부의 《왕별 네알장성》이 까무라친 때부터였다.

그놈이 까무라친것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이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하던 바로 그때였다. 군의 전력(전투력)상태를 분석한 어느한 야전군의 주간상보를 들여다보던 늙다리 《장성》 황두보는 불에 덴것처럼 쓰라에서 후닥닥 일어났다.

《야전군 장교총수 1664명 그중 환자 1,200명 70%이상》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장성》은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그 책임이 부관에게 있거나 한듯이 무슨 환자가 그렇게 많은가, 군이 무슨 병원인줄 아는가고 고함을 지르다가 당장 알아보라고 울려퍼졌다.

발라맞추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는 젊은 부관은 이번에도 상관의 비위를 잘 맞추었다.

두시간도 못되어 다시 돌아온 부관은 재간스레 딱소리가 나게 군화뒤축을 모아붙이며 보고하였다.

《각하, 상보에 지적된 환자수는 정확하며 그 병명은 공포증입니다.》

《뭐라구? 공포증? 세상에 그런 병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자 부관은 기다렸다는듯이 또 내리엮었다.

《각하, 공포증이란 말그대로 무섭중에 떠는 신경병 일종인데 의무부에서 종합한 자료에 의하면 요즘 이 병이 군내 상층장교, 일선장교들속에서

대대적으로 류포되고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일이 빠져 하루종일 멍청해있는것이 특징인데 심하면 까무라치기까지 합니다.》

《장성》은 또다시 껍 소리를 질렀다.

《무엇이 어째 일이 빠진대구?》

제풀에 성이 나서 푸르럭거리던 늙은 《장성》은 부관을 쏘아보며 물었다.

《그래 그 병이 왜 갑자기 퍼지게 되였는가?》

이번에도 부관의 대답은 물흐르듯 류창하고 칼로 자르듯 명료하였다.

쭉쭉소리가 나게 손자크가방을 연 부관은 모가 나게 접은 종이를 꺼내놓으며 말하였다.

《각하, 지금 군내 식당과 막사마다에는 이런 글이 가득 나붙군하는데 이것을 본자들은 영악없이 그 병에 걸린다는것입니다.》

부관의 대답을 믿지 못하겠는지 《장성》은 책상으로 다가가 종이장을 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처럼 위풍당당하던 《장성》의 눈알이 갑자기 뒤집혀지더니 입에서는 게거품이 피어오르며 비명을 울리는것이였다.

《토-통일대장수 **김정일**장군- 아이쿠 부-분명 그 룡마장수다-》

이렇게 중얼거리던 늙은 《장성》은 끝내 썩은 나무 넘어지듯 다리를 꺾으며 까무라쳤다.

늙다리 《장성》 황두보가 기절초풍한데는 그럴만한 연고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해방되기직전 백두산근방에서 있는 이야기이다.

십여년이 넘도록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 유격대에게 출창 얻어만 맞아 얼흔이 다 빠진 왜놈들은 **김일성**장군의 명함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그래서 소위 전투경험이 있다고 하는 왜놈들은 누구나 **김일성**장군유격대를 피해 군사를 움직여야 한다는것을 서로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엄격히 지키는 하나의 행동준칙으로 삼고있었다.

더우기 **김일성**장군유격대의 국내진출이 강화된 그즈음에 와서는 어느 왜놈도 백두산근처에 아예 얼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백두산근방의 어느 한 《국경수비대》에서는 갑자기 출동명령이 내려졌다.

이 《수비대》로 말하면 오래전부터 나라와 민족의 극악한 원수가 되어 술한 애국자들을 살해함으로써 《천황폐하》의 특별신임을 받고 제국록

군사관학교를 나온 왜놈아닌 왜놈장교 황두보놈이 거느리는 《수비대》였다.

사실 이놈은 조선사람의 거죽을 쓰고서 왜놈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더 큰 죄때문에 누구보다도 조선사람을 두려워하고 **김일성** 장군유격대를 무서워하는 놈이었다.

왜놈들도 그놈은 달가와하지 않았다.

《조선놈》이라고 하면서 왜놈상관들은 장교값에 치지도 않았으며 제때래 《동료》들도 그를 거지 발싸개처럼 여기었다.

밖에 나가면 조선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웠고 제 방에 들어와 혼자 있으면 유격대가 당장 덮치려 오는것 같았으며 수비대놈들과 같이 있으면 왜놈들의 멸시가 진절머리났다.

그런대로 제일 마음이 놓이는것이 제 집안이어서 이놈은 찍하면 수비대에도 나오지 않고 하루종일 집안에만 박혀있곤하였다.

결국 이놈에게는 어느 사이 《집안수비대장》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개천의 미꾸라지 룡이 될 꿈을 꾸다고 그래도 이놈은 《무공》을 세워보려는 꿈을 언제나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김일성** 장군부대가 멀리 북쪽으로 출전하여 백두산근거지가 텅 비었다는 밀정의 보고가 들어왔다.

(이것이야말로 목숨을 부지하면서도 《무공》을 세울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집안수비대장》은 이 기회에 텅 비어있을 유격근거지를 치고 《위훈》을 세워볼 심산이었다.

놈은 곧 《국경수비대》에 출동명령을 내렸다.

두더지처럼 집안에만 었던 《집안수비대장》이 갑자기 초가를 메뚜기처럼 날치는바람에 어리둥절해진 《수비대》놈들은 리명수등판을 지나 간백산쪽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었다.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늑은 황소처럼 꾸물거리는 병졸들을 몰아대며 황두보놈이 소백수기슭에 이르렀을 때였다.

혹시 **김일성** 장군이 출전하지 않았으면 어찌나 하는 생각이 좀처럼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황두보는 멀리 백두산쪽만 바라보며 《수비대》놈들의 뒤꽂무니를 따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우에서 《이놈들아, **김일성** 장군유격대가 여기에 있다.》하는 우뢰같은 호령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니 돌사태 쏟아지는 소리가 요란히 들려왔다.

《아이쿠.》

김일성 장군유격대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해진 《집안수비대장》은 남면저 커다란 나무등결뒤에 대가리를 틀어박았다.

이젠 영낙없이 죽었구나 하면서 고슴도치처럼

몸뚱아리를 잔뜩 웅크리고있는데 어쩐 일인지 사위는 조용해졌다.

한참만에야 도망칠 생각으로 조심스레 머리를 빼들고보니 《수비대》놈들은 어느새 꽂무니를 뺐는지 한놈도 눈에 띄지 않았다.

(자식들, 도망치는덴 번개 한가지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집안수비대장》이 엉금엉금 뒤걸음질을 할 때였다.

이번에는 《휘익》하는 바람소리가 놈의 뒤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것이였다.

황두보는 또다시 그자리에 납작 엎드리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머리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달빛이 흐르는 저 멀리 산봉우리로 밤빛말꼬리가 날아넘어가는것이 아닌가.

(후유- 룡마를 탄 **김일성** 장군이로구나.)

발견되지 않은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 《집안수비대장》은 뺨소니를 치려고 찻찻해진 몸을 일으켜세웠다.

그 순간 룡마가 날아넘어갔던 산봉우리쪽에서 또다시 《오호흥-》하는 말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빠맞은 황두보는 나무등결뒤에 또 몸을 쑤셔 박았다.

잠시후 황두보의 눈앞에는 흰점 박힌 밤빛룡마가 소리도 없이 살짝 내려앉았는데 룡마가 뿌리는 빛인지 아니면 그우에 올라앉은 룡마장수한테서 빛발이 뿜어나오는지 사위는 대낮처럼 환해졌다.

오금이 저려난 황두보는 숨도 크게 못쉬고 룡마장수를 올려다보았다.

해빛을 안은듯 환한 얼굴에 별빛처럼 정기 넘치는 안광, 번쩍번쩍 빛나는 누런 갑옷, 목에는 쌍안경을 걸고 허리에겐 권총을 차고 손에는 긴 칼을 잡고 위엄있게 앉아있는 룡마장수가 산만큼 크게 똑똑히 보였다.

(**김일성** 장군이구나!)

황두보는 기가 질려 죽을 시각만 기다리고있었다.

룡마장수는 네놈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듯 천천히 쌍안경을 들어 눈에 가져다댔다.

그리고는 얼굴에 노기를 띄우고 또다시 우뢰같은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 놈들, 예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여들었느냐?》

(아이쿠, 이젠 정말 마지막이구나.)

목이 달아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집안수비대장》은 얼혼이 빠졌다.

이윽고 룡마장수는 큰칼을 높이 들면서 령을 내렸다.

《한놈도 놓치지 말라, 돌격앞으로!》

룡마장수의 돌격명령과 함께 백두산마루에서 《광-파르릉!》 하는 천둥소리가 울리더니 난데없이 돌개바람이 터졌다.

순간 소백수굴안에 꽉 들어찼던 크고작은 나무들이 일시에 군사로 변하여 《와-와-》 환성을 울리며 달려나왔다.

《집안수비대장》은 기겁하여 눈도 뜨지 못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뺑소니를 치기 시작하였다.

정신없이 뛰어가던 그놈은 무엇인가 딱하고 이마박을 때리는것을 느꼈다.

순간 눈앞에서 번개불이 번쩍하고 일었다.

(이것이 룡마장수가 주는 천벌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뒤로 훌렁 자빠진 그놈은 아예 까무라치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한참만에야 푸들쩍거리며 깨어난 《집안수비대장》은 자기 대가리부터 만져보았다.

분명히 대가리는 붙어있는데 이마에는 주먹만한 혹이 생겨났다.

정신없이 뺑소니를 치다가 나무에 부딪쳐 생긴 것이었다.

가까스레 정신을 가다듬은 두보는 제놈앞에 서있는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순간 그놈은 눈알이 화등잔만해졌다.

길다랗게 껍질이 벗겨진 나무에는 주먹만한 글발들이 새겨져있었던것이다.

《아, 조선아 백두성 탄생을 알린다.》

달빛에 비쳐보이는 글줄을 떠들떠들 읽어내려가던 황두보놈은 아래도리맥이 탁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아, 백두산에 **김일성**장군 계승인으로 백두광명성이 솟아올랐더니... 아까 그 룡마장수가 흑시...)

의혹을 풀지 못한채 간신히 네발걸음으로 돌아온 《집안수비대장》은 곧 밀정놈을 불러댔다.

《야, 이놈아 다시 말해봐. 뭐 **김일성**장군부대가 멀리 출전했다고?》

주먹만한 혹이 시퍼래지도록 붉으락푸르락하는 《수비대장》앞에서 사시나무떨듯하던 밀정놈은 기어드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수비대장님, 저 **김일성**장군유격대가 출전한것만은 사실입니다. 바로 어제밤에는 **김일성**장군이 저기 주가튼을 쳤습니다.》

《뭣이? **김일성**장군유격대가 주가튼을 쳤다고? 그러면 어제밤에 나타난 그 룡마장수는 도대체 누구란말이야?》

순간에 서리맞은 배추잎처럼 맥이 빠져 중얼거

리는 《수비대장》을 바라보면서 밀정은 겁에 질린 소리로 대답하였다.

《글쎄올시다. 지금 항간에서는 백두산에 **김일성**장군의 술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백두광명성이란 새 장수가 나타났다는 말이 짹 퍼졌는데 혹시 그 장수가 아닌지...》

밀정놈의 입에서 백두광명성이란 소리가 튀어나오자 황두보는 또다시 눈알을 뒤집으며 의자에 꼬꾸라졌다.

어제밤에 나타났던 룡마장수와 함께 나무에 새겨져있던 백두광명성이란 글발이 생각났던것이다.

《아이구, 어제 그 룡마장수는 분명 백두광명성이라는 그 새 장수다.》

그때부터 황두보의 머리속에는 룡마장수의 위엄있는 모습과 백두광명성이란 글발이 좀처럼 지질 않아 노상 혼이 빠진 놈처럼 헛소리를 치군하였다.

이렇게 되어 두보는 《집안수비대장》 노릇도 못하고 《다다미수비대장》 노릇만 하다가 8.15와 함께 서울로 뺑소니를 쳤던것이다.

최악으로 가득찬 인생행로를 걸어온 그 《장성》놈이 또다시 《통일대장수 **김정일**장군》이란 글발을 대하게 되었으니 어찌 정신을 차릴수 있겠는가.

침대우에 누운 왕별 네알 늙은 《장성》은 연방 헛소리를 쳤다.

《백두광명성, 룡마장수...》

《통일대장수다... 아이구, 날 잡으러 오는구나...》

늙은 《장성》이 까무라쳤다는 말과 함께 군부내의 장교들과 사병들속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떠돌았다.

《통일대장수 **김정일**장군이 한번 령을 내리면 온 이북민중이 끝끝한 장수로 되어 전장에 나선대.》

《작년에 일본주둔 미군사기지에 통일대장수 **김정일**장군이 구름타고 나타났다 바람처럼 졌는데 미국놈의 신행비행기들이 모두 돌덩어리가 되었다누만.》

《얼마전에 제주도 백록담에 나타난 통일대장수는 멀지 않아 악한짓을 하는자들을 심판하러 오겠다고 하였대.》

《통일대장수 **김정일**장군》이란 말은 오늘 짓눌러 사는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앞날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신심을 주고 해빛을 피해 민족을 등지고 사는 매국배족의 무리들에게는 끝없는 공포를 안겨주면서 남녘의 곳곳에 퍼지고있다고 한다.

한편의 전설을 두고

김우경

전설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을 편답하다나니 내가 찾아간 고장은 수없이 많다. 그 길에서 만난 사람 또한 많아 그 수가 천인지 만인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조용히 생각을 더듬노라면 자기 고장에서 창조 전승되고있는 백두광명성전설을 열기때 목소리로 들려주던 구술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그들가운데는 나와 껍 친숙해져 구면친구가 된 사람도 적지 않다.

지금도 그들은 새로 수집한 전설을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나를 자기 고장에 부르기도 한다.

그들중에는 60이 넘는 묘향산력사박물관 관장도 있다.

지난해 가을 어느날 오래간만에 우산장에서 집에 돌아오니 그한테서 온 한장의 편지가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편지의 내용인즉 묘향산으로 빨리 오라는것이였다. 필경 묘향산의 가을경치가 기막히게 아름답다고 하더니 그것을 구경시키려는게 분명하였다.

그의 호의가 고맙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이미 수집한 전설을 정리하기 위해 몇가지 자료를 더 보충확인할것도 있고 해서 나는 인차 행장을 갖추고 렬차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나는 그 길에 또 그곳에서 새로운 백두광명성전설을 수집하게 될줄은 생각 못했다.

나를 상원동에 안내한 관장은 인호대오름길에서 한 바위를 가리키며 이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 바위에 새겨진 <나무아미타불>이란 글과 방금 지나온 룡연폭포의 계류반석에 새겨진 <신선굴택운하동천>이란 글을 두고 묘향산사람들속에서는 흥미있는 전설이 전해내려오고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언제나 나의 호기심을 끌었다.

《옛날 칠보극락세계를 보살핀다는 아미타불이라는 부처가 있었는데 그는 묘향산상원동을 자기네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인호대오름길에다 극락세계인 여기서 자기에게 운명을 맡기라는 뜻에서 <나무아미타불>이란 글을 주련처럼 크게 새겨 드리워놓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바로 여기가 극락세계라는 간판과도 같은것이랍니다.

한편 하늘나라 옥황상제는 백옥경에서 묘향산상원동을 굽어보다가 아미타불이 자기 세상이라

는 명호를 단것을 보고 서둘러 한 신선을 내려보내어 이름난 서예가인 양사언의 꿈에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꿈에 계시를 받은 양사언은 묘향산으로 찾아가 룡연폭포의 반석에 <신선굴택운하동천> 즉 구름안개 피여나는 이곳은 신선이 사는 경지라는 뜻의 글발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자보다 곱절이나 더 크게 새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여 아미타불과 옥황은 저마다 이곳이 제 세상이라고 수백년동안이나 승벽내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극락>이나 <선경>에는 낯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상원동이 아무리 <극락>이요 <선경>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고달픈 생활을 하고있으니 <평등>이요 <행복>이요 하는것이 한갓 꿈속의 말처럼 들렸던것입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심취되여 더 깊이 끌려들어갔다.

그러던것이 김일성장군님께서 드디어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찾아주신후 묘향산은 날을 따라 아름다워지기 시작하였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행복의 노래소리는 더 높아갔다.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묘향산의 험한 산밭을 타시며 등산길을 개척해주시고 인민의 명산으로 꾸려주신 때로부터 산천은 더욱 빛을 뿌리었다.

선경의 신선도, 옥경의 상제도 그리고 극락세계를 보살핀다는 아미타불도 이 희한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진짜 극락과 선경은 저기로구나. 저기가 리상향이로구나.》

보면 볼수록 희한한 세상이었다.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초월하여 피를 나눈 한식술처럼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있었다.

《평등》을 뛰어넘어 마음이 하나로 뭉친 세상, 이것은 정녕 극락이나 선경이나 천당이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세상이었다.

(행복한 저 인생락원은 과연 어떤 세상일가?)

묘향산의 아름다움과 거기서 울려오는 사람들의 행복의 노래소리에 현혹되여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던 옥황은 어느날 상원동을 내려다보다가 《영?!》 하고 소리질렀다.

선경 천신폭포의 절벽에 《일심단결》이라는 명필과 함께 《김정일》이라는 존함이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었던것이다.

이상하게도 그 글발은 낮에도 밤에도 해빛과 별빛에 어리어 늘 빛을 뿌리었다.

리상향에 대한 수천년 인류리념을 총화하는 천신폭포를 끼고 하늘중천 푸른 절벽에 떠오른 천필글발은 일심단결된 조선의 모습이었고 조선의 상징, 조선의 간판이었다.

그 글발을 보고 아미타불은 마음이 걸려 남몰래 슬며시 인호대바위에 새겼던 《나무아미타불》이란 글발을 거두었고 신선들은 부끄러워 《신선굴택운하동천》이란 글발을 룡연폭포의 계류속에 깊이 잠그었다.

그래서인지 지금 그 글발들은 자세히 찾아보지 않고서는 쉬이 볼수가 없다고 한다.

《참 훌륭한 전설입니다.》

나는 깊이 감심되어 관장의 손을 잡았다.

뜻밖에도 장중보옥같은 전설을 듣게 된 나는 크나큰 기쁨과 걱정애 휩싸였다.

백두광명성전설은 바로 이렇게 창조되고있었다.

아니,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인민이 그이께 드리는 한편의 송가였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끝없는 신뢰감과 숭배심을 간직한 우리 인민만이 창조할수 있는 송가이고 찬가인것이다.

이런 송가, 이런 찬가가 수백수천편을 헤아릴진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사실 지난날 명인전설이라 하면 한 인물에 한해서 불과 몇편, 그것도 후세에 그의 위훈과 공적이 전해지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 점차적으로 생겨나지 않았는가.

허나 백두광명성전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백두성,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우러르던 반세기 전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창조되어 오늘은 하나의 전설군을 이루었으니 이것만으로도 그이의 위대성을 웅변적으로 잘 실증해주고있는것이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구전문학, 특히 그 가운데서도 전설문학은 사멸되어가고있다고 한다.

이미 오래전에 창조된 고대의 옛 전설만이 전해지고있을뿐 현대에 와서는 새롭게 창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있다.

그 원인은 일명 《할머니문학》이라고 일컬어는 전설이 《가정의 세분화》로 하여 전설의 전승자인 할머니가 매 가정마다에 없다는 사정과 관련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텔레비존과 라디오를 비롯한 전자제품 즉 《현대 메스컴의 출현》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전설을 창조하고 전승할 조건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외국의 문예학자들은 말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전설을 낳을만한 위인이 없고 그 위인에게 매혹된 충실한 인민, 슬기롭고 재능있는 인민이 없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광풍이 휘몰아치는 세계에

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 나라를 일심단결된 대가정으로 꾸려주시고 천리혜안의 선견지명, 무비의 담력과 대용단으로 용의주도하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승리로 이끌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구세주》로, 《하늘님》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뜨거운 흠모의 마음으로 수많은 백두광명성전설-인민송가들을 창조하고있는 것이다.

아니,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 인민들로부터 《하늘님》으로 높이 떠받들리우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전설은 민족과 나라의 지경을 넘어 세계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무궁하게 창조되고있는것이다.

사람들은 무릇 전설이라고 하면 민족과 종족, 부족의 범위안에서 옛날부터 전해져내려오는것으로만 알고있었다.

그런데 20세기중엽부터 세계적인 판도에서 창조전승되기 시작한 백두광명성전설을 대하면서 사람들은 놀람과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지난날 인류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위세와 전지전능을 떨친 《구세주》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그들이 설교한 《천당》이나 《극락세계》는 인간을 현혹시킨 신기루에 불과했을뿐 억조창생의 그 어느 인간에게도 기적을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고 그 위대한 사상을 구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이 인류의 리상사회-공산주의사회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앞길을 등대처럼 휘황히 밝혀주고계신다.

정녕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웅근 한개 도시와 맞먹는 광복거리와 통일거리를 한해남짓한 기간에 일떠세우시고 20리 날바다도 단숨에 막아 서해갑문을 세우신 그 《축시법》으로 우리 나라를 이 지구에서 하나밖에 없는 인생락원으로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꾸려주시고 지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무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시었으니 그이는 분명 하늘님이시다.

그렇진대 우리 인민들과 온 세계 인민들의 심장속에서 어찌 하늘님이신 그이에 대한 전설이 창조되지 않으며 그이의 업적을 칭송하는 송가가 태어나지 않겠는가.

참으로 백두광명성전설은 우리의 하늘님,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며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집대성된 아니, 세계인민들의 슬기와 재능이 집대성된 전인류적인 가치를 가지는 혁명적인 구전문학유산이다.

그날 나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더욱 가슴뿌듯이 느끼며 상원동을 내렸다.

푸른 제방

변월녀

땅거미가 내리고있었다.

천곡저수지를 둘러싼 산봉우리들이 차츰 원근감을 흐리며 몽롱해지기 시작하였다.

명성은 맥풀린 두팔을 가슴에 겹놓고 제방쪽에 걸터앉아 돌아올줄 모르는 저수지관리책임자인 최재현아바이를 기다리고있었다.

(왜 아직 안돌아올까? 무릉산골짜기를 찾아간 아바이에게 무슨 뜻밖의 일이라도 생긴게 아닌가?)

어제저녁 재현은 물이 반나마 끓은 휘넓은 저수지에서 점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다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물이 어디에선가 류실되는것 같아.》

걱정이 가득 실린 그의 이마우에는 발고랑같은 주름살이 깊숙이 패였다.

재현은 한동안 궁리를 모으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더니 《래일 내가 무릉산쪽으로 가보겠네. 거기 석회암동굴로 숨새드는 물길을 막아놓은것이 있는데 거기가 다시 터져 물이 새는것 같아.》라고 했었다. 재현은 오늘아침 일찌기 떠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것이였다.

(아바이두 참. 자기 사업을 인계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극성을 부리다니...)

명성이 재현의 후임으로 임명되어 여기로 온지도 어느덧 한달이 지났다.

명성은 자기가 저수지관리인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견치 못하였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청장년들이 앞을 다투어 농촌으로 진출할 때 명성은 자신도 그들의 뒤를 따를것을 결심했을뿐이였다.

어느날 저녁 그는 늦게 퇴근하여온 도안전부부장인 아버지앞에 다가갔으며 또박또박 그루를 박아 말하였다.

《아버지, 신중히 의논할 문제가 있습니다.》

《?...》

아버지는 저으기 의아하여 명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도 그럴것이 명성은 학교를 졸업하고 도관개관리소 로동자로 배치된지 1년이 넘었어도 아버지에게 지금처럼 신중한 투로 말을 건네본적이 없었기때문이었다. 명성은 학교를 졸업하고 로동생활을 하고있으나 여전히 집안의 외아들이고 응석받이였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세수물까지 받쳐주었고 가마치를 몽그려주기도 했다.

아버지는 그런 광경을 띄여볼 때마다 못마땅해했다. 하지만 손자에게 극성스러운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농촌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제가 오래동안 생각하여 결심한것입니다.》

《?...》

《아버지, 아버진 잘 아시지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의 마지막순간까지 농장벌을 걸으시다가...》

명성은 말끝을 여물구지 못하였다. 목이 짹 메이고 가슴속에 고였던 눈물이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

아버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였다.

명성은 저으기 당황해났다. 자신을 여전히 철부지로 여기고 승인하지 않을것만 같아 서둘러 설명했다.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는듯한 어버이수령님의 서거에 대한 비보에 접한후 이십년 가까이 살아온 자신의 생을 돌이켜 투시해보았노라고 했다.

수령님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마련해주신 행복을 향유하는것을 응당한 권리모만 여겨온, 배려를 받을줄만 알고 보답할줄 모른 응석받이 철부지인생을 총화하고 새롭게 출발할 결심을 피력했다.

《용하구나. 아버지는 찬성이다. 한번도 집 떠나본적 없이 고이 자란 명성이가 해낼수 있을가 근심되기는 하지만... 만일 네가 견디어내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그땐 한생을 땅속에 티없는 량심을 묻으며 곡식을 가꿔오는 사람들에게 덧짐으로 될것이다. 명성아, 우리 수령님께서 온갖 로고를 바치시며 찾아주시고 가꾸어주신 땅, 농장벌임을 잊지 말아라.》

물기에 젖은 아버지의 음성은 떨렸다.

도관개관리소에서는 명성의 탄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천곡저수지 관리책임자로 배치하였다. 천곡저수지 책임자인 최재현아바이가 이미 60을 넘긴 나이여서 후임을 물색하던중이었던것이다.

명성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었다. 저수지일을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수는 없기때문이었다. 도관개관리소 일꾼들은 농장벌에 생명의 젖줄기를 대여주는 저수지일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매우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라고 설복하고 강조하였다. 아버지까지도 그들과 같은 의사여서 명성은 수락하였다.

저수지관리책임자 사업인계는 예상보다 오래동안 진행되었다. 재현은 언제와 수문에 대하여 경력서를 놓고 자상히 인계한 다음 저수지물이 흘러가는 백여리 논과 밭으로 명성을 이끌었다.

넓고넓은 수로의 구성과 그에 따르는 논밭면적이며 물소요량, 지어 계획물량을 다 받고도 투정질을 하는 어느 작업반장이며 물관리공에 대해서 까지 이야기했다.

명성은 물온도가 0.8도 내려가는 양사벌 샘골논의 수로옆에서 이렇게 물었다.

《아바이, 여기 수로는 물을 가두었다가 덥혀서 놓아줄수 있게 된것이 아닙니까?》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나?》

《특별한 수로의 모양과 깊이와 폭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응, 그런것도 학교에서 배우는구만.》

재현은 머리를 끄덕이며 명성을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그때까지 백여리 걸으면서 뺏어나간 수로와 가지쳐간 물길과 농사작황이외에 말이 없던 그의 얼굴이 저즈기 밝아졌다. 그때 아바이의 꾸밈없는 밝은 모습이 명성의 가슴을 헤집고들어지울수 없는 인상을 새기었다.

《여보게, 이사람 시장하겠는데 그만 내려오라구.》 하는 녀인의 목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올라와 명성의 상념을 깨트렸다.

60나이가 가까왔지만 자태가 바른 재현의 안해 현녀의 모습이 아스무레 내려다보였다. 제방쪽아래 산비탈의 안침진곳에 자리잡은 그들의 집부엌문은 열려있었다.

《예, 이제 내려갑니다.》

명성은 시장기를 누르며 저수지로 뺏어내려온 오솔길을 살펴보았다. 어둠에 녹아드는 오솔길우에는 피피한 정적만이 두텁게 깔려있을뿐이었다.

각일각 질어가는 어둠처럼 불안의 그림자가 심중에 덧쌓이기 시작하였다.

작년 가을에도 아바이는 산우에 나무를 심겠다고 올라갔다가 굴러내리는 돌에 다리가 상했었다.

명성은 초조하여 벌떡 일어섰다. 마중을 떠날 생각에서였다. 찬기운이 선뜩 이마에 끼쳐와 목을 움츠리었다. 4월초순이지만 날씨는 산산하였다.

명성은 눈을 밝히고 주위를 훑어보았다. 이때였다.

철썩이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명성은 소리를 따라 물우를 찬찬히 여겨보았다.

자그마한 매생이가 물가녘으로 미끄러져오고있었다. 미구에 매생이에 탄 사람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사람은 혈금씨금하며 매생이를 제방쪽에 대여놓고 그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모양이 눈

에 익었다.

《재현아바이가?!...》

재현은 무릎관절을 손으로 두드리다가 명성을 알아보고 입을 열었다.

《오늘 무릉산 석회암굴에 가보기 잘했지. 술한물을 잃어버릴뻔했네. 아이들이 고기잡이를 하느라고 개울물을 우정 석회암굴로 몰아넣지 않았겠나. 물길을 바로 해놓은 다음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양사업을 하느라고 늦었지. 저수지를 따라 돌아오다가는 너무 늦을것 같아 그 마을에서 매생이를 얻어탔네. 자네가 기다리게 해서 안됐군.》

《안되긴요워.》

명성은 은연중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꼈다.

비릿한 물냄새를 실은 강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몸이 싸늘히 식어들며 으시시 떨렸다.

《내 몰타산을 해보았는데 래일은 갈라진 저수지바닥을 메워야겠네.》

《아바이, 거기서 새나가는 물량은 매우 적은것이 아닙니까. 5만정미능력의 저수지에 고만한 물량이야 뭐.》

《아닐세. 가물철에 줄어드는 물량은 하루가 다르다네. 명성이, 논농사는 물논는 말이 있지않나.》

재현은 우들우들 떨며 제방쪽우에 올랐다.

그는 산락에 부리워놓은 찰흙더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제가 오후에 실어온것입니다.》

《그래... 오늘 퇴수구 주변을 손질하느라 조런치 않았을터인데...》

재현은 말없이 명성의 잔등을 두드리주었다. 투박한 손길에서 마쳐오는 뜨거운것이 명성의 가슴을 후덥히었다.

재현은 찰흙을 줌안에 몽그려 딱처럼 몽개여보다가 거기에 라이타불을 켜 비쳐보았다.

《이 흙이 대평굴 안막치기 찰흙이 옳나?》

재현은 끈끈하게 캐여물었다.

《예.》

명성은 건승 대답하며 아바이의 팔을 잡아끌었다.

《아바이, 시장하군요. 빨리 집으로 갑시다.》

《아참... 이 정신이... 옛네, 입에 넣게.》

그는 주머니속의 엿을 꺼내여 명성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들이 멀리로 일하러 갈 때면 현녀는 달여두었던 엿을 간식으로 주머니에 넣어주곤하였다.

잠시후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나란히 제방둑을 따라 걸었다.

달콤하게 기지개를 켜며 이불을 열어젖히던 명성은 옆자리를 보고 히죽이 웃었다.

재현이 굳잠이 들어 푸푸 입바람까지 불고있었다. 그가 동창이 환히 밝을녘까지 자리에 누워있다는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분명 어제 무리한 후과였다. 자신의 건강치 못한 몸도, 60이 지난 나이도 아랑곳않는 재현이 딱하기 그지없었다.

재현도 종종 나이란 어쩔수 없다고 서글프게 말하곤 하면서도 제몸 아낄줄 몰랐다.

명성은 현녀에게서 지난밤의 일을 대충 알수있었다.

《넘겨받을 자네가 어련히 잘할라구... 명감은 밤새 저수지에 올라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왔다네. 저수지에 혼맹이가 빠진 명감이 아니고 뭐가.》

명성은 감감 모르고 내쳐 잠을 잔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아침식사를 먼저 한 그는 일찌기 제방쪽으로 올랐다. 엷은 안개가 저수지 수면을 고요히 감돌면서 물결과 속삭이는듯했다. 해별이 신기루같이 피어오르는 안개속에 황금가루로 부서져 반짝반짝 빛을 뿌렸다. 어제 명성이 실어온 찰흙무지엮에는 다른 한더미가 또 무져있었다.

《?!》

《취수탐어방과 여우끓 틈새까지 흠다짐하자면 모자랄것 같아서 더 파왔네.》

어느새 명성을 뒤따라온 재현이 하는 말이였다. 그는 가지고온 비닐마대에 찰흙을 담기 시작했었다.

《아바이, 굳이 밤에 파울게 뭐니까. 그리고 이젠 제가 말아하겠으니 가르쳐만주십시오.》

《자넨 매생이를 준비하라구. 저 취수탐어방에 있는 째새는 크지 않다네.》

재현은 일을 서둘렀다. 그는 비닐마대를 닝큼 들어 어깨에 댔다. 한순간 그는 비칭거렸다. 제방쪽을 내려서는 그의 걸음걸이가 아찔아찔하여 명성은 가슴을 옥죄이며 지켜보았다. 재현은 한자 옥한자옥 안간힘을 쓰며 걸었다. 년로한 옥체가 의지를 따르기 어려워하는것이였다.

명성은 저도 모르게 후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걸음을 벗어 제방쪽에 개여놓고 물에 들어섰다. 다리가 섹둑하고 온몸에 소름이 내돋았다.

저수지물은 온몸을 잠그기에는 너무 차거웠다.

명성은 공처럼 물밖으로 튀어나고싶은것을 가카스로 참았다. 60나이가 지난 아바이가 물속에 몸을 잠그었는데 싫든좋든 견뎌버려야 했다.

이때 등뒤에서 석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고들 하누만.》

명성이 뒤돌아보니 후리후리한 키에 보위색 옷을 입은 군당책임비서 강영준이 다가오고있었다.

그의 기름한 얼굴에서 도수높은 안경이 해별에 번쩍 빛을 뿜었다.

명성과의 함께 물에 들어서는 군당책임비서를

알아본듯 재현이 손을 저으며 소리쳤다.

《들어서지 말게.》

책임비서는 히뭇이 웃으며 응대했다.

《래일 군당집행위원회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더 잘 지을 대책을 토의하게 되오. 그래서 물보유량과 확보전망을 직접 알고싶어서 떠난 길ियो. 어제는 운천과 양암저수지들을 돌아보았소.》

책임비서 강영준은 재현과 아래도리를 드러내고 뛰어다닌 시절의 동무였다고 한다. 그는 농사철이 되면 저수지에 찾아와 재현과 물문제를 토의하곤하였다.

꽃당산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희스희스한 재현의 머리칼을 장난치듯 흐트려놓았다.

그는 머리칼을 쓸어올리면서 물밑을 이윽히 들여다보았다.

황금빛 주단을 삽시에 퍼놓은듯 저수지 수면에 우에 금노을이 물멀기를 타고 일렁일렁 흘러왔다.

재현을 바라보는 영준의 얼굴빛이 금시 흐려졌었다.

《요즘 부상당한 상처자리가 덧굳히논게 아니요? 얼굴이 몹시 축갔구만. 물이 찬데 심장부담을 받지 않을까?》

그는 재현의 가무스럼한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해는 어느덧 하늘중천에 떠오르며 따뜻한 빛을 뿜었다. 초봄별은 멀리 보이는 제방쪽에도 연록색봄물이 줍처럼 흐르는 산야에도 아지랑이를 피워놓았다.

명성은 책임비서와 함께 찰흙마대를 담은 매생이를 밀고 재현의 뒤를 따랐다. 물속에서 벌어진 틈새를 찾는다는것은 헛치 않았다. 재현은 사랑의 발자취가 또렷한 오솔길을 걷는듯 물속을 짚어가며 물이 새는 틈새들을 찾아 흠다짐질을 하였다.

재현은 책임비서의 등을 밀며 재삼 권고하였다.

《어서 가서 일을 보오. 거의 다 뻘소. 책임비서 할 일이 얼마나 많소.》

《걱정마오.》

영준의 눈가에는 재현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심정이 가득 실렸다. 그는 재현의 파릿한 입술을 걱정스레 여겨보며 권고했다.

《재현동무, 이젠 이 명성동무한테 모든걸 맡기오.》

《음, 그래야지.》

재현은 선선히 응대했다. 재현은 다음찰나 《아!》 하는 비명소리를 내며 몸을 허우적거렸다. 움푹 패인 웅덩이를 헛짚은것이였다. 잠시후 머리를 솟군 그는 물에 함뿍 젖어 눈가를 가리운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허허 웃었다.

《이제는 다 되긴 다 됐구만. 책임비서동무의 권고대로 명성이네한테 일을 다 맡기는수밖에...》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진해가는 육체적로쇠를 한하는 소리였다. 잠시 숨을 돌린 재현은 다시 물을 헤가르며 전진했다.

《마저 해야지.》

그들은 재현을 따라 여우끓으로 향했다. 여우끓은 저수지중심에서 원권으로 치우친곳이었다.

명성은 바위틈에 끼인듯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하기가 가빠남을 느꼈다. 젊디젊은 내가 이룬데 60나이를 넘어선 재현아바이와 책임비서동지는 얼마나 참기 어려울것인가. 허나 그들은 끄떡없이 일손만 놀린다. 의지로 육체적한계를 초월할 줄 아는 그네들에게 머리가 숙어졌다. 명성은 재현의 가까이로 다가섰다.

재현은 숨을 길게 그으며 침착하게 물속을 주시하였다. 출렁이는 물속에서 셀수없이 구슬같은 물방울들이 솟구쳐오르고 알릴듯말듯한 실주름들이 눈앞에서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고있었다. 눈뻘혀 들여다보느라면 투명한 물속에서 틈새가 짙 벌어진 바닥이 들여다보였다. 버그러진 틈새로 쿨룩쿨룩 물이 새어버리는것이 눈에 띄게 알리었다.

매생이에서 찰흙이 담긴 마대를 들어내려 틈새를 꼭꼭 막는 재현의 파릿하게 질린 얼굴은 범접하기 어렵게 엄엄해보였다. 때로 그는 물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갔다. 그러면 영준도 물속으로 들어갔다.

얼마후 물이 갈라지며 영준의 머리가 먼저 솟구치고 동안있어 재현이 솟아오를 때였다. 명성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퍼렇게 얼어 우들우들 떠는 그들, 책임비서보다도 재현아바이가 더 지친듯했다. 재현의 이마에 붙어있는 흰머리칼이 명성의 눈썹리를 아프게 찔렸다.

《명성이, 매생이에 아바이를 태우오, 빨리.》

《괜찮소.》

재현은 매생이 가락을 잡고 사정하듯 말하였다.

《하던 일을 마저 해야지. 우리가 언제 하던 일을 도중에 그만둔적이 있었소. 책임비서동무.》

재현의 그 말은 낮으나 의미심장하게 울렸다.

재현은 말을 이었다.

《이 일이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드는 일이지 았나. 자, 이제 명성이가 주동이 돼서 해보라구.》

재현의 그 소리는 명성의 가슴을 쿵! 울려주었다.

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항시 잊지 않고 그 관철예로 삶의 순간순간을 이어가는 아바이!

《예, 제가 다 하겠습니다.》

명성은 재현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재현이

가리키는대로 물속에 흠다짐을 하였다.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귀울이가 일었으나 참고 이겼다.

재현은 명성이 매질한 틈새를 눌러보기도 하고 발로 다져보기도 하며 머리를 끄덕였다.

얼마후 재현은 명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가자고 신호했다.

《됐소, 이만하면 저수지가 견디어낼거요.》

해는 어느덧 하늘중천에 걸려앉았다.

물밖에 나온 그들은 너무도 추워서 사시나무 떨듯했다.

재현은 눈을 찌긔하고 해를 올려다보더니 시간을 가늠해보았다.

《이젠 한시가 거의 되었겠다.》

이발이 맞조아져서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온몸과 팔다리가 와들와들 떨렸다.

재현은 오금이 저려와 무릎을 꺾으며 잔디밭에 주저앉았다.

영준은 쿨룩거리며 기침을 하였다. 그는 터져 오르는 기침때문에 제방쪽에 올라서지 못하고 입을 싸쥐었다. 60이 지난 이들의 나이란 어쩔수 없는것이였다.

명성은 오늘아침에 최재현이 이 일을 벌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서지 못한 자책이 컸다. 한편 저수지의 새 주인을 믿지 못하는 아바이의 일이 섭섭하기 그지없었다.

《신발은 어떻게 했소?》

영준이 재현에게 물었다.

《저수지 룡왕에게 진상하였소. 우리의 귀한 물을 농사철까지 고이 보관해달라고 말이지.》

재현은 허허 웃었다.

《그럼 맨발로 다녔단 말이지?》

영준은 혀를 차며 수건으로 상처난 재현의 발을 감아주었다.

《유명한 고집쟁일 어쩔수 없구만.》

재현은 껄껄 웃으며 영준의 어깨에 의지하고 푹을 내려섰다.

《아유, 모두 물참봉이 됐구만요.》

기다리기에 지쳤던 현너는 반색을 하며 그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이었다. 천성적으로 우물쭈물하는것을 싫어하는 그는 명성의 젖은 머리칼을 추켜올려주고 머리수건을 벗어 얼굴을 닦아주었다. 노랑게 대우를 낸 장판바닥에 떨어진 물이 수은방울처럼 굴러다녔다.

현너는 그들을 끌어다 아래목에 앉히고 몸에 걸치라고 손에 잡히는대로 옷가지를 꺼내주었다.

영준은 현너가 내준 밤색세타를 걸치고 단추를 채우려고 앞섶을 뒤적였다. 세타는 단추방향이 반대인 너자용이였다. 그는 명성과 눈을 맞추고 히죽이 웃었다.

《아유-》

현너는 그것을 띄여보고 기겁하여 재현의 겨울

숨옷을 벗기려 들었다.

《뭐라나.》

영준은 무릅없이 세타를 걸치고 부엌으로 내려가 아궁이를 들여다보았다.

《불이 잘 드누만.》

그는 밖에 나가 울바자도 흔들어보고 집주위를 돌았다. 그는 돼지우리를 들여다보며 피동피동살이 진 돼지등매기를 장대기로 슬슬 굽어주었다.

돼지는 뒤채기며 배를 돌려댔다.

《배를 굽어달란 말이지, 시원하지-》

돼지는 알아듣기라도 하듯 꿀꿀거렸다.

그는 버질을 고깔모양으로 맵시있게 틀어 처마 아래에 달아놓은 알냥이 닭둥지도 구름뭉치같이 희고 보드라운 토끼들이 귀를 쫑긋거리는 토끼장도 유심히 보았다.

《동무네들이 용하오. 짐승들도 잘 키우고... 언제 와봐도 생각되는바가 크오.》

영준의 얼굴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현녀가 대꾸했다.

《현녀동무, 그런즉 오늘은 한상 크게 차리오. 수십년전에 혼사를 도와준 값까지 더해서 말이요.》

《책임비서동지두... 한뼉 뚝쟁이 령감님 치닥거리하면서 이 골안에 불박혀 세상밖을 못나가보고 살아오는데 값이라니요.》

《그럼 뺨이라도 치오.》

영준은 참말로 수염터가 거뿔한 뺨을 부엌문앞에 들이댔다.

그들은 집이 들썩하게 웃었다. 항시 고즈넉하던 집안이 전에없는 활기를 띠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명성은 잠에서 깨어나 이불을 열어젖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던 그는 머리맡에 펼쳐진채로 있는 걸가위에 갈색을 먹인 묵중한 사진첩을 끄당겼다.

명성은 떠오르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며 번지기를 시작했다.

첫장에는 재현의 부모들이라고 보아지는 사진들과 형제들인듯싶은 남녀사진들이 붙어있었다. 그는 누렇게 퇴색된 한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재현이 까까머리 어린시절 동구밖 느티나무아래에서 동무들과 어깨를 거루고 서있었다.

그속에는 책임비서의 얼굴도 있었다. 제비초리같은 가랑머리태를 드리우고 새무죽이 서있는 현녀의 모습은 저르기 웃음을 자아냈다.

사진첩 갈피속에는 인민군대에 입대하던 날인듯 신입병사의 군복을 입고 렌즈앞에 선 책임비서의 가름한 얼굴과 안전원정복을 입은 재현의 모습도 들어있었다. 청춘시절의 첫 출발선에 나선 그들의 모습은 명성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일

으켰다.

젊음이 넘쳐나던 그들의 모습에도 세월은 흔적을 새겨놓았다.

재현은 수수한 양복차림으로 제방둑우에 서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의 귀밑머리는 희숙희숙했다. 금시라도 날아오를듯 탄력이 넘치던 그의 얼굴에 굵은 주름살이 건너갔다.

군당책임비서와 저수지관리원... 인생의 출발선에 함께 나섰던 그들의 인생말년은 격차가 너무나 현격했다. 리재현의 인생길은 왜 발전으로 치달지 못하였는가? 그러면서도 두사람사이가 그토록 자별한것은 그 어떤 인연에서인가? 때로는 군당책임비서쪽에서 최재현의 조언을 기다리기도 하지 않는가.

뒤뜰안 돼지우리에서 어미돼지의 먹따는듯한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돼지는 우리를 들부실듯 날뛰었다.

《덤비지 말고 천천히들 먹어라.》

먹성좋은 어미돼지에게 이르는 현녀의 목소리였다.

명성은 처음 여기 왔을 때 짐승우리를 들여다보며 말을 하는 현녀를 띄어보며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후에야 무심히 웃어넘길수 없는 사연을 자초지종 알게 되면서 현녀를 측은하게 생각하였다. 종일토록 사람그림자하나 볼수 없는 때가 드문한 저수지의 환경은 그에게 집짐승과 말을 주고받는 버릇을 불어주었다고 하였다.

40여년-명성이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의 기간보다 20여년이나 더 긴 나날이었다. 한적한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농사철이 되면 농아주고 또 채우고...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산에 재현이 심은 나무만도 몇천그루인지 모른다고 한다. 40여년 품들여키운 그 나무들은 무성한 숲을 이루어 저수지를 지키는 말없는 초병이 되었다.

류레없이 달려든 폭우는 런 닳새째 쏟아졌다. 수십년만에 처음 보는 폭우였다. 고운 단풍색을 골라가며 몸단장을 시작하던 산과 들은 때아닌 자연의 횡포에 비명을 질렀다.

명성은 헐떡거리며 벼랑턱에 올라섰다. 기다리고있었던듯 비바람은 비웃고갈을 잡아제치고 머리며 잔등을 채찍으로 갈기듯 두드려댔다. 아래를 내려다보던 명성은 가슴이 섬적하여 벼랑턱을 붙잡았다. 금시 발밑이 꺼지며 몸은 허공 날리워 룡트림하듯 날뛰는 저수지물속에 태질당할것만 같았다.

명성은 창황중에도 저수지의 물높이를 가늠해보았다. 물은 기슭을 날름날름 핏으며 불어오르고있었다. 잠간사이에 수문가까이에 세워놓은 물량표식판의 위험수위선에 닿을수 있었다.

그들은 장마가 든 날부터 한시간 간격으로 물

높이를 재고있었다. (저수지관리규정에 홍수때에는 한시간간격으로 물높이를 재게 되어있다.) 물은 지금과 같이 강수량이 많을 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장마에 대처하여 상급기관에서는 《군풍수해방지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거기서는 기상수문국의 통보와 지역별 강수량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저수지 물량을 조절할데 대한 긴급지시를 떨어뜨렸다.

한데 재현은 《군풍수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령대로만 하지 않았다. 수십권되는 관리일지를 다시 뒤져보고는 하늘을 살펴봄에 자기 요량대로 수문조절을 하였다. 그는 열정미 뿜으라는 전화지시가 오면 관리일지에 적어놓고 여섯정미만 뽑고는 수문을 닫았다. 그는 자주 수문조절을 하면서 고생을 사서했다. 그는 구름장들이 남쪽으로 밀려나가면 비는 며칠이내에 멎는다면서 놓아주면 다시 모을수 없는것이 물이라고 하였다. 자연이 하는 일을 그가 어떻게 다 알며 앞으로 무슨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안단말인가. 하기에 예로부터 오랜 가물엔 살아도 석달장마에는 못산다는 말도 있다지 않는가.

명성은 참다못해 어제저녁은 불만을 터뜨렸다. 《아바이, 야 답답하구만요. 군대에서와 같이 지휘관들의 명령엔 무조건 복종해야 하지 않겠나요. 우에서는 과학적관측자료에 기초하여 지령을 떨어주는것이요...》

《거야 그렇지. 허나 수백리 떨어진 도소재지에 앉아있는 지휘관이 이 천곡저수지 상태를 우리보다 더 잘 알게 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하며 밤새도록 수문을 지켜서 있는것이였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오후부터 왜서인지 정전이 되어 임의의 시간에 자동화된 수문을 열수 없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수동식돌리개를 인력으로 돌려야 했다.

시급히 물을 뽑지 못하면 제방쪽을 위협에 처하게 할수 있었다. 제방쪽아래엔 총알처럼 영글은 수백정보의 논밭과 마을이 있었다. 안전한 대책을 결정적으로 강구해야 했다.

명성의 마음은 조급해났다. 당장 저수지쪽이 터져나가는듯한 환각이 눈앞에 떠올랐다.

명성은 벼랑바위에 가슴을 짓찧으며 물이 흐르는 바위뿌다귀를 밟고 내리기 시작했다. 등골로 땀줄기가 흘러내리고 목안에서 단내가 풍겼다.

《덤비지 말고 천천히-》

벼랑아래서 들려오는 재현의 목소리는 들쭉던 가슴을 서서히 가라앉혔다.

명성은 땅에 발을 붙이자 사태의 절박감이 목을 조이는듯하여 숨돌릴 사이도 없이 말했다.

《아바이, 무릉산 사태에 전주가 넘어졌습디다.》

재현은 명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굳어진듯 서있었다. 아바이의 수척한 얼굴이 눈썹리를 찢렸다. 희끗희끗한 그의 머리칼은 거의 반백이 되었다. 폭우속에서 재가 앉은듯 입술은 허영게 버개가 일었다.

한번 또 한번... 오십번 백번... 돌리고 또 돌리고... 명성은 지금 재현과 수동식돌리개를 돌려 물을 뽑고있었다. 팔은 감각을 잃은듯했고 다리는

뻣뻣해졌다. 명성과 재현은 며칠째 긴긴밤을 이렇게 새워왔다.

돌리개의 나사가 한결 헐그러워지는듯하더니 거대한 폭포수가 떨어지듯 막혔던 물이 터져나가기 시작하였다. 막혔던 가슴도 열리는듯 숨이 나갔다.

명성은 비를 맞으면서도 눈두덩이 무거워 눈을 내리깔았다. 그는 끄덕끄덕 앉은방아를 찢기 시작하였다.

따스한 아래목... 할머니는 잠결에 발치에 밀어내친 이불을다시 덮어준다...

명성은 자며 깨어나며 꿈속을 헤매이다가 제풀에 놀라 눈을 떴다.

번쩍! 하는 번개불빛에 수문우에 선 재현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지금 안간힘을 써가며 다시 수문을 막고있었다. 지친 그의 가쁜 숨소리가 들리는듯했다.

(야 왜 저렇게 고집이 셀가. 사서 고생을 하는것도 정도가 있지...)

명성은 안타까왔다. 눈등을 비비며 볼부는 소리를 냈다.

《아바이, 그건 왜 또 답습니까. 잠간사이에 물이 차오르는데 그냥 뒤두십시오.》

《아니 이렇게 많이씩 봐주면 다 익은 곡식들이 떠내려갈수 있어 그래.》

재현은 수문을 얼마간 내리고는 더이상 지탱할 기력이 없는듯 몇발자국 물러나 비물에 주저앉아버렸다.

재현에게 불만의 말을 터놓으려던 명성은 그의 정상이 너무도 측은하여 입을 다물고말았다. 문득 이번 장마가 시작되던 날 밤에 재현이와 나눈 대화가 되새겨졌다.

그때 명성은 이렇게 물었다.

《아바이 안전원을 하다가 왜 저수지관리원이 되였습니까?》

《왜 저수지관리원이 되였는가구?...》

재현은 흘러간 세월을 감회깊이 추억하는듯 생각에 잠겼다. 빼금빼금 태우는 담배불빛에 언뜻 드러난 아바이의 눈길은 멀리를 더듬고있었다.

《53년 여름이었네. 그때 모내기를 끝낸 논에서 벼포기가 한창 아지를 치고있었네. 반동놈들은 저수지아래에 새로 일떠선 마을들과 논들을 없애

버리려고 제방쪽을 터치려 했네. 그때 우린 셋이였네.

명성이보다도 나이가 어렸던 우리는 언제를 폭파하려는 놈들의 기도를 저지시키려고 결사적으로 싸웠지. 한동무는 온몸의 피가 다 흘러내리면서도 시한탄을 해제했고 또 한동무는 피를 물고 달려드는 놈들을 쳐갈기다가 숨이 켜다네. 나도 가슴에 적탄을 받았지만 저수지를 지켜내야겠다는 강심때문이었던지 사람들이 달려올 때까지 지탱해낼수 있었소. 그후 나는 치료를 받았지만 총을 계속 잡을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네. 무엇인가 새로운 직무를 선택해야 했을 때 나는 전우들의 피로 젖은 여기 저수지를 한생토록 지켜가야 하겠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지. 아 그때가 어제같은데 해놓은 일 별로 없이 어느새 40여년이 흘러갔군...》

명성은 성기여진 비발속에 몸을 맡기고 어둠속에 묵묵히 솟아있는 아득한 산발들과 소용돌이치는 저수지를 생각깊이 바라보았다.

재현아바이는 40여년을 지금처럼 살아왔단말인가. 한방울의 물이라도 류실될세라 랭기서린 물속을 자맥질하고 긴긴 장마의 밤들을 수문에서 지새고... 저런 아바이를 두고 내가 감히 그 어떤 불만을 표시할수 있단말인가. 감히...

명성은 저도 모르는새 자기 반성의 세계속에 빠져들었다. 비바람 휘몰아치는 날씨건만 추운감이 전혀 없어 곁에 걸친 비옷을 만져보니 재현의 고무비옷이 덧쳐워져있었다.

《아바이가!...》

명성은 비옷을 벗어들며 아바이에게로 다가갔다. 그때 재현은 손전지를 켜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성이, 내 잠깐 수로를 살펴보고 오겠네.》

《이 비옷을 쓰고...》

《됐네, 이미 다 젖었으니 오히려 거치장스럼네.》

재현이 켜든 전지불빛은 수로를 따라 멀어져갔다. 불빛은 작아지더니 어둠속에 묻혀 점차 희미해간다.

재현은 수로를 잔잔히 살펴보며 걸어가고있었다.

비발은 한결 성기였지만 폭우에 일을 빼운듯 숲은 우우 비명을 질렀고 산꼭짜 물소리는 요란스러웠다. 전지불빛은 수로를 스치며 배미가 터질듯 들어찬 벼바다를 따듯이 쓰다듬어주고있다.

그 따뜻한 빗발을 바라보는 명성의 생각은 깊어갔다.

폭우를 꺾듯이 이겨낸 벼포기들이 장해보인다.

푸름푸름 동터오는 새벽빛속에 구수한 낱알향이 감촉되는것만 같다.

아, 레년에 드문 홍수를 이겨낸 저 풍년작황을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아주신다면...

문득 가슴가득 차오르는 그리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두볼을 적시었다.

태양과도 같이 환하게 웃으시며 농장벌을 바라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새벽빛속에 우뚝이 떠올랐다.

아 꿈결에도 뵈고싶은 어버이수령님! 수령님의 유혼을 받들어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보다 이 벌을 더 잘 가꾸고싶은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이 벌이 꺼지도록 만풍년을 가꾸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보여드리는것으로 수령님의 유혼을 지켜갈 한마음입니다.

벌을 누벼가는 재현의 가슴도 푸르른 대지를 한눈에 담아보는 명성의 가슴도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저 멀리 산봉우리 한끝에 희끄무레한 빛이 피어오르더니 성급하고 재빠른 새벽빛이 되어 골짜기에 서린 침침한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아바이의 권고에 등을 밀리워 집으로 내려갔던 명성은 서둘러 제방쪽으로 올라오며 말했다.

《아바이, 빨리 내려가 식사하십시오.》

재현은 제방쪽 한끝에 허리를 구부리고 떠내려가는 나무개비며 검부라기들을 건져내고있었다. 입에 물린 묘한 고불통에서는 가락지같은 담배연기가 안도의 숨결처럼 물우로 날아내리고있었다.

그는 명성이 곁에 다가선것도 감감 모르고 세차게 쏟아지는 물우를 살피고있었다.

《아바인 참...》

명성은 아바이의 곁에 놓인 검부레기며 나무개비무지를 내려다보며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아바이!》

그러자 재현은 느슨한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겹쌓인 피로의 자취는 력연한데 만시름을 놓은 재현의 환히 웃는 모습은 저수지를 배경으로 류달리 눈길을 끌었다.

《이 저저개비들이 논으로 떠밀리어 들어가면 벼가 상할수 있다네.》

재현은 저수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하늘이 파랗게 열리면서 눈부신 해별이 쏟아져 내렸다. 저수지를 둘러싸고있던 침침한 산발이 생기를 띠고 신비롭게 채색되어 반짝이기 시작하였다.

수백리 넓은 들을 살찌우고 자래우는 웅심깊은 저수지의 물결우에 해빛은 가득가득 줄을 늘이였다.

저수지를 바라보는 재현의 눈길은 그윽하였다.

내 사는 집

최영화

달이 밝아
보름달이 하도 밝아
이끼리듯 창가에 다가서서
유난히도 밝은 달 바라보느라니
내 소년시절의 슬픈 추억 비낀
못잇을 그 둥근 달
이밤 류달리 눈앞에 어려와
무엇인가 말하고싶은 마음

달아 보름달아
이밤 네 가는 길 좀 멈춰다오
내 어릴적 집없던 눈물의 이야기와
오늘에 내가 사는 집을 두고
너와 함께
마음속 말을 나누고싶노라

1

내 사는 집은
사시절 푸른 소나무 설레이는곳
만경봉에 잇닿은 산밭이 굽이쳐내리다
마치 푸른 파도가
불쑥 물머리를 높이 추켜들고 서있는듯한
나지막한 솔산기슭에 있다

넓은 정원에는
봄 여름 가을 따라
초록빛 푸른빛 금빛 잔디가
주단처럼 깔리고
진달래 나리 장미 접중화 백일홍 국화...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벌 나비 날아들고
눈내리는 겨울날이면
정원가 소나무들이
흰눈꽃을 피워 설경을 돋구는
공원속의 별장같은 집

이른아침 창문을 열면
무성한 소나무숲이
밤새 한껏 뿔어낸 푸른 공기가
청신하게 흘러들고
초저녁 넓은 베란다에 나서면
하늘의 못별들이 모두 내려와
20층 30층 고층건물 창문마다
보석처럼 박혀 빛을 뿜는듯
불야성의 광복거리가
한눈에 황홀히 안겨오는

내가 사는 집

은혜로운 사랑이 함뿔 배여있고
방마다 행복이 가득 깃들어있는
아래웃층의 다섯칸 2층집
이런 호화로운 집에 내가 사는것이
때로는 꿈만 같아
뜨거운 물기로 눈굽을 적시나니

새날이 밝으면
일터로 학교로 유치원으로
크고작은 발들이
활기에 넘쳐 집문을 나서고
해가 저물면
하루일의 보람과 배움의 즐거움을 안고
또다시 크고작은 발들이
기쁨에 넘쳐 집문을 들어서고
그러면 아래웃층에
밤늦도록 웃음과 노래 가득한 집

아, 내 사는 집이여
아버이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베풀어주신 행복의 보금자리여
그이의 사랑이 하도 뜨거워
그이의 믿음이 하도 고마워
내 눈시울을 더웁히며 부르노니

달아 보름달아
내가 살고
우리 식구가 사는 집
하여 그 이름을 사랑이라 지어
이 집을 《사랑의 집》이라 부르노니
이 사랑의 집은
한없이 은혜롭고 따뜻한
한없이 자애롭고 포근한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여라
장군님의 그 품은 우리 집이여라

2

달밝은 이밤
밤은 깊어
나의 사랑의 집
행복의 요람에서
꿈을 꾸듯 단잠에 든 어린 두 손자
달빛비낀 귀여운 얼굴을 바라보느라니
불현듯 저같은 어린 나이에

가없이 간 두 동생의 얼굴 떠올라
아득히 흘러간 내 소년시절 추억
가슴을 허비며 거슬러올라라

하늘땅에 원한이 사무쳤던
망국의 그 세월
일제에게 짓밟힌 고국땅을 떠나
두만강 푸른 물에 류량의 피눈물 뿌리며
오랑캐령 굽이굽이 끝모를 한숨을 늘이며
부모들이 살곳 찾아
정처없이 걷던 발걸음 멈춘곳
낮도 설고 물도 설은 북간도 룡정땅에서

이역살이 세월이 흐르던 어느해
아버지도 집에 없는 여름날
그 인정 설은 땅에서
품팔이 고된 로동에 시달리시며
고생만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관도 없어 덮으시던 홀이불에 싸은채
가랑비 내리는 어느 산기슭에 쓸쓸히 묻어드리고
불도 없는 캄캄한 그밤
어머니 누우셨던 그자리에 엎드려
불러불러도 대답없는 엄마를
목놓아 부르고 부르며
피눈물의 통곡으로 지새운
나와 어린 두 동생

집을 떠나 먼 산판에서
두해째 벌목로동으로 피땀을 파시는
그리운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던 어느 가을날
세집에서 쫓겨나
어린 두 동생을 거느리고
찬서리 맞은 가랑잎 길가에 구울듯
집없는 설음 안고 세방을 얻으려
남의 집 처마밑 찾아 불을 적시던
그 피눈물의 추억...
내 칠십이 다 된 오늘에도
가슴속에 웅이져 박혀있는
그 참혹했던 날의 추억이
너무도 심장을 아프게 후비거니

내 그 세월에
집세를 못물어 쫓겨나기 그 몇번
그럴 밤이면
눈물로 밤을 적시던 나
오늘은 이 호화로운 집에서
내 소년시절의 피맺힌 추억을
달아 이밤
네속의 계수나무와 함께 더듬고싶노라
비록 못견디게 쓰리고 아픈 추억이여도...

... 그밤도 밝은 달밤이었다
이밤과 같은

하지만 락엽이 우수수 날리는
늦가을 밤이여서
달도 차게만 보이는 밤이었다

동생들 입에 거미줄 씹지 않게 하려고
한지에 나앉지 않게 집세를 벌려고
내 소년고학생의 몸이 되어
새벽이면 물지게 장사길에 지는 그름달을
저녁이면 신문 배달길에 뜨는 초생달을
보내고 맞기 그 얼마였으랴만

세방 한칸
그것도 겨울이면
벽에 하얀 성애가 두텁게 끼여
칼로 긁어내며 추위에 떨어야만 하는
랭동고같은 그 세방에서마저
끝내 내쫓기인 서러운 밤
무정한 세상을 원망하며 바라본
아, 그밤의 달은 너무도 처량하였다

행여나 이집저집 문을 두드리다
그만 그마저 지쳐
늪집 처마밑 널마루우에서
늦가을 찬이슬을 맞으며 지새운 그밤
끓주린 창자 움켜쥐고 웅크린채
내 무릎우에 잠든 불쌍한 두 동생을
눈물젖은 가슴에 품어안고
볼로 줄줄이 흘러내리는 눈물
마른 입술로 감쌀때
살길이 캄캄하여 쳐다본
아, 그밤의 달은 너무도 슬펐다

오막살이 단칸방 하나 없어
우리 삼형제 그 작은 몸들이 누울
몇평방의 방 하나 없어
남의 집 문전에서 거지의 모습으로
찬 밤바람에 으스스 떨어야만 하던
인정없는 그 세상
피서린 원한을 토하며
서러워서도 울고
분해서도 울고
하지만 내 작은 몸에
눈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으랴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도 멎고...

그래도 유정하여
이 슬픈 밤에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삼형제의 가없는 몸을
빛으로나마 정깊게 감싸준것은
고마운 둥근 달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달을 좋아한다
이밤도 그 둥근 달을 잊지 못한다

말 못하는 달을 벗삼아
 말없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그 언젠가 어머니 구슬피 불러주시던
 달속의 계수나무노래...
 내 잠든 동생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마나 슬피슬피
 어머니처럼 그 노래 불렀던가
 그 노래 부르며 소원했던가

달속의 계수나무
 금도끼로 찍어내고
 옥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지어놓고
 세집아닌 세집에서
 아버지와 나 두 동생
 한가정이 따뜻하게
 오래오래 살아보았으면...

그러나 소년 그 시절에
 내 어찌 알았으랴
 나의 천진한 계수나무꿈이
 가슴속에 꽃망울처럼 부른다 해도
 빛을 주고 열을 주는
 삶의 태양이 없는 암흑속에서는
 꽃을 피울수 없다는것을
 내 어찌 알았으랴
 인민의 태양이 없는 착취세상에서는
 무산자의 그 어떤 소망도
 결코 이룩될수 없다는것을...

내 지금도 이밤처럼
 달이 밝은 밤이면 때로
 쓸쓸했던 복간도망
 그 잊지 못할 늦가을 슬픈 밤에
 찬이슬 내리는 녹녹한 마루에서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 둥근 달이 떠오르고
 구슬피 부르던 그 노래가 마음에 젖어들고
 설음도 눈물도 많던 세상에서
 집이 없어 집이 부러워
 초가삼간 꿈꾸던 그 계수나무
 가슴저리게 추억되나니

이밤도 그밤과 같이
 하늘에는 둥근 달이 밝다
 그밤엔 세방에서 쫓겨난 슬픔을
 달아 너와 함께 나누던 나
 이밤엔 이처럼 좋은 집에서
 우리 장군님 은덕으로 누리는 기쁨을
 달아, 너와 함께 말하고있는 나

달도 같은 그 달
 사람도 같은 그 사람

하지만 어찌하여
 같은 달 너를 바라보는
 같은 사람 나의 심경은
 어제와 오늘이
 이리도 다른것인가

세월의 흐름때문인가
 아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살지 못할 사회제도와
 오늘날의 살기 좋은 사회제도가
 나의 마음에 안겨준 슬픔과 기쁨에서
 비롯된것이거니
 그래서 너를 바라보는
 나의 심경도
 서로 다르게만 비쳐진것이거니

아, 얼마나 좋으랴
 나의 두 동생도 오늘에 살아
 나의 두 손자처럼 이런 행복 누린다면
 허나 그 두 동생도 산설은 그 땅에 묻히고
 지금은 가실수 없는 아픔으로만 남아있나니
 동생들에 대한 추억은 슬프고
 손자들에 대한 생각은 기쁘고
 지난날의 불행했던 두 동생
 오늘날의 행복한 두 손자
 바로 이것은
 우리 집의 어제이고 오늘이여라

달이여 보름달이여
 내 이밤 이렇게
 사랑의 집 밝은 창가에서
 지금은 멀리멀리 흘러간 뼈아픈 추억을
 굳이 기슬러올라 더듬음은

내 그 세월에
 나의 운명을 안아줄
 태양의 품이 없어
 남의 땅에까지 흘러간 몸으로
 그 얼음장같은 하늘아래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겪은 생활고를 두고

오늘은 내
 나의 운명 꽃피워주는
 수령의 은혜로운 품이 있어
 내 땅 푸른 하늘아래에서
 삶의 행복을 누리는 이 락을 두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내 인생을 살아오며
 말로가 아니라 생활로 터득한 철리
 수령이 없는 인민의 삶은 암흑이고
 수령을 모신 인민의 삶은 광명이라는
 그래서 인민에겐 수령이 계셔야만 한다는

이 절대의 진리를
달이여 말하고싶어서이노라

3

내가 사는 집이 기둥박은 땅
나는 광복거리 축전2동에 산다
얼마나 성스러운 땅인가
만경봉의 줄기가 달아있고
만경대고향집 푸른 하늘에
고층건물들이 키를 솟구며 일떠서
하나의 거창한 조각품처럼
한껏 예술미를 풍기는 거리

이 유서깊은 땅에는
수령님의 거룩하신 자욱들이 스며있는
그날의 창덕학교가 있고
눈덮인 광복의 천리길 그 흙길이 놓여있고
지금도 가슴뜨거운 그 갈림길 뻗어있거니

아버이수령님께서
구원해주신 인민이기에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인민이기에
하늘같이 여기시는 인민이기에
아, 우리 **김정일** 장군님
이 인민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더 좋은것만 주고싶으시여

땅도 수령님 탄생하신 만경대땅에
거리도 세상 으뜸가는 거리를
집도 가장 살기 좋은 집을
경치도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모든것을 좋은것으로만 일떠세우시려고
잇고이으신 사색인들
보시고보신 거리와 건축물의 형성도안인들
그 얼마이시였으랴
견고걸으신 진흙길의 걸음인들
또 얼마이시였으랴

우리 장군님
인민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시려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어리실 때 어머님과 함께
만경봉에 오르시여

멀리 평양하늘을 바라보시며
저기에 로동자들의 고층살림집들을
하늘높이 일떠세우시겠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린 그 숭고한 뜻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세우신 고층건물들의 숲
인민들 세세년년 복을 누리며
광복의 천리길에
못잊을 갈림길에
수령님 깊이 내려주신 삶의 뿌리를
언제나 마음에 싣고 살게 하시려
그 이름도 광복으로 달아주신
세상 제일의 광복거리여
위대한 사랑의 거리여

너는 정녕
장군님의 인민 위한 사색에서 움트고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태어난
수령님 위업찬가의 거리여라
인간사랑의 거리여라
《이민위천》의 거리여라
인민 위한 복무의 거리여라

거니는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아도
아득히 곧추 뻗은 대광복의 길과
소소리 치솟은 고층건물들을 보아도
길가의 한그루 가로수, 한떨기 꽃을 보아도
그 위대한 사랑이 뜨겁게 안겨오는 거리
아, 인민에게 베푸시고 베푸시는
아버이장군님의 무한의 은정이
한바다처럼 출렁이고 출렁이는 광복거리여!

이밤
거리를 잠재우는 달빛과
밤의 고요조차
무심히 느낄수 없는
이 영광의 땅에
이 사랑의 거리에
내가 사는 집이 있다는것은
얼마나 가슴뿌듯한것인가

쉬이 잠들수 없노라
이 행복을 안겨주신
장군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난날 무산자를 확대하던
그 유산자도 입을 벌려 부러워할
이 2층살림집에서
내 누리는 삶의 기쁨을 생각하면
달이여 내 이밤
쉬이 잠들수 없노라

나는 두 제도를 살아온 사람
사람이 천대받던 그날에는
나에게 절벽과 갈던 집
사람이 존대받는 오늘에는
나에게 사랑과 같은 집

나는 집을 놓고서도
행복과 불행을
인간사랑과 인간증오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뼈로 살로 뉘으로 사무치게 체험한 사람

집은
기둥이 있고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있고
눈비를 가려주는 지붕이 있어서만
집이 아니다
집은
마음의 기둥이 있고
온갖 고통과 불행을 가져주고
온갖 삶의 기쁨과 행복을 꽃피워주는
은혜로운 어버이품이 있어야만
비로소 참다운 인간생활의 보금자리로 되나니

허기에 내 이밤
마음의 기둥이시고
은혜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안고
내가 사는 이 사랑의 집을
달이여 너와 함께 이처럼
뜨거이 뜨거이 이야기하는것 아니냐

하늘처럼 끝없고
태양처럼 뜨거운
우리 장군님의 사랑은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모든 집들에 파사로이 흘러들어
내 사는 집만이 아닌
온 나라가 하나의 사랑의 집

어떤 광풍도 스며들수 없고
어떤 제국주의도 허물수 없는
이 주체의 사회주의 큰 집을
이 땅위에 일떠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앞에
인민들은 한평생 드러도 다 드리지 못할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 드리나니

주체의 사회주의집에서 사는
우리 인민에겐
공산주의가 멀리에 있지 않다
모든 착취와 압박
모든 세금에서까지 해방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사는
바로 이 조선땅에서는

공산주의가 벌써 푸르게 움트고있다

지난날 나를 그리도 울렸던
집세의 독촉장이 아니라
무료의 입사증을 받고 사는
나의 사랑의 집에도
공산주의는 벌써 깃을 펴고있고

온 나라 인민에게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는
우리 당의 은혜로운 시책속에서도
공산주의는 벌써 세차게 맥박치고있고

한 나라가 하나의 집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인민이
어버이이신 수령의 사상으로만 숨쉬는
그 열풍같은 숨결속에서도
공산주의는 벌써 찬란한 아침노을속에
이글이글 밝아오고있거니

그렇다
우리의 공산주의는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하신 손길따라
마치 아침바다를
부글부글 끓이며 치솟아오르는
저 장쾌한 해돋이와도 같이
누리에 그 빛살을 뿌리고있도다

달이여 너 보름달이여
이것이 이밤
너에게 들려주고싶던
내가 사는 사랑의 집
주체의 공산주의태양이 빛나 빛나는
내 나라- 인민의 집
내 나라- 사회주의집에 대한
나의 시이다
나의 노래이다

×

달은 말한다
나는 빛은 있어도
그 빛에 뜨거움은 없거니
우주의 태양은
나에게 빛은 주어도
나를 더웁혀주지는 못하도다

그러나 이밤
그대가 심장으로 노래한
인간의 태양은
나에게 빛만이 아니다

인간사랑의 영원하고 뜨거운 광원으로
나를 더웁혀주고있나니

내 이젠 전하리라
인간사랑의 그 불멸의 뜨거운 광원을
영원히 나의 빛발의 샘으로 삼아
만년이고 억년이고
지구의 곳곳을 밝게, 따사롭게 비치며
전하리라 온 세상에
인민을 위한 그 뜨겁고 위대한 사랑을...

내 수수천년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를 비치며
홍망성쇠하는
나라와 나라들 수없이 보았어도
인간의 태양이
사랑으로 충만된 뜨거운 빛발로
인민의 삶을 가꾸어주고
인민의 운명을 빛내어주고
인민의 만복을 꽃피워주고
인민의 미래를 밝혀주는
그대의 나라와 같은 나라는
내 지금껏 보지 못했노니

그대가 이밤
그토록 정을 담아 노래한
그대가 사는 사랑의 집도
그대가 거니는 광복거리도
그 빛발을 한가득 안고
이밤의 나의 빛을 무색케 하며
밝고밝은 빛을 뿌리도다

내 이제 수천년 세월

가난한 사람들이 대대로
소박한 계수나무 꿈을 안고
구슬픈 소망으로 외우던
나의 계수나무를
금도끼로 찍어내고
옥도끼로 다듬어서
지난날의 유물로나 남겨놓고

새로이 새겨넣으리라
내 속에
그대가 사는 사랑의 집을
그대가 거니는 광복거리를
새로이 새겨넣으리라
온 나라가 사랑의 집인
온 나라가 인민의 집인
그대의 나라를
김정일 장군님의 인덕정치가 꽃피고 꽃피어
누리에 그 향기를 가득 풍기는
인간화원의 나라 조선을
내 속에 영원히 새겨넣으리라

그리고 말하리라
세상사람들에게
인류가 갈망하는 리상의 나라는
여기 주체의 조선땅에 있다고
소리높이 말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새 꿈을 안고
나를 바라보며
나의 계수나무전설이 아닌
새로운 인간락원의 전설을 창조하리라
이야기하리라

어머니 치마폭은 한겹이어도

리 용

얼굴에 묻은 흙 닦아주실 때
눈물도 코물도 씻어주실 때
여린 살결에 닿던 내 어머니치마폭
부드러워 이 한몸 다 맡겼던가

하얀 빨래 행구던 시내물 어려오네
내 옷을 빨아내던 방치소리 울려오네
순간도 떨어지면 못참아
잠결에도 부여잡던 내 어머니치마폭

멀리 곁을 떠나 세월은 흘렀어도
오늘도 내 마음 감싸주네
눈덮인 전호에선 포근한 이불되어
비내리는 산정에선 따듯한 천막되어

진창길 걸어도 마음속엔 때묻지 말고
준엄해도 눈물을 보이지 말라고
아, 내 어머니치마폭은 한겹이어도
오만가지 깊은 사랑 서려있었네

집과 세월을 두고

리재준

작업반장, 세포비서들이 한날한시에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량담산기슭의 만풍마을을 참관하고 돌아온 날이었다.

리당사무실에는 농장일꾼들이 한사람같이 모여 들었다.

당의 배려로 만풍마을처럼 우리 농장 앞재마을에 일떠서는 서른다섯동의 새 살림집 건설을 더 잘 도울데 대하여 격식없는 토론들이 벌어졌다.

먼저 말머리를 뻗 리당비서동무의 목소리는 전에없이 흥분되어있었고 모여앉은 사람들의 숨결은 높았다. 몇시간전에 본 만풍마을이 안겨준 충격때문이었다.

이날 우리 참관자들은 녀성의 몸으로 여러해째 이 마을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류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새 살림집마을을 돌아보았다.

언덕을 따라 너줄로 구획을 짓고 두집씩 줄맞춰놓여선 새집들, 설계도 시공도 한결같다.

마을앞 늪지에 건설된 메탄가스발생탱크까지 돌아본 나는 돌아오는 길에 류동무의 청에 못이겨 잠시 그의 집에 들리었다.

나의 막내동생과 전문학교동창인것으로 하여 우리 두집은 남다른 사이였던것이다.

장식기둥을 다문다문 세운 아담한 담장 한가운데 있는 하늘색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처마높은 합각지붕아래 인조석미장을 한 ㄱ자집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다르록》미닫이를 연 류동무가 어서 들어오라 내 손을 끈다.

전실이였다. 여기서 아래방, 옷방, 부엌으로 가는 문들이 나있었다.

부엌맞은칸은 손님맞이방이였다.

텔레비존수상기와 채보기가 놓여있는 아래방과 이불장, 양복장, 록음기며 선풍기가 있는 옷방은 나무랄데없이 그뿐하다. 그리고 전실엔 자주색 문양이 찍힌 레자까지 깔려있어 첫 인상부터가 산뜻한 느낌을 준다.

부엌은 또 얼마나 알뜰한가. 타일을 붙인 부뚜막엔 늪가마들이 은빛을 뿌리고 번들거리는 찬장 안엔 갖가지 그릇들이 가득차있다. 쌍을 맞춘 단지들과 소랭이들이 얹혀진 삼층당반, 물탕크옆에 반짝이는 수도꼭지.

가스로 밥을 짓고 방까지 덥히고있다니 이 얼마나 희한한가.

부엌창고와 손님방사이에 꾸려진 목욕탕안에는 하얀 욕조에 맑은 물이 찰랑거린다.

뒤울안엔 모양좋은 다섯그루의 감나무가 심어져있었다.

집옆에는 집집승우리와 창고들이 질서있게 들어앉았는데 보이는것마다가 마음에 든다.

새집에 반하여 내가 연방 감탄하고있을 때 집승우리에 갔던 류동무의 어머니가 닭알이 가득 담긴 그릇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새집에 들어 기쁘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었다.

《기쁘다마다. 이런 좋은 집을 글썽 나라에선 우리같은 농민들에게 거저 주었네. 참 좋은 세월에 살지.》

내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는 그의 눈가엔 맑은 이슬이 고여올랐다.

언제나 인민생활향상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활짝 꽃피우는 내 조국의 한고장에 현대적인 새 살림집마을이 건설되고 《만풍》이라 은정어린 이름으로 불리우는 또하나의 리상촌이 일떠섰다.

그러니 목이 메여 저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이 눈굽이 아니라 온몸을 적신들 어떠랴.

우리의 이 행복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우리 당만이 안겨줄수 있는 선물이며 인민의 나라인 우리 조국에서만 펼칠수 있는 현실인것이다.

먼 후날에도 부러운것 없이 살수 있도록 꾸려진 고급살림집에서 다름아닌 우리 농민들이 산다.

정녕 얼마나 고마운 내 조국인가.

좋은 세월! 류동무의 어머니가 눈물속에 한 이말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집을 마련해주는 고마운 제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 흘러가는 날과 달을 의미하였으리라.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새 집을 바라보는 나의 입에선 환성처럼 터져나왔다.

《지상락원이다!》

×

홍분에 뜬 사람들의 토론은 계속되고있다.

가만히 앉아서 이 크나큰 배려를 받아안기만 할수 없다는것이다.

그들의 열기면 토론을 듣는 나에겐 멀리 흘러가버린 다른 하나의 집이 추억되었다.

그것은 해방전 예닐곱살때 내가 살던 집이었다.

최지주눔네 형제가 사는 고래등같은 두 기와집 째바구니에 끼운 납작한 초가마가리.

지주눔이 양계장으로 쓰다가 누기차고 해빛이 들지 않는다고 쾅개친것을 어느 머슴인가가 꾸렸었다는 이 집아닌 집을 어머니 모내기때와 김매기때 지주눔네 일을 해주기로 하고 얻었던것이 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걸머진 빚값에 쓰고살던 오막살이집마저 빼앗긴 어머니와 우리 다섯남매가 이 《집》을 쓰고 몇해를 살았던지...

다 해진 두장의 삿자리를 깔았던 방바닥, 하나뿐인 찌글서한 범살문은 세멘트포대종이쫓박들로 더덕더덕 발라 한낮에도 어둡시곤하던 방안, 하기가 량쪽 지주눔네 집 높은 처마에 가리워 종일 그늘속에 있으니 어떻게 한가닥의 해빛인들 비쳐들수 있으랴!

아궁은 불이 들지 않아 끼때마다 부엌과 방안에 온통 쓰린 내굴이 가득찼고 그러면 우리들은 굴뚝막은 덕석이 되고말았다.

그때 나는 비오는 날이 제일 싫었다.

비가 한줄기만 내려도 고삭은 이영을 뚫고 천정에선 물방울이 마구 떨어지고 아궁이론 기다렸던듯 도랑물처럼 물이 흘러나왔다. 그러면 어머니 아궁에서 나오는 물을 함지에 퍼담고 누나는 그것을 날라다 개굴창에 쏟아버리곤했다. 나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방안에 새는 비를 책임져야 했다. 웅배기며 바가지, 깨진 질그릇따위까지 다 주어다놓고 물이 넘어나는 그릇을 번갈아 밖에 내다버려야 하는 일은 험치 않았다. 조금만 먼눈을 팔아도 동생들의 부산에 바가지가 옆질러져 물이 방바닥에 쏟아졌고 작은 그릇은 잠간새 물이 한가득씩 차올랐다.

밖에 나가 놀다가도 비가 오면 다른 애들은 다 제집으로 뛰어갔지만 나는 남의 집 처마밑으로 달려가곤하였다.

집에 가야 《풀렁풀렁》 간장물같은 비물이 청승맞게 떨어지는 열개도 넘는 물그릇을 파수병처럼 지켜야 하는 성가신 일밖엔 차례질것이 없었으니말이다. 그러면 누나는 내가 해야 할 일까지 다 하느라 욕을 보았다.

그런날 밤이면 어머니는 가물거리는 등잔불밑에서 후줄근히 젖어 오돌오돌 떠는 우리 형제들을 어미닭처럼 한품에 안고 꾸념처럼 외우는 말을 또 곱씹곤하였다.

《몹쓸 세상을 만나 너희들까지 고생이구나. 언제면 좋은 세월이 오겠는지.》

이 집에서 하루 두끼 우리가 먹는것은 불그죽죽한 수수강태죽이였고 이 집에서 우리 형제들이 사시절 입고있는 옷은 깃고 또 기운 석세베옷이었다. 마가울부터 추위에 떨기 시작하면 늦은 봄까지 우리 몸은 녹아보지 못했고 만가울에도 우리 형제들은 배부른 감을 모르고 살아야 했다.

어머니가 일을 적게 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가.

어뜩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손끝이 닳고 등이 휘도록 남의 집 농사일을 해주었으나 세월은 갈수록 우리 집에 가난만을 들썩워주었다.

이것이 나라없던 그때 우리 집에서 흘러가던 세월이었다.

그 시절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몹쓸 세상》이라고 한 소박한 말은 나라를 빼앗긴 원한, 조국이 없는 설움과 슬픔을 뜻한것이였으리라.

집에 대한 피눈물나는 추억에서 깨어난 나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었다.》

×

나의 눈앞에는 웅장하게 변모될 앞재마을의 전경이 어려온다.

우리 농장에도 지상락원-공산주의리상촌이 솟아날것이다.

조국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복을 안겨주고 있는것이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사회주의 내 나라는 인민들에게 나날이 더 큰 행복만을 안겨주는 영원한 품이다.

이 땅에서 우리 인민은 창조의 구슬땀 더 많이 흘리며 천년만년 주인으로 살것이다.

조국에 대한 생각

윤경남

잠시나마
조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의 거리를
조용히 거닐 때에도
내 어릴적 마음처럼
집으로 가고싶던 생각

잠시나마
국기계양대우에
람홍색 공화국기발이 오르고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
경기장 하늘가에
승엄히 울려갈 때에도
젖은 눈시울 습벽이며
남먼저 아뢰고싶던 마음

아마도 그것은
내 나서 자란곳이어서이리
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
성실한 노력과 진한 땀으로 가꾸는
동방의 아침해 솟는 나라
인간사랑의 전설이 꽃피는
사회주의 내 조국

조국
그대의 따사로운 품에서
피도
살도
마음도
언제나 하나의 생명체인 인민들

조국은 우리 어머니

조국은 행복의 요람
만약 조국이 없다면
우리도 없고
이 땅의 모든것 없으리니

아 조국의 품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안겨있을 땐 다는 몰랐어도
그 품을 떠나
멀리 이국에 있을 때
더욱 가슴사무치게 느껴지더라

사람이 사람을 잡고
돈이 인정과 의리마저 잡는
《황금만능》의 세상은
내 잠시 다녀온 생지옥
자본주의 인간시궁창
인생불모지더라

오 순간은 짧아도
내 보고
내 듣고
내 느낀것
너무도 가슴을 치거니

수령님의 혁명위업 빛나고
장군님의 인덕정치 꽃피는
인민이 주인된 나라
내 안겨사는 집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이 세상 제일이더라
제일이더라

한 녀교원의 사랑

석남진

렬차는 덜커덩 하고 몸을 떨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숙은 좌석등받이에 몸을 실으며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떠나는구나.)

이젠 그 누구도, 그 자신의 소심한 마음도 렬차를 멈춰세울수는 없을것이다. 그를 돌려세우려고 애쓰던 오빠의 목소리도 이제는 역과 함께 뒤에 남았다.

《네가 그 로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집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겠는지 생각해본적이 있냐? 너에겐 자존심도 없느냐?》

금숙은 지금 한 병사의 아버지 일흔둘생일에 가는 길이다. 금숙은 그 로인을 몇년전에 한번 만나보았을뿐이었다. 그 로인이 금숙의 얼굴을 기억하겠는지도 알수 없다. 더우기 처녀로서 그 어떤 약속도 한적이 없는 총각의 집을 찾아간다는것은 레사로운 일일수 없었다. 그러나 금숙은 고집스럽게 오빠에게 되풀이했었다.

《그 아버님은 영예군인로병이예요. 조국을 위해 피흘린 로병을 새 세대로서 아들대신 찾아뵙고 축복의 술 한잔 붓는것이 도리에 어긋날수야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금숙의 마음의 전부였던가. 아니다. 문제는 그 로인이 바로 황명진의 아버지라는데 있는것이다.

봄들판이 비껴들던 차창에 군복입은 한 청년의 모습이 그려진다. 짙은 눈썹밑에서 반짝이는 눈, 그 눈은 가느스름하여 마치 눈부신것을 볼 때처럼 쏘프린듯한 인상이다. 날카로운 코를 따라 앞으로 약간 두드러진듯한 군살 한점 없이 갱뿔한 얼굴, 금숙은 차창에 어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속으로 조용히 불러본다. 《명진 동무!》 마음이 아릿해온다. 때로는 야속하게도 하고 때로는 의혹에 사로잡히게도 하던 사람, 8년간을 한시도 잊은적없이 마음의 한부분으로 되어버린 사람...

8년전 눈보라치는 겨울밤, 인적없는 산길에서 한 처녀가 울고있었다. 처녀는 교편물제작때문에 읍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지막 뺨스에서 내렸을 때는 벌써 날이 저물었었다. 학교까지는 아직 거의 20리길을 가야 했다. 용감하게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걸다가 비탈아래로 굴러내렸는데 그때 한쪽 신발이 벗겨져 달아났다. 사위가 캄캄한데다 눈보라가 몰아쳐와서 발자욱자리들을 순식간에 메워버렸

다. 헤덤비며 더듬었지만 신발을 찾을수 없었다. 게다가 몸이 식어들면서 얼어들기 시작했다. 눈보라와 어둠이 절망의 나락속에 처녀를 몰아넣었다. 하여 그는 울고있었다. 그는 방금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혁명가요를 부르며 걸어왔다는것을 새까맣게 잊고있었다.

바로 그때 홀연 주위가 밝아지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여기서 울고있소?》

깜짝 놀라 쳐다보니 웬 인민군병사가 전지불을 켜들고 서있었다. 무작정 반가웠다. 그러나 병사 역시 잃어진 신발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대신 그에게는 병사다운 기지가 있었다. 자기의 커다랗고 두툼한 병사용숨장갑을 벗어 처녀에게 내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장갑이 왜 이렇게 큰지 아요? 이럴 때 신발대신 발에 신으라고 해서요.》

정말 그래서일가? 처녀의 발은 병사의 손보다도 더 작아서 장갑안으로 쏙 들어갔다. 장갑은 따뜻하고 포근했다. 병사는 장갑끈으로 처녀의 발목으로 눈이 들어가지 않게 꼼꼼 동여매주었다.

그리고는 어쩔바를 몰라하는 처녀를 붙들어 일으켰다.

《자, 이젠 가봅시다.》

그 병사가 바로 황명진이었고 처녀는 갓 교편을 잡은 시절의 금숙이었다. 그때 명진은 새 훈련기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하러 도에 있는 화학공장에 갔다오는 길이라 한다. 한발 늦는바람에 렬차를 놓쳐버리고 내친김에 《강행군》해온다고 하였다. 거의 100여리가 넘는 길이었다. 금숙은 단박 두눈이 둥그래졌다.

(어쩌면 그 먼길을...)

전지불을 들고 앞서 걷는 그의 온몸에서는 청춘의 싱싱한 향기가 풍기는듯싶었다. 금숙은 그의 체취에서 완강하면서도 성실한 인간미를 뜨겁게 느끼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명진은 제대명령을 받았고 대학으로 가게 되었다. 명진이 부대를 떠나게 된 그날 금숙은 학생들을 데리고 산에 올랐었다. 자연관찰시간이었다. 휴식시간에 골짜기 개울가에 둘러앉아 오락회를 하고있던 그때 그들의 머리위에 솟은 벼랑우에서는 통나무를 실은 발구가 눈을 미끄러지며 저절로 움직이고있었다. 소발구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멈춰세울수 없게 된 때였

다. 그때 한 병사가 그것을 보았다. 발구가 벼랑을 굴러내리면 골짜기에서 오락회를 하고있는 학생들의 머리에 통나무들이 떨어질판이었다. 병사는 서슴없이 발구밑에 몸을 던졌다. 발구는 멎어섰지만 병사는 그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뒤늦게 벼랑을 에돌아 고개마루에 올라선 금숙은 쓰러진 병사를 불안고 몸을 떠는 명진의 모습을 보았다. 《부소대장동지!》 명진의 두볼로 붉은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명진의 부소대장은 아이들을 위해 자기를 서슴없이 바치였던것이다. 후에 안 일이지만 부소대장은 대학으로 떠나는 명진을 바래주려고 나왔던 것이었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야산기슭에 희생된 병사의 봉분이 솟아올랐다. 장례가 끝난후에도 금숙과 명진은 그 봉분앞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서로 나는 비통한 감정과 뜻밖의 상실은 그들로 하여금 마치 운명의 한동아줄에 매여있는듯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긴 침묵끝에 금숙은 명진에게 물었다.

《언제 떠나겠어요?》

명진은 한참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무덤가에서 꺾은 풀대가 쥐여져있었다.

《글쎄... 발길이 떨어질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부대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으로 새로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중대가 주공을 담당해야 하는데 단련된 사관들이 부족하거든요.》

명진은 고개를 들어 구름장이 흘러가는 하늘가에 눈길을 주더니 동을 달았다.

《부소대장동지가 나를 바래주며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군요. 자기가 총을 쥐고 지켜줄테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었지요. 그는 한평생을 병사로 살겠다고 말하곤했었습니다.》

명진의 눈에 그렇하니 고인 눈물이 해빛에 반짝거렸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드디어 그의 입이 열렸는데 그 음성은 이미 좀전과는 다른 확고한 결심이 어린 음성이었다.

《난 여기 중대에서 내 위치를 차지하겠습니다. 다하지 못한 부소대장동지의 몫을 내가 해야지요. 공부야 후엔들 못하겠습니까.》

그날밤 금숙은 잠들지 못했다. 복대의 결심을 말하던 명진의 얼굴이 눈앞에서 지지 않았다.밖에서는 접동새가 지긋게 울어대고있었다. 접동새는 마치 끊임없이 눈앞에 열른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것만 같았다. 대학의 강당을 초소로 바꾸어 계속 총을 잡으려는 청년, 전우에 대한 의리로 심장을 태우는 청년, 눈보라치던 밤길, 포근하고 따뜻하던 병사용장갑, 일으켜세워주고 잡아 이끌어주던 억센 그 손길... 그 손길을 생각하자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조국을 위해 자기의 청춘과 열정을 깡그

리 바치려한다면 나는...)

금숙은 자기의 가슴에 밀물처럼 차오르는 뜨겁고도 열렬한 감정에 놀라고 당황했다. 종전의 자기로 돌아가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았다. 가슴속에는 영원한 병사로 살려는 열렬한 지향으로 충만된 한 청년이 움직일수 없이 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찾은 차바퀴소리가 갑자기 높아지고 차창에 어둠이 드리웠다. 렬차는 긴 차굴을 통과하고있었다. 금숙은 창가에서 눈길을 돌리며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길에 명진동지를 만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가슴에 사무쳐오는 그리움을 털어버리기 위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명진의 집에 대해 상상해보려 애썼다. 하지만 눈앞에 그려지는것은 명진의 아버지 모습뿐이었다.

5년전 금숙은 명진을 찾아왔던 그 로인을 우연히 만나보게 되였었다. 이마에 붉은 주름이 잡힌 얼굴, 부상당한 오른쪽 다리를 절룩거리는 그 로인이 명진의 아버지였다. 그는 지난 전쟁시기 부상당하여 할수없이 군복을 벗은 아쉬움을 아직도 간직하고있는 로병이었다. 로인은 병사생활을 계속하는 자기 아들이 제마음을 알아주는것만 같이 느껴졌고 너무 대견스러워 이렇게 찾아와 힘을 주고 간다고 했다. 금숙은 존경이 가는 그 로인에게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하나 마련해드리었다.

《선생은 정말 좋은 체네로구만.》

금숙을 바라보는 로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여났고 소리없는 웃음으로 눈귀가 조프려지는것이였다. 그것은 명진의 웃을 때의 모습과 신통히도 같았다. 그후로는 다시 만난적이 없었다.

그런데 며칠전에 한 녀성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 녀성은 자기는 황명진의 녀동생이라고 소개하고나서 5월 4일 집에서 자식들이 아버지의 일흔뉘살일을 차린다는것을 알렸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언니(명진의 녀동생은 금숙을 언니라고 불렀다.)에 대해 몹시 외운다는것, 오빠가 군사복무중이어서 집에 오지 못하게 되니 더한것 같다고 썼다. 요컨대 아버지의 생일에 참가해줄것을 바라는 소망이 은근히 비쳐진 편지였다. 금숙은 바로 그 편지를 받고 이렇게 길을 떠난것이였다.

(막상 내가 나타나면 어떻게 맞아줄가. 정식으로 나를 찾은것도 아닌데, 하지만 황동지가 오지 못한다니 대신...)

차창이 환해졌다. 렬차는 차굴을 빠져나와 갈매기들이 솟아올랐다 내려앉았다하는 바다기슭을 달리기 시작했다. 한결 마음이 트이는것만 같았다. 이렇게 렬차를 타고 그가 바라는 행복을 향

하여 곧바로 달려갈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그러나 이 길은 낮모를 녀성(명진의 녀동생)의 몇자의 끝에 이끌려 어떻게 맞아줄지 알수 없는 집으로 찾아가는 불안과 동요, 주저의 길이었다.

사람들은 뜻밖의 환대에 맞다들면 쉽게 당황해지고 몸둘바를 몰라한다. 금숙은 처음 대하는 명진의 집안식구들이 마치 그가 오늘 생일의 주인 공이기라도 한듯 맞이하는바람에 한동안 어쩔바를 몰랐다. 집안사람들만이 아니라 마을사람들도 같았다. 딸, 사위, 손자들의 중심에 자리잡은 명진의 아버지는 벋글썩 미소를 띠우고 대견해하는 눈길을 금숙에게서 뻔줄을 몰랐다. 머리가 하얗게 센 체소한 몸집의 명진 어머니는 금숙의 무릎바투앉아 그의 손을 잡고 쓸면서 《네가 서른이 넘은 오늘까지 시집을 가지 않고있다니…》 하고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편지를 썼던 명진의 녀동생은 《언니, 언니》라고 부르며 그의 곁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여 모두가 금숙을 자기집 며느리로 대하고있었다. 여기에 금숙은 도저히 익숙되기가 힘들었고 마치 귀중한 물건을 주인몰래 훔쳐낸듯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됨을 어쩔수 없었다. 금숙의 머리속에는 명진이와 헤어지던 때의 광경들이 부지중 아프게 되살아났다.

…그들은 학교뒤산기슭에 서있었다. 산기슭 여기저기에 연분홍진달래가 피어나고 살구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봄철이었다. 그들은 자그마한 살구나무를 사이에 두고 서있었다. 그 살구나무는 언젠가 명진이가 전사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왔을 때 심은것이였다. 즐거운 추억이 그 애어린 가지와 하얀 꽃잎마다에서 밝게 웃고있는듯했다. 그러나 명진의 얼굴은 그런 추억과는 무관계한듯 어두운 그늘에 덮여있었다.

《모든게 다 내 탓입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바치고는 모든것을 명백히 하자고 찾아왔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금숙이 혼사문제때문에 친척들과 주위사람들의 시달림을 받을대로 받던 때였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려는가, 청춘이 영원한것인줄 아는가 하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러나 금숙이를 괴롭히는것은 《무정》하게 흘러가는 시간과 날이 아니였다. 그의 시간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꾸리는데만도 모자랐으니 그는 때때로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기도 했다. 빨리 시집가라는 말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시간의 흐름을 깨닫군했다. 그를 괴롭히는것은 명진이 그 모든 사정을 모르고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 괴로움을 가장 가까운 동무에게 털어놓았었다.

그런데 그 동무는 명진을 찾아가 모든것을 이야기했고 하여 그들은 이 산기슭에서 만나게 된 것이였다. …

명진은 금숙을 보지 않고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힘들게 말을 이어갔다.

《동무는 내가 왜 다시 복대했는지 잘 알겁니다. 사실 그때 난 제기된 공사나 끝내고는 대학으로 가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날로 긴장해지는 정세는 생각을 다시 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부소대장동지라면 이런 때에 결코 충을 놓으려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명진은 말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금숙에게로 눈길을 쳐들었다. 금숙은 눈길을 떨어뜨렸다.

《금숙동무, 나는 조국이 통일되는 때까지 병사로 살겠습니다. 병사가 가정을 이룰수 없다는거야 동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알아요. 알기때문에 말없이 기다리는거예요.)

《사람이 배려만 받으며 공부하는 고등중학교시절이후부터 중년나이에 이르는 마흔까지는 겨우 20년인데 그 시절이야말로 당과 조국에 바쳐야 할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금숙동무, 이것을 리해해주시시오.》

(리해해요. 그것은 바로 저의 생각이기도 했어요.)

금숙은 움직이지 않고있는 명진의 군화만을 내려다보고있었다. 이슬에 젖은 군복가랭이… 그것은 마치 귀중한 금은보화를 속깊이 감추고 우뚝 솟아있는 웅장한 산의 밑뿌리처럼 안겨들었다.

《금숙동무.》

금숙은 숙이고있던 머리를 쳐들었다. 순간 명진의 눈가에서 물기가 반짝이는것을 알아보았다.

《난 동무의 사랑을 받은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예요. 아니예요! 난… 기다리겠어요.》

금숙은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명진의 눈에 아직도 어려있는 정답고 따듯한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다.

《아니 그러면 안됩니다.》

명진은 얼굴을 책 돌리며 주먹으로 허공을 내리쳤다. 마치 그렇게 자기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사랑의 마지막보루를 짓부셔버리는듯했다. 금숙의 두볼로는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아니예요. 난… 난… 기다리겠어요.》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동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잊어주시시오. 마음 편히 군사복무를 할수 있도록 말입니다.》

금숙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슬펐다. 야속했다.

《우리는 곧 떠납니다.》

《예?》

금숙은 편똥 머리를 쳐들었다.

《어디루요?》

《그건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엔 오직 당과 조국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사지요. 그럼 금숙동무, 안녕히 계십시오.》

산기슭을 떠나가는 그의 뒤모습을 금숙은 눈물 속에 바라보았었다.

...

새벌처럼 청춘을 빗내이자고

굳은 맹세 다지며 그대 떠났네

...

어데서 그 노래소리가 들려왔던가. 그것은 다름아닌 금숙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노래였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서였다. 금숙은 립산사업소에 가서 교재림조성에 필요한 꽃나무모를 얻어가지고 학교로 돌아오고있었다. 작별과 상실의 아픔은 그대로 가슴을 저미고있었으나 일은 해야 했다. 그를 못건디게 괴롭히는것은 명진이 사랑은 커녕 애당초 자기를 생각한적도 없었으리라는 때늦은 깨달음이었다. 처녀의 긍지와 자존심은 무참히도 손상을 입었다. 해별이 짹짹 내려쬐이고있었으나 금숙은 무더움도 느끼지 못했다. 가슴속에서는 차디찬 실망과 자신에 대한 모멸이 고래치고있었다. 앞쪽에서 마주오는 군인들의 대렬을 보았을 때도 그는 기계적으로 길옆에 붙어 걸음을 옮겼다. 군인들은 철갑모를 쓰고 어깨에는 위장망을 걸쳤으며 자동보총을 비롯한 무거운 장구류들을 휴대하고있었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이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있던 시기였다. 군인들과의 거리가 가까와졌을 때 금숙은 흠칫 놀라 그자리에 서 버렸다. 그들속에 명진이가 있었던것이다. 금숙은 굳어진듯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걸음도 눈길도 뻐수 없었다. 그런데 명진은 금숙의 시선과 부딪치자 획 얼굴을 돌려 외면해버리는것이였다. 금숙은 눈앞이 캄캄해짐을 느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순간에야 그는 자기가 눈을 감고있음을 깨달았다. 척척- 땅을 스치는 군화소리... 심장은 쇠집게로 조이는듯 아파났다. 아, 그에게서 내가 이런 존재로 되었던말인가. 척- 척- 군화소리는 이미 그의 뒤에서 울리고있었다. 한 걸음, 또 한걸음 멀어져 가고있었다. 그것은 금숙에게서 사랑에 대한 마지막기대, 청춘의 아름답고 열정적인 꿈이 영영 떠나가는 소리였다. 영별의 발걸음소리였다.

(가자. 어서 가자. 나는 나무를 심어야지. 그는 조국을 지키는 길을 가고... 나는 미래를 키우는

길을 간다. 그래, 그에게는 그의 임무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사업이 있지.)

금숙은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휘청거리는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알수 없는 충동으로 대오를 돌아보았다. 바로 그때 한 병사가 몸을 돌려 그를 보았다. 명진이었다. 그는 말없이 금숙을 바라보았다. 금숙의 온몸으로 짜릿한 아픔이 전류처럼 번져갔다. 무장을 갖춘 준엄한 자태의 병사와 꽃나무모를 든 처녀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서있었다. 물론 금숙은 명진의 눈빛도, 그의 얼굴 표정도 똑똑히 가려볼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공간에서는 뜨거운 심장의 분출이 예광탄처럼 오고가면서 허공에서 부딪치는것만 같았다.

사람이 사느라하면 한생의 방향을 규정짓는 운명적인 순간들에 부딪치는 때가 있다고 한다. 명진이와 마주 바라보는 이때가 금숙에게 바로 그런 운명적인 순간이었다. 금숙은 자기의 가슴속에 간직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지, 그 무엇으로써도 그 사랑을 깨버릴수 없음을, 자기는 명진이를 결코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는것을 그 순간에 사무치도록 절감하였다. 그리고 명진이도 역시 자기를 사랑하고있음을, 그러나 병사의 숭고한 자각으로 그것을 억제하고있음을 똑똑히 깨달았다. 명진은 대오와 함께 멀어졌으나 그 순간에 모든것은 결정되였다. 그날 금숙은 교재림에 꽃나무와 함께 자기의 굳은 결심을 심었다.

(기다리리라. 그가 조국을 지키는 초소에 서있다면 나는 미래를 키우는 초소에서 그를 기다리리라. 언제든 다시 만나면 떳떳하게 자기를 자랑할수 있도록 그렇게 살자. 당과 수령께 충실한 병사인 그를 뒤받침해주는 말없는 고임돌이 되자.)

이것은 4년전에 있던 일이었다.

집안밖에서는 모두들 생일준비로 바빠 돌아갔다. 모두들 아들 명진이가 오지 못한것을 섭섭해하면서도 웅당한 일로 여겼고 금숙의 출현을 아들이 온 이상으로 경사스레 생각했다.

금숙은 명진의 매부가 상차리는것을 거들어주고있었다.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왔던 녀인들은 누구나 방문을 빠끔히 열고 금숙의 모습을 훑쳐보는것을 잊지 않았다.

《명진의 색시감이라누만.》

《어쩌면 저렇게 고을가.》

어찌 보면 생일집이라기보다 머느리 맞는 잔치집인듯 모두의 관심은 금숙에게 쏠려있었다.

사실 처녀는 아름다웠다. 꼭 맞는 곤색양복으로 감싼 쪽 빠진 몸에서는 젊음의 탄력이 그대로 흘러넘치고있었다. 술많은 검은 머리는 상큼한 목뒤로 보기 좋게 부풀어올랐고 생기가 넘치는 얼

굴은 희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나이는 속일수 없는 것이어서 쌍까풀진 두눈귀에 알릴듯말듯한 주름살이 잡히고있었다.

명진의 매부는 자기 처남에 대해 무척 많은 이야기를 하고싶어했다.

《우린 사실 중학동창입니다. 그는 학교축구팀의 문지기였지요. 우리 학교 축구팀은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도내 고등중학교 축구경기가 있었는데 우린 물론 결승경기까지 올라갔었지요. 그 경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상대편 공격수가 쏘넣은 공을 명진이가 잡았다가 그만 놓쳤지요. 워낙 속도있게 날아들어오는 공이었으니까요. 그바람에 공이 골문을 향해 굴러들어갔지요. 명진이는 다시 공을 덮쳐 잡았습니다. 상대편 선수들과 우리 선수들 사이에 심경이질이 벌어졌지요. 풀이라거나 아니라거나, 심판도 우리편으로 기울어지는판인데 명진이 그 친구가 척 나서는데 이니겠습니까. <이건 끝입니다. 내가 잡은것은 공이 골문선을 약간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이런단말입니다. 결국 우리 학교팀은 지고말았지요. 사람이 뭐라고 할지. 그 일 때문에 칭찬도 들었지만 비난은 더 많이 들었지요. 하여튼 명진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 지나간 나날 금숙의 뇌리에 찍혀진 명진의 인상도 그러했다. 옳고 정당한것을 위함이라면 자신의 체면과 리익을 생각지 않는 사람! 그는 지금 나에 대해 생각이나 하고있을까? 금숙은 마음속으로 명진에게 속삭여본다.

…나도 동지처럼 살고싶었어요. 나도 동지처럼 청춘을 빛내고싶었어요.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허무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시간으로만 흐르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조국의 미래를 떠맡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데 모든 열정과 지혜를 다 바치는 거기에 나의 사랑이 있었어요. 용서하세요. 학생들속에 파묻혀 지내는 분주한 생활속에 전혀 동지에 대해 잊고보낸 날들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을 짱그리 쏘아부어 키운 나의 제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조국보위초소로, 사회주의건설장으로, 대학으로 떠나갈 때면 언제나 동지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더군요. 그리고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한 자랑과 긍지를 안고 제자들이 찾아올 때면 동지도 나의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동지도 우리 학교를 기억하겠지요. 때때로 전사들과 함께 찾아와 학교일도 도와주고 아이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동지가 아니었나요. 백양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며 솟아 검푸른 잎사귀들을 바람에 흔드는 학교 정문은 지금도 언제나 열려있어요. 그 정문으로 나는 어엿한 제자들을 맞으러 달려가지요. 그 순간

엔 어디선가 동지가 미소를 짓고 나를 보는것만 같아 벅찬 가슴을 진정할길 없어요. 동지는 언제나 나의 《세별》이었어요. 나와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빛나는 별이었어요. 힘을 주고 이끌어주고 고무해주는…

금숙은 밖에서 《아이 오빠!》 하고 은방울처럼 튀어오르는 탄성의 목소리에 편뜻 제정신이 들었다.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그 어떤 예감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친다.

《아버지! 오빠가 왔어요!》

뒤이어 들려오는 목소리.

《뭐라구!? 명진이가?!》

그다음에는 선풍이 일었다. 온 집안이 밖으로 쏟아져나갔다. 집안에 그대로 서있는것은 금숙이 뿐이었다. 그는 마치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정말 명진동지가 왔단말인가. 어떻게 되여?... 금숙은 밖에서 떠들썩하는 소리들속에서 것처럼 귀에 익고 정다운 목소리를 온몸으로 듣고있었다.

《부대 동무들이 어서 가보라고 등을 떠밀더군요.》

그 목소리는 여럿의 목소리들에 섞여 점점 방문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 웅성거림속에 걱정과 부끄러움, 흥분이 함께 실려오고있었다. 그 환희로운 소음속에 명진의 얼굴이 다가오고있었다. 금숙은 속이 한줄만 해서 방문옆벽에 꼼짝 않고 서있었다. 심장이 금시 흥벽을 튀고나올듯이 세차게 고동쳤다. 어데론가 피해버리고싶으면서도 피하고싶지 않은 순간이었다. 방문이 열렸다. 금숙은 숨이 킁 막히는것만 같았다. 군복입은 명진이가 불쑥 나타난것이였다. 금숙은 온몸이 굳어졌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이 말은 그의 심장속에서만 울렸다.

《아니?!》

명진이 역시 문가에서 굳어져버렸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제껏 금숙이를 잊고있었음을 깨달았다. 명진의 아버지가 서둘러 말했다.

《내가 좀 와달라고 했다. 왜 그런지 자꾸 보고싶어서 금숙선생에게 와줄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러나 금숙은 두사람의 끊어질수 없는 인연을 확인하는듯한 그 말도 듣지 못했다. 그는 처음엔 놀라움과 당황함을 느꼈고 다음엔 명진의 해별에 탄 구리빛얼굴에 확 번져가는 기쁨의 미소에 온몸이 끌려가고있었다. 그 미소는 어느사이 눈으로 옮겨가 빛나고있다. 한없이 친근해진 가늘게 쪼프려지는 두눈, 금숙은 그냥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만있었다. 그새 무척도 변모한 모습이다. 더욱더 다부져보이는 가슴팍, 미간에는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세줄기의 주름살이 갔고 가느스름한

두눈은 강철빛으로 번뜩인다. 마치 총권 군인의 완성된 모습을 보는듯싶었다. 군복은 잔등부위가 팍팍으로 폭 젖어있었다.

잠시후에야 금숙은 그가 행군도중 지휘관으로부터 3시간의 여유를 받고 집으로 달려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3시간!) 금숙은 어쩐지 울고만싶어진다. 4년만에 만난 명진에게 하고싶은 말, 듣고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 3시간이란 이처럼 한집안 대는 부산스러운 환경속에선 너무나 짧았던 것이다. 금숙은 문득 나이 서른고개를 넘어서던 작년 설날을 생각했다. 앙금처럼 가라앉았던 그날의 고독함과 울적함이 다시금 떠오른다. 그날 그는(내가 이제 서른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니 어제까지만 해도 활짝 핀 꽃송이였던 자기가 하루밤사이엔 갑자기 시들어버린듯이 느껴졌었다. 그때처럼 자기의 인생과 명진의 사랑에 대한 의혹에 사로잡힌적이 없었다. 만약 명진이와 한마디라도 사랑의 약속이 있었다면 금숙은 그때 소리없는 눈물을 혼자 흘리지 않았을것이다.

3시간... 이 시간에 큰것은 바랄수는 없다. 그러나 한가지 대답만은 꼭 듣고싶었다. 《나는 동무를 사랑합니다.》 혹은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소.》 이 말을 듣는다면 금숙은 더 바랄것이 없을것 같았다. 이제는 31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혼기》가 찍 지났다. 허나 그 말만 듣는다면 때없이 찾아드는 외로움과 고독을 모두 웃으며 이겨낼수 있으리라.

서둘러 생일상이 차려지고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술 한잔씩 붓고... 사진사가 찰칵찰칵 사진을 찍어대는속에 천금같이 귀한 《금숙의 시간》이 흘러간다. 그 어간들에 금숙은 몇번 명진과 눈길을 마주쳤는데 명진의 표정은 엄한것 같으면서도 따뜻하고 평정한듯 하면서도 부드러워보였다. 어쨌든 금숙이로서는 그의 눈길과 표정을 무엇이래 이름하기 어려웠다. 어찌된 일인지 이 시각들엔 궁지와 보람으로 충만했던 지난날의 추억들은온데간데없이 지고 눈물겨웠던 순간순간들만이 갈마드는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언제인가 한 녀제자가 시집을 갔었다. 그가 결혼식에 참가해달라고 몇번 찾아왔지만 금숙은 갈수 없었다. 그후 길에서 시집간 제자에게 불들려어쩔수 없이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신혼살림을 편 아담한 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처럼 쓰라린 아픔을 느끼게 될줄이야...

방안의 구석구석에서 신선생활의 달콤함, 즐거움이 머리를 내밀고 자기를 조롱하는것만 같았다. 알른거리는 장판, 꽃무늬, 벽지를 바른 벽, 《행복》이라는 글자를 수놓은 방석 그리고 윤기가 흐

르는 부뚜막, 찬장우에 주련이 쌓여진 꽃단지들... 이 모든것에는 녀성들이 처녀시절에 들어서면서부터 간직해오는 아름다운 꿈이 비껴있었다. 합숙에 돌아오니 것처럼 정이 들었던 방안이 왜 그리도 썰렁하고 세상밖의 고도처럼 느껴졌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아 나왔었다.

방안을 울리는 웃음소리, 명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있었다. 시계의 초침소리가 금숙의 온 혈관을 두드리는듯하였다. 그러나 집안식구들도 친척친우들도 제 나름의 그동안 쌓여온 그리움을 푸느라 명진과 금숙이 단둘이 만나도록 하여줄 생각은 못하고있었다. 금숙은 이것을 이해할수 있었지만 야속한 생각만은 어쩔수 없었다. 불현듯 또하나의 회상이 마음속으로 찾아온다.

얼마전 오빠의 친구이며 금숙의 대학동창생이기도 한 청년이 찾아왔었다. 대학시절 그는 제대군인으로서 금숙이 오빠처럼 허물없이 따르고 존경하던 사람이였다. 그는 결혼문제에서 곡절을 겪고 아직 미혼으로 있었다. 그는 금숙의 사연을 듣고나자 어쩐지 괴로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했었다. 《금숙인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있다고 믿나? 약속을 한것도 없으니 혹시 영 잊어버리고있을수도 있지 않아?》 그가 떠나간후 금숙은 무서운 의혹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내가 뭐 볼게 있다구 명진동지가 나를 생각하고있으랴 하고... 눈덩이가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듯이 의혹이라는데도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모양이였다.

앞으로 몇년을 아니 십년을 더 기다린다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명진의 마음이다. 그것만 똑똑히 안다면... 명진동지, 여러분, 저에게 몇분간만 시간을 돌려주세요...

《전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명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금숙은 가슴에서 무엇이 푹 떨어지는것만 같은 충격을 받으면서 눈물이 왈칵 솟구쳐나왔다. 결국 한마디 말도 나누지 못한것이였다. 절망감에 숨이 막히는듯했다. 금숙은 가족들과 함께 제정신없이 명진의 뒤를 따라갔다. 이때 명진이가 돌아서서 금숙을 보며 한마디 했다.

《금숙동무, 고맙소.》

그 말에 웃어보이려 했지만 오히려 얼굴이 이그러졌으며 눈물만이 주르르 흘러내렸을뿐이였다. 흡사 폭발적으로 터지려는 호느낌을 애써 참으려는 어린애같았다. 다음순간 금숙의 단호한 목

소리가 울렸다.

《잠깐만 기다려요.》

금숙은 대답을 들을새도 없이 방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가방을 찾아들고 나왔다. 자기로서도 어떻게 하자는것인지 똑똑히 알지 못했다. 다만 이렇게 헤어질수는 없다는 한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자리의 그 누구도 금숙이의 이 돌연한 행동을 류다르게 여기지 않았고 마치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것처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었다. 오히려 머리를 끄덕이며 야릇하고 감동 어린 눈길을 혹은 그 어떤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금숙을 명진의 곁에 떠밀어보내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어 금숙은 명진과 함께 귀로에 올랐다. 길은 사과꽃이 흰구름처럼 핀 과수원을 옆에 끼고 구불구불 뻗어갔다. 해빛은 머리우에서 따뜻하게 쏟아지고 꿀벌들이 봉봉기리며 날아돌아갔다. 꽃향기 머금은 향긋한 바람이 옷자락을 흔든다. 그러나 좋은 날씨도 그윽한 꽃향기도 금숙을 취하게 할수는 없었으니 그는 아직도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는 명진이와 견게 되는 이 길이 너무나 짧으며 이제 곧, 그것도 너무도 갑작스럽게 끊어져버릴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금숙은 자기가 하고싶었던 말을 한마디도 할수 없음을 깨달았다. 무엇이 라고 말하랴. 사랑이란 결코 백지에 수표를 받는 령수증같은것일수 없었다. 그것은 자기 심장에 느껴지는 다른 심장의 고동으로서만 알수 있는것이다. 할수 있는것은 단 한가지 침묵속에서 헤어질 때까지 걷는것뿐이였다. 드디어 명진의 발걸음이 주춤했다.

《금숙동무, 정말 고맙소.》

(무엇이 고맙단말인가? 내가 아버지의 생일에 온것이... 아니면 바래주려 따라나온것이?...)

그들은 다시 침묵속에 걸어갔다. 명진은 참으로 말하기 힘들어했다. 그야말로 무진 애를 쓰며 말마디를 골랐다.

《금숙동무, 솔직히 말해서 난 동무가 시집간줄로 생각했소.》

《예?》

금숙은 멈춰 그자리에 서버렸다. 그 무엇이 호되게 머리를 후려갈기는듯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나를 잊고있었구나, 아, 무정하구나.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태연히 대꾸할수가 있는지 자기로서도 놀라울 지경이다. 허나 예리한 아픔이 가슴을 훑어내리고있었다. 속이 텅 비어버린듯한 공허감, 입은 영원히 말을 잃은듯하다.

《오해하지 마오. 우리들 나이가 지금 몇이요? 난 동무가 아직까지 날 기다리라고는 감히 생

각할수 없었소.》

금숙은 입술에 찻절한것을 느끼며 하늘을 쳐다본다. 태양의 뜨거운 빛이 눈을 찌른다. 아, 무정하구나. 비로소 금숙의 입이 열렸다.

《난 4년전 이미 명진동지에게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없이 작별인사를 나누던 그날에 나를 보던 명진동지의 눈빛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명진은 뚫어지게 쳐다보는 금숙의 눈길을 피하려는듯 허둥거렸다. 금숙은 막 소리쳐 부르짖고싶었다. (말해주세요. 제가 명진동지에게서 어떤 존재인가를!) 그러나 입술만 떨릴뿐 말은 다시금 의미를 잃어버렸다. 사랑은 수표가 아니다.

《금숙동무.》

명진은 눈길을 그의 머리우 어텐가를 향한채 말한다.

《오늘은 죄다 말하겠소. 지금껏 내가 그 어떤 처녀에 대해 생각한적이 있었다면 그건 오직 금숙동무 한사람뿐이었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더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이미 8년전부터였소.》

금숙은 눈앞이 확 돌아갔다. 그는 비칠거리다가 불쑥 다가드는 나무를 꺼안으며 몸을 지탱했다.

눈물이 동이 터진것처럼 쏟아져나왔다. 가슴속에 서리였던 지난날의 아픔과 고독이 눈물과 함께 스며나와 해월에 증발해버린다.

《금숙동무, 그러나 난 병사요. 언제까지라도... 병사요.》

금숙은 눈물속에서 조용히 대답했다.

《알고있어요. 하지만 저도... 병사예요. 언제까지라도...》

다음순간 그는 자기를 와락 포옹하는 뜨거운 가슴을 느꼈다.

《금숙이!》

시간은 정지해버렸다. 그들이 굳게 포옹하고있는것이 한순간이었던가 아니면 웅근 하루였던가 한세기였던가. 땡- 땡- 하는 종소리가 그들의 머리우로 울려갔다. 농장의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였으나 그들에게는 작별의 종소리였다. 병사에게는 휴식이 없다.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전에는... 하여 명진은 떠나갔다.

금숙은 눈물속에서 멀어지는 명진의 보습을 바래였다. 마음은 허전한것 같으면서도 더한층 충만감을 느끼고있었다. 이것이 행복일까. 금숙은 자기가 이제 다시 그리움에 시달리게 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집못간 처녀라고 동정하리라는것도, 하지만 그 모든것은 금숙을 더욱 분발시키고 보람찬 청춘의 길에로 떠밀어줄것이였다. 명진이가 가는 길,

위대한 수령님과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걸
사용위해가는 길,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 참다
운 청년전위들이 가는 길이 금숙이앞에 뻗어있었
다.그것은 다름아닌 그의 사랑의 길이기도 하였
다.

그때로부터 2년후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온
나라에 퍼져갔다. 그것은 전연지대의 인민군부대
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한 병사의 위훈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와 함께 상위의 군사칭호를 수여
하도록 해주시고 진짜 영웅이며 우리 나라의 자
랑이라는 높은 평가를 주신 사랑의 이야기였다.
그 병사의 이름은 황명진, 나이는 36살이었다.

사람들은 웅당하게도 로총각인 상위 황명진의
혼사문제에 관심을 돌렸다. 그때 그는 다음의 한
마디 대답으로 다시한번 사람들을 놀래웠다.

《저에겐 10여년간 저를 기다려준 처녀가 있습
니다.》

금강의 물이 되고싶어

한 호

푸른 산 푸른 숲을
푸르른 호수에 비껴담고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진
금강의 물이 되고싶어
창도 김화 회양...
백리물길 굽이 돌아내리는
나도 금강의 물이 되고싶어

금강의 물이 아니고야
산골짜기 여기저기
가설병영을 짓고
눈내려도 비내려도
한치한치 암반을 뚫으며 걸어간
병사들의 그 수고를 어이 다 알수 있으랴

금강의 물이 아니고야
떨어지는 락반을 몸으로 막으며
전사들 들어오지 말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완공의 보고를 올리는 날
나의 목소리도 합쳐
목청껏 만세를 불러달라 웨치던
그 지휘관의 가슴을 적시던 눈물을
어이 다 알수 있으랴

련사흘 쏟아지는 장마비에
사태는 내리고
굴은 물에 잠길 때
폐목을 무어 육박해 들어가며
사나운 자연과 백병전을 벌리던
금강산발전소 군인전설자들!
불굴의 영웅들!

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은
무조건 철저히 받들어가야 할
지상의 명령이었기에
건설장을 전투진지로 차지하고
대자연과 싸워이겼나니

굴마다 뛰어내리며
발전소타빈을 때리고
병사들의 손길이 닿은
암반마다 쓸어보고 쓸어보며
그들의 위훈을 후손만대 노래하는
금강의 물이 되고싶어

금강의 물이 되고싶어
자연은 횡포하고
시련은 겹쌓여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산악도 옮기고 바다도 메운다는
그 신념 그 의지 그 투지를
온 세상에 자랑높이 전하고싶어

하지만 내 아니할 생각
소리치며 부서져내리는
금강의 물은 병사들이 흘린 땀!
병사들이 조국에 바치는 젖줄기!
하거니 그들의 투지 그들의 뉘트로 내 산다면
나도 한가닥 금강의 물이 될수 있으려니

금강의 물이 되고싶어
우리의 어버이 **김정일**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의 노래만을 사시장철 드리며
자자손손 이 땅을 꽃피우고 가꿀
금강의 물이 되고싶어
금강의 물이...

사회주의 너와 이야기한다

신흥국

붉은 아침

푸릿한 새벽대기를 흔들며
《애국가》의 노래선물이 울릴 때
기관차의 전기받개는 서서히 오르며
하늘에 평국 푸른 빛을 굶는다

순간 빛은 일어번지고 동녘이 들리는가
정시출발의 긴 기적소리는 울리고
탄약상자처럼 쌓아올린 엄엄한 물동이
사회주의건설의 진지마다로 떠나간다

진리와 정의를 불길로 적는
희망의 봉화가 어린 강반에선
물안개 피어오르고
간밤 더 자라오른 가로수 역센 줄기너머
옛 성벽은 도도하다
지금 자태를 드러내는 도시의 모든
탑들과 기념비들처럼

넓게 트인 거리엔 힘찬 기운이 실린다
취주악대가 울리는 북소리에
발걸음도 속도도 맞춘 사람들이
열병대오인듯
황! 황! 지축을 울리며 지난다

한밤도 달려드는 회오리광풍을
삭정이 꺾듯 어둠속에 꺾어던지고
또 하루 신심높이 신들메 조이며

사회주의진군이 시작되는 도시!

급다! 머리위에 붉은 저 노을은
지칠줄 모르는 이 도시의 정열인가
전파라고 날으는 방송원의 목소리는
젊고 건강한 우리의 사회주의가
인류에게 보내는 새날의 전투적인사인가

오, 궁지로워라
인민이란 이름을
금빛으로 받들어 높이 건
푸른 합각지붕과 궁전들과 창문들이
당중앙위원회청사와
가장 가까이 처마를 잇고 섰기에

인민의 념원과
영원한 인연을 맺으신 **김정일**동지!
그이를 높이 모신 여기서
인간존엄의 기치가 고수되고
새 시대 투쟁의 항로가 열리기에

바로 그때문이다 평양아!
사회주의심장인 너의 아침은
주체로 붉은 너의 아침은
남먼저 어둠을 태우며 시작되는것이다
세계의 모든 깨끗한 아침을 낳기 위하여-

내 어머니

고요를 모르는 세계에
누리에 뚜렷한 사회주의
나를 키운 이 세상 단 하나의 어머니이시여

이름없던 내 운명은
너의 따스한 온돌방에서 자라
눈와도 등허리 시린줄 모르고 명랑했더라

생각하면 너의 사랑의 하늘에
내 희망의 연은 얼마나 높이 날았던가
열사흘 굶고 쓰러져도 결코 비굴하지 않으리

어느덧 내 삶은 그 연이 날던
행복의 별밀에 이르고...

사랑하노라 내 성장의 자욱찍힌
그 모든 거리와 층계들을
눈에 익고 몸에 밴 그대의 벅찬 생활들을

그때문이리 누구든 나서야 한다면
생을 바치는 걸음조차 빨라지는
장한 아들들처럼 나도 서슴없으리라는 한 생각

인간의 존엄은 돈에 무릎 꿇수 없음을
 그대는 얼마나 값높은 사랑으로 깨우쳐 주었던가
 오 천만자식을 이렇게 키운 어머니

그 일심 국력으로 떨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너는 이름만으로도 이 세상 기적의 한페지구나-

60 돌생일날

60돌생일날! 아버지 옷섭에
 내 정히 훈장을 답니다
 한생의 증표와도 같은

전쟁, 복구건설, 천리마운동...
 사연많은 조국의 력사가
 훈장가득 실렸습니다

무겁습니다 어찌 가벼울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한생 바빠 살며 흘린
 그 땀방울로 빛나는 훈장이 아닙니까

희어진 아버지 머리칼 한오리한오리는
 눈부신 훈장의 빛갈과 같습니다
 누가 백발을 서글프다 하였습니까

존경합니다 자식을 뛰어넘은 새 세대의 마음으로
 훈장에 어려오는 그 정신을 존경합니다
 그 정신으로 아름다운 한생을 존경합니다

둘러보면 아버지들의 훈장이
 야시장당반우에서 흥정되는 나라도 있다지만
 우리에게엔 어디 꿈에나 있을법한 일입니까

아버지들의 한생이 유산이 되어 전해질
 훈장에 녹이 앉지 않게 때가 앉지 않게
 걸음걸음 열렬할 생각뿐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그 길에 불판이 막아서도
 창끝이 일어서도
 우리 갈림길을 내지 않으렵니다
 결코 작은 오솔길도 내지 않으렵니다

아, 먼길을 끝추 가야 할 우리결에
 아버지세대는 있어야 하기에
 장수를 바라며 잔을 올릴 아버지60돌생일날!
 훈장을 다는 이 자식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자존심

가로수 설레는 거리에 나서도
 크고작은 상점의 문을 열어도
 언제나 긍지론 생각은
 모두다 우리것이다!

너인들 쓰는 작은 바늘로부터
 하늘높이 솟은 만톤프레스까지
 모두다 우리 만든 우리것이니
 마음은 하냥 즐겁구나

허나 마음은 즐거워도
 누가 만약 만족한가 물으면
 나는 대답하리
 만족하지는 않다고

상품이 매대에 더 많이 쌓이고
 기계들은 더 자동화되고
 쌀은 더 폭포처럼 쏟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

허나 그때에 가서도 누가 나에게
 즐거운가 물으면 지금처럼
 만족한가 물으면 그것도 지금처럼
 나는 대답하리

남에게 뒤지는것은 싫어
 오늘에 만족하는것도 싫어
 우리의 영예는 앞서 달리는것
 우리의 투쟁은 래일을 위한것

즐거운 삶을 안고
 더 좋은 래일을 지향할 권리
 나에게 준 사회주의!
 그 고마움 나의 자존심을 불붙여주누나
 참으로 할일이 많음을 깨닫게 해주누나

사회주의 너를 지켜

총대로 지킨다고 하더라
쌀로 지킨다고 하더라
그러면 병사가 아닌
농장원이 아닌 나는

항시 나를 떠미는 이 물음
행진곡처럼 들으며 들어서노라
사회주의 고운 꽃송이들이 피는
나의 일터는 성스러운 교단

미래가 숨쉬는 작은 가슴들을
강철처럼 참대처럼 키우며
날마다 몹시도 바쁘다!
발밑에 불붙어 뛰는 나의 사업

이슬털며 나선 길 밤 별이고 걸을 때면
의례히 많아지는 할 말
누구나 귀기울여 들을수 있고
아이들도 못잊어 새기게 되는

빛내이자고 부르던 조국을
지키자 사회주의라고 부르며
격양된 가슴들 급행으로 달리는 오늘

더 밝게 피우는 아이들의 웃음으로
내 지키는 사회주의여

침로를 정한 전투함선
구실 못하는 나사못 하나라도 있다면
파도높은 항행길 어이 고속으로 달리랴
나는 사회주의 그 함선의
작은 나사못 하나
날마다 조여감는...

오, 강철로 지킨다고 하더라
석탄으로 지킨다고 하더라
허나 오늘날 사회주의 지키랴
나는 그 전선의 교대자들을 키운다
사회주의는 그 모든 전선이 다 중요하다

오늘 누구나 자신이
세상앞에 사회주의로 대표되기에
한사람 한사람이 성세되어 솟아오른
우리 일심단결의 성들을 이루기에
그렇다, 누구나 자신의 심장에 불을 담으라
거목의 자람참은 천만잎새 푸르름이다!

나도 한 병사의 아버지

리종덕

금강산발전소 건설전투장
네가 그곳에 있다는 그날부터
금지와 자랑으로 가슴 부풀었다
나도 그곳 한 병사의 아버지로

입대후 소식을 기다렸더니
경애하는 장군님 다녀오신
영광의 전투장에
네가 바로 있었구나

군대나간 아들의 편지는
아버지들의 더없는 기쁨이지만
네 쓰지 않아도 좋았다
온 나라에 전해지는 위훈속에서
아들의 소식을 들을수 있는
나도 그곳 한 병사의 아버지거니

그동안 몰라보게 키도 자라고
어깨도 역세여졌겠지만
위용스러운 언제의 높이에서
아들의 성장을 뿌듯히 느끼는
이름못할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

금강산발전소 건설전투장
위훈의 병사들과 함께
내 아들이 병사의 날개를 펴고있어
마음속에 뜨겁게 차지하고있는
자랑의 지명이어

아,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린
승리의 보고에서
내 아들의 목소리로 새겨들을
그 행복이 나에게도 있구나
나도 그곳 한 병사의 아버지거니

1

군관들이 퇴근준비로 술렁대는 그 시각이면 현회중위는 본부청사의 층계를 오르군한다.

이 시간에 그는 려단장 신태준에게 주사를 놓아야 했다.

단정히 눌러쓴 군모, 그밑으로 물결쳐내린 함함한 머리, 가름한 얼굴에 시원스레 쪽 빠진 목, 희디흰 목달개며 동그스름한 어깨, 날씬한 허리를 가튼히 조여맨 혁띠며가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미와 담차고 씩씩한 군인미를 잘 조화시켜주는 듯싶었다.

눈앞으로 획- 하고 탁구공이 날아지나갔다. 복도홀에서 탁구를 치던 참모부서 총각군관들이 현회를 뻔뻔스레 마주보며 《도발》을 걸어왔던것이다. 그런데 당사자인 현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의 눈길이며 몸에서 차갑고도 땀싸게 서려도는 도고함과 침착성에 멎적어지고 싱겨워난것은 오히려 그들이었다.

《여, 서둘러 건드리지 말게. <아바이>가 알면 큰 일이야.》

참모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사내들이란 저리도 비위투성이고 심술궂은 존재들인가싶었다.

현회는 저도 모르게 가는 한숨을 토했다. 방금 이리로 오기전에도 자신은 한 총각군관에게서 비참할 정도로 일방적인 《폭탄》공격을 받지 않았던가. 그것이 지금도 뇌리를 아프게 쏙신다. 가슴속에서는 강렬히 도전해나서고싶은 충동이 치미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억울함과 안타까움으로 가슴태우며 려단장 사무실에 들어섰다.

태준려단장은 얼굴에 한가득 비누거품을 바르고 거울앞에 서서 면도를 하고있었다. 현회는 창가옆쓰파에 다소곳이 앉았다. 력밀의 수염을 밀어내던 태준은 칼이 먹지 않는지 손바닥에 대고 탁탁 쳤다. 그 스텐칼은 태준이가 몹시 애용하는 것인데 날이 무척 크고 가슴이 서늘할 지경으로 예리했다. 태준은 수염밀던 손을 멈추고 현회의 정상이 아닌 거동을 뜨아해서 바라본다.

《중위, 무슨 일 있었소?》

현회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준의 주름깊은 눈가에 그의 심중을 가늠해보려는듯한 사려가 어리었다. 현회는 그냥 머뭇거리기만 하였다.

《허- 이런...》

리정수

태준은 들고있던 수건으로 코밑을 뺨 문지르며 쓰파에로 다가왔다. 그는 현회의 어깨를 다정히 잡아 옆에 앉히며 물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러나. 응?》

이럴 때면 어깨에 왕벌을 단 호랑이장령이 아니라 딸의 어떤 응석과 어리광도 곧잘 받아주는 너그럽고 인자한 아버지같았다.

《려단장동지, 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만해야 현회는 가슴속에 쌓인 분함과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글쎄 덮어놓구 목조르기 합니다.》

《응? 목조르기?》

태준은 와들 놀랐다. 부리부리한 그의 긴 눈섭이 곳곳이 일어섰고 커다란 눈동자가 똑 정지된 채 뚫어지게 현회를 뜯어본다.

《누가말이요? 그게 어떤 녀석이야.》

현회는 입술을 옥물었다. 심란해진 마음을 다 잡지 못하고 경망궂게 노는 자신이 못내 민망스러워났다. 그는 갑자르다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전, 전 조금전에 어이없는 <폭탄>을 받았습시다. 1중대의 그 미옥한 사람이 오늘저녁까지 대답 안하면 절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미옥한 사람이라니? 거 1중대 박경흠소대장말이요?》

현회는 머리만 끄덕였다. 태준의 얼굴이 우습강스레 이그러졌다. 입을 행하니 벌린채 그는 웃지도 노하지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현회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천진하고 응석넘친 그가 척 군모를 쓰고 어깨에 별을 달고 다닌다는게 막 신기해났다. 태준은 코등을 쑥 문지르며 꺄꺄 웃었다.

《그 녀석이 <폭탄>공격을 한단말이나?》

그건 사실이였다. 현회가 군의소에서 한참 주사기를 소독하는데 전화종소리가 울려와 무심결에 송수화기를 들었다. 퍼그나 귀에 익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현회는 불에 덴것처럼 놀라며 수화기를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눈길로 쏘아보았다.

《현회, 내가 물러설줄 아오? 난 지금까지 후퇴란 모르고 살았소.》

《경흠동지, 자신이 무례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에익! 동문 돌이야. 돌!》

현회는 억이 막혀 말도 나가지 않았다.

《이것보우, 저녁 10시까지 무조건 대답하오. <사랑한다> 이거면 다요.》

얼마나 철면피하고 무분별한가. 현희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격분에 차서 소리쳤다.

《모욕하지 마세요. 어쩔 동무는...》

《아니, 난 <준비사격>을 했을뿐이요. 이제 곧 <전면공격>이 시작될것이요. 그러면 나를 당해낼 것 같소?》

《뭐 뭐라구요? 이 동무가...》

현희는 입술을 바르르 떨며 수화기를 떨구었다.

박경흠소대장, 그는 런던적으로 소문난 총각군관이다.

성미가 불같고 손탁이 드셀뿐아니라 배짱이 보통이 아니었다. 지금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려단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여는 가장 어렵고 간고한 수직갱건설을 하고있는데 굴진속도에서 경흠의 소대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런던 순회우승기는 그의 소대가 《독점》하고있었고 런던장의 감사만도 3차례나 받았다. 이런 경흠에게서 불의에 사랑의 고백을 받은 처녀는 분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어찌할바를 몰랐다.

원래 경흠은 현희의 신병훈련때 사관장이었다.

그때 현희의 기억속에 새겨진 경흠은 성미가 칼날같고 사업에서 자그마한 융통성도 모르는 까다롭고 만만찮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첫 군사복무의 걸음마를 떼는 때라 현희는 경흠에게서 진땀을 많이도 뺐었다.

현희가 군의학교를 졸업하고 런던군의소에 배치받았을 때 그들은 몇년만에 만났었다. 처음 현희는 몹시 우쭐하며 무슨 암호같은 소리를 하는 낯선 군관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군의동무, 아침검사를 하였습니다니까?》

《예?!》

《별은 마음속에서부터 빛나야 합니다.》

순간 신병훈련의 첫 지휘관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런데 앞에는 짙 벌어진 어깨에 별 두개를 단 림름한 체구의 군관이 우뚝 서있지 않는다.

그만에야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놀라움, 반가움, 깊은 추억과 감회, 한순간에 너무도 아름다운 기쁨이 가슴의 흉벽을 두드려와서 현희는 어쩔바를 몰랐다. 그러다 일결에 뜰어보았다. 역시 옛날의 변함없는 규정사관장이었다. 다름아닌 그가 쓴 동그런 군관모에 똑바로 붙어있는 모표의 별은 눈부시게 빛나고있었다.

그후 경흠은 이따금 현희에게 다녀갔다. 현희는 언제나 진실한 우정속에서 그를 대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경흠이가 우정이란 관계를 뛰어넘어 아직은 현희에게 생소한 미지의 세계, 사랑이란 엄청난 《포성》으로 처녀의 겹겹이 두른 차단물을 마스기 시작하였다. 너무도 단도직입적이고

전격적이어서 미처 리성을 가늠 틈도 없었다.

몇달전 현장군의소에 나가 드바쁜 나날을 보내던 현희는 뜻밖에 찾아온 경흠을 만나게 되었다. 여느때와는 달리 경흠은 행동거지가 무척 허둥거리고 하는 이야기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얼토당토한 소리만 하면서 현희를 어리둥절하게 했고 지어는 야릇한 불안과 우려를 느끼게 하였다.

그들은 수직갱건설이 한창인 전투현장을 뒤에 남기며 광차레루길을 따라 걸었다. 석수와 감탕에 부대끼고 찌는듯한 해빛에 타서 구리빛이 도는 경흠의 얼굴이 별스레 번들거렸다. 숨소리도 여느때없이 거칠고 가빠했다. 그는 문득 섰다.

《저... 현희, 이 광차말이요.》

그들앞에는 권양기바줄이 끊어져 레루에서 탈선된 광차 한대가 금시 넘어질듯이 위태롭게 기우뚱 서있었다. 현희는 경흠이가 광차를 바로 세우자고 부르는줄 알았다. 그런데 경흠은 공중으로 들리운 광차바퀴를 발로 툭툭 돌리며 의미있게 현희를 바라보는것이였다. 현희는 그의 눈에서 섬광같은 불꽃들이 이글거림을 느꼈다. 어쩐지 마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이자리를 얼른 뜨고싶은 심정이였다.

《아니, 가령 말이요. 난 이런 생각을 줄곧 해보오. 나와 동무가 한광차를 타고 끝없이 뻗어간 두줄기 레루우로 힘차게 달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고말이요.》

심장이 똑- 하고 밟는듯한 느낌이 든다. 현희는 경흠이가 불시에 미워났다. 또 분했다. 이런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따라다닌게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웬일인지 경흠이가 팔소매를 책 걷어올리고 커다란 손바닥에 침을 뱉으며 나섰다. 현희는 저도 모르게 뒤걸음쳤다.

《두줄기 레루는 사림점없는 무한대의 평행선이요. 오직 광차만이 그 두선을 이을수 있거던.》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경흠은 광차의 밀동을 단단히 잡더니 공- 하고 힘을 썼다. 그러자 광차몸체가 앞으로 쏠리며 움쉴하더니 탈선된 바퀴가 덜커덩 레루우에 정확히 들어앉았다.

대뜸 현희는 낮빛이 하얗게 질리였다.

이 일을 어찌면 좋담. 아이, 알미운 광차! 현희는 망연자실했다.

경흠은 몹시 갑자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저 직선치기요. 하긴 이게 좋지. 예돌줄 모르는게 무슨 흠이겠소. 단지 동무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리해하겠는지... 난 말이요. 현희가 일생을 군복입고 살려는 나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대하고 도와줄- 한마디루 일생을 같이할 전우라고 생각하오.》

《어마, 동지는 무슨 권리로, 누가 이러라고...》

현희는 당황히 부르짖었다. 이것이야말로 처녀의 깨끗한 순정을 앗아보고 덤벼드는 후안무치한 언행이 아닌가.

《다시는 그런 말을 입밖에 내지 말기 바랍니다.》

현희는 속눈썹을 콧콧이 추켜들고 단호히 돌아섰다.

《아니, 그건 무엇때문에...》

낮빛이 거뭇게 되어 경흠은 마구 헤덤벼쳤다.

현희는 마음이 피로웠다. 깊은 이해와 믿음으로 이어졌던 우정에 이 상서롭지 못한 일로 하여 도저히 메꾸기 어려운 심연의 바다가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서글프고 안타까웠고 경흠이가 밋살스러웠다.

《음! 좋구만. 좋아.》

태준려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앞으로 가더니 비누팩에 담아놓은 솔로 또다시 얼굴에 비누칠을 하기 시작했다. 어리둥절해진것은 현희였다.

《뭐 여러말 할게 있나. 현희에게만 과남한 청년이야. 어디를 뒤져봐야 그런 대장불 못만나. 그런데 제발로 굴러온 복을 차던지다니...》

《아이참! 어쩔 러단장동진?!》

태준은 싱긋이 웃었다.

《지금까지 잔뜩 값을 올렸으니 됐어. 이젠 풀어주라구. 사실 경흠은 훌륭한 지휘관이요.》

현희는 금시 울상이 되어버렸다. 흑폐려 왔다 가 오히려 붙이는 격이 되고말지 않았는가.

책상위의 전화가 울리었다. 태준려단장은 수화기를 들었다. 차츰 그의 낯색이 어두워지고 불편에서는 푸들푸들 경련이 일어났다. 이윽고 수화기를 놓았으나 태준은 까딱 기척이 없었다. 그는 짹 짹 주먹으로 책상을 눌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먹이 책상위에 놓아둔 면도칼 가운데대를 무섭게 짓누를줄이야. 태준은 흠칫했다. 그의 손에서는 샅시에 검붉은 피가 솟아나왔다.

《어마, 러단장동진!》

간이 쿵알만해져서 서있던 현희는 다급히 달려갔다. 그제서야 현희의 존재를 알아본 태준은 어금이를 지그시 깨무며 부르짖었다.

《장군님께서는 대원들을 참된 병사로 키우라고 별을 달아주셨는데 그것을 잊다니?...》

《네?!》

2

려단장 신태준을 것처럼 격노하게 만든 경흠의 일은 이렇게 일어났다. 그날은 중대가 새로 나온 예술영화를 관람하게 되어 막장에서 굴진하던 소대들은 명령을 수행하고 철수하였다. 그런데 경

흠의 소대만은 좀처럼 막장에서 나올줄을 몰랐다. 마지막고비에서 전투를 다그치던 소대가 뜻밖의 권양기고장으로 일시 주저앉게 되었던것이다. 권양기가 다 수리되었을 때는 이미 영화관람시간이 눈앞에 박두했다. 하는수없이 소대는 버력광차들을 막장에 남겨놓은채로 전투에서 철수하였다.

저녁총화에 참가하였다가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경흠은 좀처럼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전투복을 차려입고 막장으로 들어갔다. 저녁식사가 끝난후 소대총화를 지으려고 모였던 대원들은 그제서야 경흠이가 막장에 내려간것을 알고 다급히 전투장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현장에 이르니 경흠은 어렝이로 광차에 버력을 퍼담고있었다.

《소대장동지...》

부소대장은 자책감에 사로잡혀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경흠은 땀발이 돋은 얼굴로 주위에 둘러선 대원들을 둘러보았다. 하더니 절절한 어조로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난 동무들이 이럴줄은 몰랐소.》

경흠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말없이 손에 호빠를 들고 버력덩이를 어렝이에 담기 시작했다. 누구도 말릴념을 못했다. 엄한 질책과 꾸중보다 더 마음을 달구는 경흠의 행동에 그제서야 대원들은 팔소매를 걷어올리며 일에 달라붙었다.

얼마후 광차들에 마지막 버력무지까지 말끔히 싣고나서야 경흠은 대원들에게 입을 열었다.

《소대는 처음으로 명령수행에서 에누리를 했는데 책임은 지휘관인 나에게 있소.》

《아니, 소대장동지...》

다급해진 부소대장이 황급히 소리쳤다. 그러나 경흠은 무겁게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소대장인 내가 구실을 똑바로 못해서 전투조직에 빈틈이 생겼고 결국 정전사고까지 나서 소대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소.》

대원들은 심한 자책에 고개를 떨구었다. 이윽고 경흠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길마다에는 믿음과 신뢰의 정이 뜨겁게 빛날쳤다.

경흠은 부드러운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난 자신을 용서 못하겠소. 그래서 버력을 다 끌어내고야말겠소. 동무들은 규정시간대로 군중문화오락을 하오.》

《같이 광차를 들어낼것을 제기합니다!》

1분대장이 뜨거운것을 삼키며 소리쳤다. 그러자 약속이나 한듯이 대원들이 광차에 달라붙었다. 이어 페루장과 부딪치는 광차바퀴소리가 막장안을 드르렁 울리었다. 그들이 사갱페루에까지 이르러 권양기바줄을 걸고서 광차를 올려보내려는데 별안간 기계동음이 푹 멎더니 정전이 되었다.

너무도 공교로운 일이었다. 경흠은 안전모의 전지를 켜고서 대원들을 살피었다.

《누가 상한 동무는 없소?》

대답대신 모두가 락심천만해서 갑자르며 서있었다.

《제길, 요대목에 와서 하필이면...》

누군가 투덜거리는데 갑자기 부소대장이 나서며 광차에 련결된 권양기바줄을 어깨에 메었다.

《내친김에 동무들! 인력으로 끌어올리시오.》

그러자 대원들은 누가 어쩔새도 없이 광차에 달라붙었다. 경흠은 별스레 눈곱이 확 달아올랐다. 마치 자석에라도 끌린듯 그는 저도 모르게 광차벽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1211고지에 직사포를 끌어올린 용사들처럼 소대앞으랏!》

전신에 억제할수 없는 힘이 우적우적 솟구쳐 경흠은 웨쳤다. 그러자 대원들은 막장이 떠나갈듯 그에 호응하며 한치한치 사갱을 톱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일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킬줄이야...

누구보다 노한것은 태준려단장이었다. 일부 지휘관들이 사상투쟁회의때 리해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준은 엄하게 추궁했다.

《병사들 한사람한사람은 천금주고 살수 없는 혁명동지라고 장군님께서서는 간곡히 가르치셨는데 소대장이 그것을 망각하다니... 동무는 웅당 그 전투를 중지했어야 했소. 정전이 된 사갱으로 광차를 끌어냈다는데 그것이 대원들에 대한 사랑이고 믿음인가?》

경흠은 일언반구도 못했다. 그는 심각한 자기검토를 하게 되었고 자기 직무를 정지당하였다.

현희도 충격적인 이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때부터 그가 정겨운 미소도, 은방울 굴리듯하던 웃음도 싹 잊은것이였다. 물기를 머금은듯 긴 속눈썹이 축축한 눈은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감추느라 늘 내리깔았고 얼굴에는 수심이 비끼였다. 이제 와서 경흠이와 조금도 관련이 없다고 도리질한다는게 얼마나 속된 자기 기만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경흠이가 야속했다.

어느날 현희는 경흠의 중대어로 예방주사를 놓으러 가게 되였다.

전투현장은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하늘을 찌를듯이 우뚝 선 탑식기중기가 갭안에서 석수가 철철 흐르는 쇠바가지들 물어올리고는 빙그르 팔을 돌려 커다란 산을 이룬 버럭무지에 쏟고있었다. 대형헬프며 혼합기가 돌아가는 고르로운 동음, 수직갱벽체타임을 하느라 물탈을 실은 광차를 밀며 달려가는 전투원들의 땀뻘 모습들, 뽕양게 먼지를 날리며 연방 드나드는 자동차의 행렬로 붐비고있었다.

현희는 타입장영에서 주사를 놓기 시작했다. 분대별로 달려온 대원들에게 일일이 주사를 놓으면서 전투장 이곳저곳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안

타카이 찾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아이, 내가 왜 이럴까?)

왜서 경흠을 찾고 헤매며 안절부절을 못한단말인가. 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허나 이것은 한순간이였다. 눈길은 어쩔수 없이 현장으로 향하였다.

이때 직감적으로 안겨드는 딱관같은 잔등을 보았다. 가슴이 널뛰듯 오르내렸다. 내리깔려고 모지름 쓰던 눈길은 그 모습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테루우에 광차를 세워놓은채 경흠이가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맨 머리, 검붉은 굵은 목, 땀발이 번지르르한 런닝그를 걸친 넓은 잔등, 그는 수긋하니 고개를 숙이고 뭔가 열심히 문대고있었다.

한참후 그는 일손을 멈추고 투박한 손으로 앞이마를 덮은 머리를 쓸어올리며 단정히 군모를 썼다. 그 찰나 해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붉은별이 현희의 눈에 안겨들며 찌릿한 추억이 가슴속에서 치밀어올랐다.

6년전일이다. 깊은 밤, 사납게 울부짖으며 비바람이 휘몰아치던 그날 현희는 신병훈련의 첫 군무를 썼다. 그가 보초교대를 하고 위병소에 들어오니 경흠은 반가이 맞아주었다.

《어때, 첫 군무가 빠르나?》

현희는 자신에 대한 긍지를 느끼며 방긋이 미소지었다. 위병일지를 펼치고 군무보고를 받으려던 경흠이가 일순 낯색을 흐리였다. 현희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경흠은 자신의 군모를 벗었다. 그 모자도 흠뻑 비를 맞아 푹푹 물방울이 떨어졌다. 유독 모표만이 유난히 빛나고있었다. 경흠은 현희의 군모를 벗게 하더니 자신의 모자와 나란히 세워놓았다. 그런데 현희의 모표는 별이 뿌연게 흐려있었다. 빛나는 별과 흐려진 별, 실로 대조적이었다.

《현희 가슴에 뿌로찌를 달아봤소?》

현희는 식은땀이 났다.

《아마 그 뿌로찌는 비바람을 맞아도 빛날거요. 그런데 이 별은 뭐요?》

현희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얼마후 군무교대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현희는 너무도 피곤하고 힘든지라 곧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기상나팔소리가 랑랑히 울린후 현희의 소대병실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한것은 분대전원의 모자가 없어졌던것이다. 곧 직일병이 불리워왔다. 그는 연방 따져묻는 동무들을 어이없이 흘려보더니 사관장이 있는 사물고쪽을 가리켜보였다.

그때 모자를 한아름 안은 경흠이가 싱글벉글하며 병실로 다가왔다. 현희를 비롯한 대원들은 움직일줄을 몰랐다. 간밤 비바람에 흠뻑 젖었던 모자는 간데없고 다림발이 선데다 유난히 빛나는

붉은별의 모표가 세차게 눈을 찔렀다.

《사관장동지!...》

현희는 한가슴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무한한 존경과 고마움에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는 경흠이가 광약까지 발라서 나누어주는 모표담가를 어떻게 받아줬는지 모른다. 귀전에는 친오빠의 다정하고 웅심깊은 목소리인양 경흠이가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들리어왔다. 《명심하오. 우리들이 군모에 다는 모표는 장식품이 아니요. 그러니 별은 마음속에서부터 빛나야 하는거요.》

이 참 뜻을 그후 어엿한 군관으로 자라면서 현희는 심장으로 느낄수 있었다. 하다면 어제와 오늘의 변함없는 경흠의 저 모습은 과연 무얼 의미하는가.

갑자기 와하- 하는 웃음소리가 터졌다. 어느새 전투장 가운데서는 소대간의 무릎싸움이 벌어지고있었다. 넓은 공지를 훌쩍훌쩍 뛰면서 서로 맞붙어 찢고 찢으며 돌아가는 광경은 가관이였다. 절로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다.

《아- 한쪽으로 쏠리지 말구 한사람씩 말으라구!》

이렇게 소리치며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은 허우대가 큰 경흠이였다. 그는 온순한 말무리에서 유독 갈끔질하며 성미사납게 노는 가라말 같았다. 통나무같은 다리를 번쩍 쳐들고 맞다드는 대원들마다 내리치고 받아넘기고 할 때마다 사방에서 환성을 올렸다. 여러명의 대원들이 경흠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는 이윽히 틈을 엿보다 후닥닥 돌입하며 다리를 휘둘렀다. 그바람에 몇명은 미처 어찌지도 못하고 넘어졌다.

《허- 저런...》

그때까지 옆에서 구경만 하던 태준려단장은 더는 참지 못하고 육중한 체구를 흔들며 경흠에게 육박하였다.

《경흠동지, 습격입니다!》

전사들이 발을 굴렀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태준려단장은 경흠의 공둥이를 낚다 들이쳤다. 급소를 맞은 경흠은 위태롭게 기우뚱하다 더는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모래무지예 머리를 들이박았다. 주위를 들었다놓는 폭소가 터졌다. 한참만에 푸푸거리며 경흠이가 머리를 들었는데 모래알갱이가 얼굴에 한가득 붙어서 커다란 지도를 그려놓았다.

《반칙입니다. 반칙!》

경흠은 네발걸음으로 다가와 태준려단장의 두 다리를 잡았다.

《다시 합시다. 딱 한번만!》

경흠은 마른침을 꿀꺽 삼키였다.

《무슨 소리, 여기엔 흥정이 있을수 없어. 엄연히 진거는 진거니까...》

태준려단장은 절절 웃으며 은근히 오금을 박았

다.

《예? 야 이걸 정말 죽여주누나...》

경흠이가 두눈을 딱 감고 주먹으로 앞가슴을 치는바람에 모두들 눈물까지 찔끔 짜며 웃었다.

현희는 얼결에 뒤통수를 한대 맞은것처럼 멍해졌다. 너무도 배포유하지 않는가. 천성이 주눅과 우물을 꼬물만치도 모른다고 하지만 저렇듯 웃고 떠들며 대원들과 허물없이 어울릴수 있단말인가? 자신을 엄격히 처벌한 태준려단장하고도 어별이 크게 노는 자체가 그의 됴됨을 새삼스레 느끼게 했다.

현희는 받은 충격이 너무도 컸다. 여적 자신이 상상하고 그러보던 경흠은 수치와 모멸에 가슴저미며 남들의 눈을 피해 번민속에 모대기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눈앞의 경흠은 예상외로 한점의 그늘도 없었다. 가슴이 확 열리며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또다시 다른 분대가 왔다. 얼른 주사기에 새바늘을 끼우고 약솜을 든 현희는 고개를 들다 흠칫했다. 분대의 맨끝에 키가 구척같은 경흠이가 서있는것이 아닌가. 현희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깔끔하게 찌른다는등, 죽여주게 아프다는등 하는 희뻘게 떠드는 병사들의 룡질과 웃음소리도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굵직한 팔이 쑥 코밑으로 들어왔다. 말없이 부여잡고 약솜으로 닦아내고 주사기를 드는 순간 현희는 경흠의 타는듯한 시선을 느꼈다. 그의 배심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흥분이 전류처럼 느껴져왔다. 현희의 검은 눈동자가 들곳을 몰라 갈팡질팡했다. 바르르 손끝이 떨렸다. 그는 얼결에 바늘로 경흠의 팔을 쿡 찔렀다.

경흠의 지그시 잡은 커다란 주먹이 확 눈에 안겨왔다. 그 솔뚜경같은 손에 정말 움짱을 못하고 잡혔단말인가.

현희는 매시시 손매이 풀리였다. 이마며 코등에 팔알같은 땀방울이 한가득 내뿜었다. 어지럼증을 만난 사람처럼 다리가 휘친거려 주저앉고만 싶었다. 말없이 자리를 뜬 경흠은 광차를 밀며 레루우로 씨엥씨엥 걸어갔다.

얇미운 광차, 솔뚜경같은 주먹, 해빛을 머금은 오각별이 엇바귀며 눈앞에 언듯언듯 다가들었다. 타는듯한 시선이며 충혈진 눈동자, 거친 숨소리가 온몸을 휘감는다.

불현듯 가슴속에서는 부드럽고 애뜻한 새싹이 봄풀마냥 파릇파릇 돌아나 점차 무성한 아지를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는 막을수 없는것이였다. 현희는 어쩔수 없이 경흠의 《포로》가 되어 버리는 자신을 깨닫자 영문을 모를 울음이 북받쳤다.

칠흑같은 어둠, 안개가 뽀얀 물의 바다를 뚫고 승용차는 질풍같이 달렸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맹수의 울부짖음같은 모진 바람이 미친듯이 태질하고 대줄기같은 소나기가 억수로 퍼부어내렸다.

《전방치료대는 전투준비를 하고 대기하오!》

승용차가 1중대 수직갱건설장에 들어서자 태준려단장은 현희에게 지시했다.

건설현장은 사태가 험악했다. 벌써 늑가를 넘어서 비물이 세차게 범람하며 단야장쪽으로 와와 사뭇쳐 쓸어들고 그것을 막느라 전투원들이 모래가마니며 통나무를 메고 달려갔다. 세멘트창고와 탈의실 지붕이 반나마 날려가고 공구창고의 벽체가 와르르 무너졌다. 사방에서 기름방치들이 활활 타오르며 어둠을 밀어내는 속에서 각종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전투를 지휘하던 기술부중대장이 태준려단장에게로 허겁지겁 달려왔다.

《어떻게 됐대요?》

어성은 높지 않았으나 칼날처럼 예리하고 엄했다. 기술부중대장은 너무도 험악한 사태라 턱만 덜덜 떨었다.

《동문 지휘관이 아니요. 정황을 보고하오!》

《지금... 갱이 위험에... 끝내 망할놈의 류사충이 터졌습시다!》

《뭐라구?!》

태준려단장은 관자노리에 피줄이 꿈틀하고 곤두서는감을 느꼈다.

류사충, 그것은 수직갱건설에서 암초와 같은 것이었다. 한번 터지면 갱통도 사람도 단숨에 삼켜버리며 횡포하게 요동치는 류사충을 두고 탄광사람들은 지하의 《악마》라고 불렀다. 바로 그 《악마》가 사납게 표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태준려단장은 수직갱쪽으로 달려갔다. 벌써 깊숙이 땅속으로 뻗어내려간 수천톤의 영구갱통은 움썹움썹 움직이고 있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한단말인가?)

태준려단장은 눈앞이 아득해와 전신을 떨었다. 문득 뇌리를 치는 생각이 있었다.

《대원들은 어떻게 됐소?》

《철수시켰습시다.》

(그러니까 후퇴란말인가? 후퇴...)

가슴이 솟덩이처럼 까맣게 타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가슴치는것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날자까지 수직갱을 석란층에 도달시킬수 없게 된다는데 있었다. 그걸 의식하느라니 가슴이 썩썩했다.

사실 이 수직갱건설은 당의 새로운 혁명적경제 전략을 관철하는데서 돌파구를 여는 생명선과 같은 것이었다. 온 나라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억센 기상을 떨치며 원료, 연료의 핵인 탄을 절박히 요구하고있는 지금 이 수직갱건설이 빨리 추진되어야 수백억톤이나 매장되어있는 고열탄을 폭포처럼 캐낼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어렵고 방대한 과제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고 산악같이 일떠선 군인건설자들에게 맡겨 주신 것이다.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과업을 자기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으로 받아안고서 용약 자연과의 투쟁에 떨쳐나섰건만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은 너무도 상상을 초월하였다.

어느덧 갱 주변의 땅들이 지진을 겪듯이 으름으름 진동하기 시작했다. 수직갱전체가 대자연이 쥐고노는 오토기마냥 흔들리고 삽시에 지각이 켑켑 갈라지고 뭉청뭉청 허리를 끊기우며 홍수에 사태지듯 쓸어내렸다. 파괴적인 함락지진이 일어났 것이었다. 누구도 선뜻 갱 주변으로 나설념을 못하고 있었다.

《빨리 뽕프를 설치해서 류사충이 올려밀지 못하게 물을 채워야 하오.》

기술부중대장이 소대장들에게 명령했다.

《가만! 그건 아직 일러...》

《려단장동지, 갱부터 살려야 합니다. 지금 형편에서 방도는...》

《이것 보우. 갱안에 물을 채우면 류사충은 막으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날자에 수직갱을 탄층에 도달 못시켜!》

다치면 터질듯한 격한 숨소리, 숨막히는 침묵...

이때 누군가 간신히 갱밖으로 허우적이며 기여나왔다. 태준려단장은 아연했다. 온통 감탕에 범벅이 된 그는 사태지는 흙무지를 헤집으며 숨가빠 다가왔다.

《동문 뭐요. 철수명령을 못들었소?》

《기술부중대장동지, 지금 지각은 함몰되어도 수직갱통은 땅속으로 내려가고있습니다.》

그는 경흡이었다.

《경통밀의 칼날은 뜻밖에 조성되어 쓸어나오던 류사충의 흐름길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뭘 말하자는거요?》

《굴진속도를 류사충이 터져나오는것보다 두배로 높이면 얼마든지 수직갱통을 탄층에 도달시킬수 있습니다.》

태준려단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다짜고짜 경흡에게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그게 정말이요?》

경흡은 머리만 끄덕였다. 태준려단장의 두눈에

린같은 빛이 번쩍했다.

《안됩니다. 모험하다간 무슨 사고라도…》

기술부중대장이 태준려단장의 앞을 막아서며 두팔을 벌리었다.

《아니, 갱안에 물을 채우는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부중대장동지, 우린 죽으나사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날자에 류사충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동무가?!》

경악에 가까울 지경으로 기술부중대장은 어깨를 떨었다. 태준려단장은 으스스하게 경홉의 손을 잡았다. 목이 짹 메여 뭐라고 말이 나가지 않았다. 한참만에 그는 《해보자구!》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리에 경홉은 큰 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에 어쩐지 눈시울이 막 뜨거워났다. 태준려단장은 성난듯이 부르짖었다.

《아무렴, 피가 한동이나 되는 우리가 요만한 난관에 후퇴를 해. 안될소리…》

태준려단장은 절절히 말했다.

《이것 보우. 우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별을 달았소. 때문에 우리 별이 빛나고 존엄높은거요. 이거야 잊지들 않았겠지?》

기술부중대장은 가슴저미는 피로움에 머리를 돌리었다. 이때처럼 자신의 어깨에 단 별의 귀중함과 고귀함을 느껴보기는 참인듯했다. 경홉은 수직갱으로 달려갔다. 경홉의 뒤를 이어 결사의 각오를 다진 전투원들이 앞을 다투어 수직갱안에 뛰어들었다.

누군가 어깨에 비옷을 씌워주기에 태준려단장은 돌아보았다. 현희가 깊은 감동에 젖은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괜찮아…》

《저… 러단장동지…》

현희는 나직이 불렀으나 웬일인지 얼굴을 붉히며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왜?》

《아… 아닙니다!》

현희는 돌아섰다. 그러나 방금 걱정없이는 볼수없는 모습들에서 받은 충격으로 하여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는 그지없이 억세고 참된것을 보았다. 무죄도 녹일 열정을 지닌 고결한 인간의 높뛰는 고동소리를 들었던것이다.

썩-썩- 휘몰아치는 비바람도 세차게 달아오른 온몸을 식힐수가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남몰래 찾고 그리며 자신의 귀중한것을 깡그리 내맡기고 싶은 인간이 바로 저 경홉이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던말인가…

전투가 백열전을 이루며 진행되고있었다. 기증기가 쉽없이 로반우로 오가고 여러대의 대형뽑프가 설치되어 버력바가지와 판으로 꾸역꾸역 솟아

오르는 물과 류사충을 뽑아내었다. 전투원들은 허리치는 감탕속에서 허우적이며 결사적으로 연방 갱안에 들어온 쇠바가지에 버력을 퍼담고 뽑프관들을 터져나오는 물줄기에 직광 들이박았다. 이러기를 그 몇시간… 차츰 류사충이 줄어들고 수직갱통은 든든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동무들, 탄충이요!》

누군가 커다랗게 따낸 고열탄덩이를 하늘높이 쳐들었다. 전투원들은 저마다 그것을 와락 움켜잡았다. 감격과 환희에 넘친 그들은 갱안이 터져나갈듯이 만세를 불렀다.

경홉은 귀중한 보물을 안은듯이 그러잡은 고열탄덩이에 얼굴을 비비었다. 결국 자각된 인간의 뭉친 힘이란 얼마나 억세고 무궁무진한것인가.

웬일인지 다리가 쿵쿵 쏘아왔다. 아랫도리를 살펴보니 벌써 흥건히 피가 내배기 시작했다. 경홉은 참기 힘든 동통에 몸을 흠칫 떨었다. 몇시간전에 쇠바가지에 섬찍하니 들이맞은 생각이 났다. 그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간신히 사다리를 토했다. 밖에 나오니 태준려단장이 경홉을 뜨겁게 끌어안았다.

《동문 역시 별단 값을 하거든.》

다리의 동통은 점점 쭈서왔다. 한걸음 옮길 때마다 낮빛이 성난듯이 벌개지고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혹시? 의사의 눈과 감각이란 무척 예민한 법이다. 현희는 치료하던 대원을 간호장에게 맡기고 그의 뒤를 따랐다. 인적이 멀어지자 경홉은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 차츰 그의 걸음이 떠지더니 얼마 못가 모로 넘어지고말았다.

《어마. 저걸!》

다급히 달려간 현희는 다짜고짜 그의 바지가렁이를 걷어올렸다. 장판지에 살가죽이 터지고 찢겨져 피를 쏟고있는데 그 짊으로 허연 뼈가 들여다보였다. 현희는 확 소름이 끼쳐와 입을 싸쥐었다.

《누… 누구요?》

경홉이가 머리를 들었다. 두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쳤다.

《저… 상처를 보자요.》

현희는 간신히 말을 이을수 있었다.

《괜찮소. 조금 굶혔는데…》

심한 아픔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경홉은 상처를 감추려 했다.

《아이, 동문 정말!》

현희는 단호히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는 위생가방에서 약품을 꺼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하는수 없었던지 경홉은 두눈을 감은채 움짱을 안했다. 상처를 헤집고 닦아내는데도 신음소리 한마디 없었다.

이윽고 현희는 붕대를 감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봉대가 모자랐다. 무척 난감해난 그는 잠시 망설이다 주머니를 뒤졌다. 그의 손에 희디흰 손수건이 묻어나왔다. 그것을 펼치니 가운데 정성스레 수놓은 붉은 오각별이 빛나고있었다. 무척 애용하던 손수건이었다.

현희는 그것으로 상처를 마저 정히 싸맸다.

《고맙소…》

퍼그나 웅글은 낮은 목소리… 현희는 경흙을 부축하며 살뜰히 말했다.

《응급처치를 했는데… 심해요. 군의소로 가지요.》

그 소리에 경흙은 머리를 돌렸다. 현희는 불이는 그의 시선을 조금도 피하지 않았다.

《안되오!》

단마디로 짜르는 그의 목소리는 몹시 무뚝뚝했다. 경흙은 갑자르기 시작했다. 더구나 애무하듯 정겹게 빛나는 현희의 눈길을 대하게 되니 어떤지 몸가짐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지어 긴 팔마저 거치장스럽게 느껴졌다. 역시 자신은 처녀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인듯싶었다. 그리고 이다지도 당황하게 만드는 현희가 참으로 신비스럽게 여겨졌다. 그렇게 답이 크고 손탁이 세여 누구도 움쩍 못하게 잡는 커다란 주먹이 얼마나 무력한가. 경흙은 제풀에 화나고 멋적어졌다. 그럴수록 더 침착해지려 애쓰며 그는 당부하듯 말했다.

《현희, 난 이곳을 떠날수 없소. 이해하여주오. 그리구… 이렇게 된걸 말내지 말아주…》

경흙은 큰 발자국을 내디디었다. 다리가 몹시 아파왔다. 절뚝거리며 그는 걸어갔다.

《아… 아니?!》

현희는 어쩔수가 없었다. 리성은 그를 붙잡아 야 한다고 준절히 웨쳤으나 땅에 얼어붙은듯 두 발은 굳어져 움직일줄 몰랐다. 갑자기 마음 한귀퉁이를 잃은듯 허전해왔다. 자신이 고독해났다. 저도 모르게 두볼로는 소리없는 눈물이 흘러내리었다. 그의 동그스름한 어깨가 차츰 들먹이기 시작했다.

4

버드나무가지에 초생달이 걸렸다. 비릿한 냄새가 풍겨오는 늪가에는 잔잔한 수면위로 날아에는 곤충들을 겨누고 물고기가 켜병거렸다. 가느다란 하늬바람이 풀대며 버드나무잎사귀를 살포이 어루만져주며 씩씩이 불어왔다.

고요한 주위의 정적에 심취된듯 경흙은 깊은 생각에 잠겨 담배를 빨았다. 방금전 정성스레 빨아 병실에 걸어놓은 손수건이 눈앞에 밟혀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날밤, 상처를 싸맨 손수건을 보고 가슴후더운 생각에 좀처럼 잠 못이룬 그였다. 경흙은 그

손수건을 무심히 흘려보게 되지 않았다. 현희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지향이며 뜨겁고도 깨끗한 마음이 한뼘두뼘 수놓은 붉은별에 그대로 어려있는 듯하여 더없이 소중하게 안겨왔다.

자기도 무척 사랑한 별이었다. 그 별처럼 한생을 빛나게 살리라 했다. 그런데 어찌다 이런 수치를 남기였는가… 돌이킬수록 가슴치는 모멸에 얼굴이 뜨거워났다.

(제길, 그러니 퇴박맞을수밖에…)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다. 이제보니 사랑이란것은 너무도 까다롭고 풀기 힘든 수수께끼였다. 그러니 자신은 얼마나 무분별하고 어리석게 놀았던가.

흔히 사람들은 하늘의 별은 못판다고 했다. 그래서 자꾸만 쳐다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흙에겐 처녀의 마음을 휘어잡기는 그보다 더 힘든것처럼 여겨졌다. 티없이 순결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마음에 든다는것은 벌써 자신이 그보다 더 아득하고 훌륭한 높이에 설 때만이 가능한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밤길이 닿는대로 걸었다. 다리의 아픔도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세차게 끓어번졌다.

쿵쿵 어데선가 둔중한 기계의 동음이 들려왔다.

단야장이었다. 공기함마가 웅웅 돌아가며 방금로에서 꺼낸 시뻘건 쇠덩이를 두들기고있었다. 경흙은 공기함옆에 세워놓은 함마를 집어들었다.

《저… 소…》

엇그제까지 그를 소대장이라 부르던 병사는 엉거주춤했다. 경흙은 눈짓했다. 병사는 불길이가 글거리는 로에서 커다란 쇠덩이를 집게로 끄집어냈다. 살을 지질듯한 뜨거운 열기가 확확 단김을 뿜으며 온몸을 달아오르게 하였다. 경흙은 뼈마디가 울리도록 힘있게 함마로 내리쳤다.

얼마나 통쾌한가. 점점 눈곱이 축축해났다. 그래, 강철은 펄펄 끓는 천도 열속에서 나온다. 하다면 이 철의 대오속에서 내 어찌 역세고 참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을수 있으랴. 마치 자신을 새 인간으로 버려내는듯한 심정이였다.

《경흙동지…》

언제 왔는지 등뒤에서 현희가 소심한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고있었다. 경흙은 황소숨만 토했다.

그가 와주길 은근히 바라고 고대하였건만 진작 마주하고보니 가슴만 드놀뿐이었다.

어데선가 씨룩씨룩 풀벌레가 고요한 정적을 깨트리며 가락맞게 우짚었다. 조각달이 어느샌가 구름사이로 훌쩍 숨어버리었다.

등뒤에서 총총히 따라오는 현희의 발자국소리… 문득 다정한 부름소리가 가슴울렁이게 하며 귀전에 들려왔다.

《저… 치료하자요. 동문 환자예요.》

경흡은 우뚝 섰다. 이윽히 현희를 일별하던 그는 버드나무에로 다가가 등허리를 잡더니 지그시 내리쳤다.

《아니, 환자는 죽었소. 영영 없어졌단말이요. 난 다른 경흡이요. 새 인간이란말이요!》

현희는 목이 메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기쁨과 환희에 물결치고있었다. 한참만에 그는 나직이 부르짖었다.

《그래요. 동문 별 잃고는 못살지요. 한생을 군복 입고 우리 수령님과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들어 빛나게 살겠다는 동무가 아무렴, 다르게 될까요.》

경흡은 마치 꿈을 꾸는듯싶었다. 제발 이것이 생시의 일이었으면... 그렇다. 앞에는 크나큰 두려움속에, 그러나 숨죽이고 강렬히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그 처녀, 현희가 봉긋한 앞가슴을 널뛰듯하며 서있는것이다.

이때는 어째야 하는가. 말을 해야겠는데... 백번중, 천번중에서 고르고 고른 말, 단번에 처녀가 울고웃으며 안겨들고 영원히 잊을수 없이 새길 그런 훌륭한 말을 해야겠는데... 안된다. 못하겠다. 그저 이 가슴을 통채로 열어보인다면 몰라도 말로써야 어찌 다 표현하랴.

경흡은 버드나무를 짚고선채 우중충한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벽차오르는 무한한 걱정을 누갓히려 모지름췌다.

현희가 경흡의 다리를 따듯이 감싸쥐었다.

《치료... 하자요...》

울듯말듯한 그 목소리는 토막토막 끊어지고 세차게 떨리었다. 경흡은 그저 머리만 끄덕일뿐이었다. 서로 가슴속에 쌓이고 넘치여 마냥 터뜨리면 끝없을상싶은데 누구도 선뜻 그 소중한 환희롭고 열렬한 세계에로 들어서지 못하고 갑자르고 누갓히려고만 애췌다...

며칠후, 군의국에 약품타러 갔던 현희는 퍼그나 늦어져 본부청사의 총계를 다급히 올랐다. 숨가빠 러단장 사무실에 들어서니 태준은 빙그레 웃으며 원탁우의 주사기통을 가리켜보였다.

《나도 영뎡이에 주사를 놓을줄은 알거던.》

현희는 쑥스러워 살짝 얼굴을 붉히었다.

《그건 그렇구. 중위, 경흡이가 지금두 목조르기를 하는가?》

《예?! 전 모... 모름...》

수집음과 부끄러움에 현희는 어쩔바를 몰랐다.

《그녀석이 이번에 되게 혼쭐을 빼더니 단단히 정신차렸어. 현희도 옆에서 잘 도와주라구.》

말은 덜통스레 하면서도 은근히 오금을 박는게 뭔가 심상치 않았다. 하긴 원래부터 태준러단장은 경흡을 마다하지 말라고 훈시였지... 그러나 밀도끝도 없이 오늘은 왜 이런담...

착잡이 갈마드는 생각속에 군의소에 오니 치료

실 책상우에 뜻밖에도 낯익은 손수건이 놓여있었다.

(어마나, 이건...)

후두두 가슴이 떨려왔다. 현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었다. 누구도 없다. 유독 자기 혼자뿐이였다.

그럼, 한밤중의 흥두깨비처럼 이 손수건이 어떻게 여기에 왔을가. 혹, 경흡이가 왔다갔단말인가. 무슨 일로, 자신을 기다리지도 않고... 아이! 정 바쁘면 쪽지편지라도 써놓아야 할것이 아닌가...

현희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서야 다림발을 세워 포개놓은 손수건을 펼치였다. 빛나는 붉은별이 너무도 많은것을 속삭여주며 안겨왔다.

별! 여기에 정녕 한생의 참된 녀이 다 깃들어 있다.

불타는 지향! 세인을 놀래울 기적과 위훈, 끝없는 행복과 빛나는 영광이며 고귀한 영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있다.

현희는 개인소지품이 든 함을 열었다. 그속에서 붉고 푸르고 노란 실을 꺼냈다. 이어 바늘에 실을 꿰여가지고 덧수를 놓기 시작했다.

이러느라니 몽클 가슴한가득 젖어드는 생각이 있다. 참으로 이 별이야말로 자신에게 뜨거운 우정과 열렬한 사랑, 추호도 변함없을 굳은 믿음을 맺어주고 이어주고 꽃피워준 삶의 귀중한 씨앗이었다. 좋은 씨앗은 억세인 즐거울 뻔고 탐스런 열매를 맺으려 한다. 바로 이런 씨앗을 끝없는 대지 어머니품은 정히 보듬어안아 싹틔워주고 어버이태양은 꽃피고 열매맺게 따사로운 빛을 안겨준다. 정녕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 대지를 활보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삶을 빛내고있지 않는가.

별안간 조용히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현희는 깜짝 놀랐다. 번개같이 뇌리를 스치는 환희의 예감... 이어 겹쳐드는 불안과 우려, 실망... 조마조마한 가슴을 달래며 현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네!-》

문이 열렸다. 구척장신같은 육중한 체구가 성큼 문안으로 들어섰다. 구리빛얼굴에 넘치는 환한 웃음, 머리우에, 그다음 어깨우에 또렷한 오각별이 서서히 빛발쳐왔다.

《아?!-》

현희는 어쩔바를 모르며 수를 놓던 손수건을 떨구었다. 미구에 《혹-!》 하는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뜨거운 손길이 열렬하게, 차츰 으스러지게 현희의 물결치는 어깨를 억세게 그러안았다.

《난 몰라. 미옥쟁이 꿈같은거...》

현희는 공연히 헛손질만 하였다.

허균과 《홍길동전》

박병식

(전호에서 계속)

여기서 리이첨은 광해의 패륜(림해군, 영창대군, 김제남 등을 죽이고 대왕비를 가둔 허물을 의미함)의 오명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고 자기는 직접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 빨리 폐모론을 결속지을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래서 그는 허균과 이 문제를 여러차례 상론하였다.

허균은 그에 적극 응하는채하면서 이 기회를 노렸다.

정사(1617)년 정월 어느날 밤 허균은 무엇인가 풍자문 4구를 종이에 써놓았다.

다음날 인목대비가 유폐되어있는 서궁마당에서 익명투서가 발견되었다.

화살에 격문을 쓴 종이를 잡아매여 활로 쏘아넣은 투서였다.

이는 두말할것없이 허균이 전날밤에 구상하여 쓴 그 4구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비와 형을 죽인
서얼이 왕위를 침범하였도다
산천이 있을뿐더러
장차 원해도 이룰진대...

이 네구는 광해를 풍자한것으로 《아비와 형을 죽인 서얼이 왕위를 침범하였도다》 하는 문구는 곧 아버지의 장인 김제남과 형 림해군 그리고 동생 영창대군 등을 살해한 서자(광해군은 후궁 김공빈의 소생인 까닭에 서자라고 함) 광해가 감히 왕자리를 타고났었다는 말로서 광해가 가장 아파하는데를 찌른 구절이며 《산천이 있을뿐더러 장차 원해를 이룰진대...》의 문구는 산은 금산군 천은 구천군 원해는 원해군을 의미한것으로 세 왕자가 모두 광해의 이복형제들이다. 즉 다시말해서 광해왕을 키워도 이들 세사람의 후보자가 있지 않는가 하는 암시이다.

이렇게 광해왕을 비방하는 글을 인목대비가 보면 평시에 아버지와 아들을 역적으로 몰아 몰살시키고 자기를 서궁에 가둔 광해에게 원한을 품고있었으니만치 반드시 그에 호응하여나설것이라는것을 타산하였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인목대비에게 왕권전복을 기도했다는 죄명을 들쑤우면 소북파가 반대하여나설 구실이 없게 되어 《폐모론》을 성사시키고 아울러 복잡한 그 기회를 리용하여 거사를 이루어보려고 했던것이다.

그러나 인목대비는 이 글을 보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탄 사람에 의하여 발견이 되어 문제가 복잡하게 번져가게 되었다.

이 익명투서가 도대체 누가 한것이냐 하는 문제가 조정 백관들속에서 구구하게 논의되었다. 물론 누구나가 짐작은 하고있었으나 누구도 감히 아무개가 한것이라고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조정에는 좌의정 박홍구를 비롯한 허균과 동료의 리이첨과가 그득할뿐더러 사간 신헌업, 동지 김개, 포도대장 현응민과 김례직 등 허균의 심복들의 날카로운 눈이 서슬을 뽐고있었으니 뉘 감히 입을 열었으랴.

홍홍한 분위기속에 날이 흐르는데 어느날 령의 정 기자헌이 알쏭달쏭하게 쓴 은어쪽지가 조정내부에 나타났다.

《어떤 사람의 짓이고. 그토록 많은 설화를 쓰다니...》의 뜻으로서 이 글에는 《허》자가 두군데나 사용되었다.

다시말해서 허균의 짓이라는것을 암시하기 위해 억지로 문장을 만든것이라고 보겠다.

결국 기자헌은 이것으로 하여 분분한 물의속에 배겨낼것 같지 않아 스스로가 령의정을 내놓고 장릉으로 내려갔다.

허균과 리이첨은 상론하여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불러올려도 오지 않았다는것을 구실로 그를 평안도로 귀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렇게 되자 기자헌의 아들 기준격이 이를 원망하여 허균을 서궁사건의 장본인으로 지적하여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리이첨은 왕에게 기준격의 상소가 부당하다는 것과 함부로 사람을 무함하는 행동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왕명으로 즉시 그를 잡아다 심문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 상소의 내용을 묵살하고말았다.

그런데 무오(1618)년 윤사월에 진사 박영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이와 관련된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에는 서궁사건의 수사를 회피한 조정에 책임을 추궁하고 리이첨이 허균과 한동아리이기 때문에 유야무야하고 사건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아울러 리이첨의 탐관오리적 소행을 자료적으로 열거하고 조정은 그의 심복이라고까지 비난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허균은 리이첨에게 그를 잡아들여 엄히 《다스릴것》을 제의하는 일방 위기가 닥쳐옴을 자각하고 결정적인 기회를 조성하려고 총력을 기울였다.

리이첨은 즉시 광영을 잡아들여 심문과 고문을 들이댔다.

그로부터 4개월후 남대문패방사건이 일어났다. 패방이란 격문을 붙인것을 말한다. 물론 이것도 허균이 심복을 시켜 남대문에 격문을 내붙인것이다. 그런데 남대문에 붙인 그 격문내용은 력사에 전해지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처음 발견한 사람이 너무도 그 내용이 놀라워서 그것을 떼여가지고 집에 가서 발기발기 짜여 아궁이에 버린것을 혹자가 주어온것밖에 없기때문이다. 그 주어진 종이조각에는 격문의 서명이 《조선국왕》이라고 써여진 부분만이 있을뿐이었다.

이무렵에 서울장안에는 또한 복측 오랑캐가 건주위에 침입하여 중국에서 군대가 이를 막기 위해 동원되었는데 건주위는 우리 나라와 멀지 않아서 민심이 동요되어있었다. 이것 역시 허균의 조작에 의한것이다. 허균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급한 정황을 알리는 변방의 보고서를 위조하여 퍼뜨리게 하고 수많은 휘하사람들을 시켜 매일밤 남산에 올라가 서울장안을 향하여 《빨리 피난을 가시오!》, 《류구에서 원병이 와서 지금 바다가에 대기하고있소이다!》,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소이다!》 등등의 말을 목청껏 웨치게 하였다.

이때로부터 서울장안에는 짐을 이고지고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이 길을 메웠다. 이에 대하여 조선봉건왕조실록 광해 십년 팔월 삼일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근일 서울장안에 소동이 극심하고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붐비는데 무슨 일로 그러는지 알수없다.》

또한 팔월 룡일조에는 《근일 서울 장안이 더욱 비어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서울을 비우게 하여 평안도 군대를 전부 서울로 끌어들여 거사를 하자는것, 그동안에 과거를 치르어 합격한 선진관료들을 새 내각에 인입하자는것 (과거 고시날은 8월 15일로 정했고 이미 관직을 사람별로 정하여 내각구성이 되어있었음)이었다.

이토록 그 복잡한 당파싸움의 와중에서 예리한 적대세력의 감시속에서 일사불란 로심초사하여 준비해온 허균의 정변기도는 빈틈없이 하여왔건만 거사전날에 한 변절자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허균일당은 무오 (1618)년 8월 24일 체포된지 여드레만에 서시에서 통치참을 당하였다. 하여 허균은 50살을 일기로 뜻을 못이룬채 가고말았으며 휘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허균의 한생의 자취는 대략 우와 같다. 그는 항상 스승과 누이앞에서 새로운 형의 글을 쓰겠다고 말하였다. 그가 광재우와 의금부에 불려가서 추궁을 당하고 헤어질 때 이런 시구를 그에게 보냈다.

형은 모름지기 자기의 뜻대로 사시라

나는 스스로 내 생을 달하리다
오래동안 수다교를 읽음은
마음 붙일곳이 없어서러니

이는 광재우가 한성부 우윤을 지내다 벼슬을 마다하고 자기의 뜻대로 도교를 숭상하다가 의금부에 불려왔기때문에 그를 위안한 말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가 자기 한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 적서를 차별하는 봉건적신분제도를 없애겠다는 자기 결심과 함께 그가 말하는 새로운 형의 글을 쓰겠다는 의도가 담겨져있는 말이기도 하다. 한때 벼슬살이에서 파직을 당하였을 때 자기는 수표교가의 집에서 글을 쓰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으니 우연한 일이겠는가. 《홍길동전》을 그가 어느해에 썼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허균의 정변기도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의 발자취가 《홍길동전》에 찍혀있는 사실과 그의 행장을 련관속에서 고찰할 때 대체로 허균이 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초고가 되고 그것이 수정보충되어 45살을 전후하여 완성된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측이 간다.

작품의 주인공 홍길동은 어떤 인물인가?

홍길동은 15세기말~16세기초에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싸운 농민무장대의 두령이다.

홍길동 개인에 대한 자료는 문헌상으로 전해오는것이 전혀 없고 다만 홍길동무장대에 대한 자료의 극히 일부가 《조선봉건왕조실록》 등에 전해올뿐이므로 그의 행장에 대하여 똑똑히 알수 없다. 그러나 문헌의 기록내용으로 보아 연산군의 폭정이 극도에 이르던 16세기초 농민무장대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무장대의 두령이었다는것을 헤아리게 된다.

홍길동이 이끄는 무장대의 규모도 각별히 컸다.

홍길동사건이 자그만치 2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서울로 묶여오는 《죄인》들이 꼬리를 물었다고 한 기록과 을해 (1515)년 5월 전라도에서 440명의 농민무장대들을 체포하였을 때 봉건통치배들이 홍길동무장대의 실례를 든것으로 보아 홍길동이 이끄는 무장대의 규모가 자못 컸다는것으로 추측된다.

홍길동의 활동지역은 《조선전사》에는 서울근거로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력사학계에서는 사료적으로 밝혀 충청도로 규정짓고있다.

홍길동의 활동은 아주 대담무쌍하였다. 하여 후세에 전설처럼 전해졌다. 《연산일기》 39권과 《중종실록》 70권의 기록에 의하면 홍길동은 대담하고 기묘한 활동으로 통치배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홍길동자신은 《침지(중추부의 정3품 벼슬인 첨지사)》로 자칭하면서 갑옷차림에 무기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준마고안에 높이 앉아 고을 관청들에 나들기도 하였고 고을 관장들은 그를 높이 대우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대낮에 무장대를 휘동하여 고을들을 불시에 습격하고 착취자, 억압자

들을 용서없이 처단하여 백성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어주면서 위용을 과시하였다. 홍길동의 활동에 겁을 먹은 지방호도들과 류향소(행정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착방반중에서 좌수와 별감을 임명하여 고을마다 둔 지방자치기구)의 품관들은 감히 그를 체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홍길동은 대담하였을뿐아니라 활동이 민첩하여 통치배들을 공포와 전율으로 몰아넣으며 일세에 그 명성을 떨치었다. 《연산군일지》에 의하면 홍길동이 체포되자 조정의 삼정승은 왕에게 《강도》 홍길동을 체포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데 있겠느냐고 하며 축하를 올리기까지 하였다. 홍길동이 얼마만큼 무서웠으면 가장 큰 기쁨이라고까지 하였겠는가.

홍길동은 무장대를 휘동하여 싸우면서 일부 봉건관료들까지도 인입하였으니 그의 수완과 전법이 비범하였다는것도 가히 헤아릴만하다. 홍길동 사건에 연루되어 의금부감옥에서 사형당한 중추부 첨지 엄귀손은 일찌기 동래현령, 평안도 감영의 우후를 지낸 당상관이었으나 홍길동을 도와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엄귀손이 길동의 좌주노릇을 하였을뿐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패거리》였다고 한 당시의 기록은 길동이 조정내부에까지 깊숙이 손을 뻗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길동은 연산군의 탐학무도한 학정과 안하무인적인 폭정에 반드시 불만을 품은 벼슬아치들이 있으리라는것을 알고 조정내부의 일부 관료들을 적극 리용하였던것이다. 하여 민간에서는 《조정안에도 홍길동이 들어있다니 그 신묘한 홍길동을 관가에 선들 당해내겠나》고도 하고 《홍길동은 둔갑술을 하여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났다 지기때문에 나라에서는 감히 잡을념을 못한다》고도 하였다. 이 말들은 홍길동의 활동에서 그 투쟁무대가 넓고 민활할뿐더러 조정이나 관가의 벼슬아치들까지 무장대에 망라되어있어 좀체로 잡지 못했다는것을 시사해주는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길동을 신격화하면서 칭찬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찬사이다. 과연 홍길동은 봉건조정의 좌우포청이 발동되어 전국에 그물같은 나포망을 펼쳐서도 잡지 못하여 끝치를 앓았다. 그러던중 신유(1501)년 그믐께 마침내 그는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봉건조정에서는 그를 포도청에서가 아니라 관례를 벗어나 특별히 취급하여 역적과 중죄인만을 취급하는 의금부에서 국문하였다. 무서운 고문이 벌어지는 가운데 홍길동의 부하 한사람이 입을 잘못 열어 마침내 길동의 휘하 대원들이련일 잡혀 서울로 올라왔다. 조정에서는 마침내 홍길동을 릉지처참하고 그의 일당속에서 잡혀온 사람들도 모조리 목을 베는 가혹한 처벌을 가하였다.

《홍길동전》은 연산군시기 농민무장대의 두령 홍길동의 활동을 소재의 바닥에 깔고 리달과 같

은 서얼출신인물을 주인공 홍길동으로 설정하여 거기에 도술을 빌어 자기의 리상세계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따라서 주인공 홍길동은 실재한 홍길동과 서얼출신인 리달을 대변하는 동시에 작자 허균의 사상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홍길동전》은 모순으로 찬 봉건사회의 사회악 특히 신분제도의 모순을 통절히 깨닫고 서얼의 신분해방과 기회균등을 위하여 자기의 리상을 마음가는데로 펼친것이니 이는 곧 그런 리상으로 일관된 허균의 생애의 서사시라고 할지 아니면 허균이 《홍길동전》의 리상을 현실세계에서 실현해나선것이라 할지 그 증거로는 허균의 기발아래 죽음을 맹세하고 모여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서족, 노복, 무관 등 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다.

허균은 원래 작가가 아니였으며 벼슬살이하는 량반으로서 소위 정통과문학외에 이른바 《잡문》에 속하는 소설을 쓸 처지에 놓인 사람도 아니였다. 그러나 서얼 신분해방의 화염이 그의 열에 불을 지켰기때문에 대거사의 설계와 함께 새형의 글을 쓸 작안을 하였고 그 실천과정에 붓을 들어 마침내 그 착안한 작품이 완성되어 나라의 향복을 받고 서해의 리상향으로 떠나간것으로 작품의 끝을 맺고있다. 소설에 나오는 톨도가 허균의 동료였던 현응민이나 리홍경의 최후 공술에서 나온 자연도(정변을 일으키다 불리하게 되었을 경우 최후지탱점으로 설정한 섬)와 상통하나 현실의 홍길동-허균은 실패하여 형장의 이슬로 진것이다.

《홍길동전》이야말로 설계와 실천의 통일이 이루어진 걸작으로서 작자와 작중인물(주인공)과의 결합이 《홍길동전》이상 더 밀접한 작품은 드물다.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는 비상한 재간이나 기발한 인물을 평할 때에 《홍길동같은 제주》, 《홍길동이 나타났다》 등의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듣게 될 때마다 허균이 홍길동인지 홍길동이 허균인지 모를 감촉에 잠기곤한다.

《홍길동전》은 《사씨남정기》, 《구운몽》 등과 함께 우리 문학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걸작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고전소설들이 이웃나라에서 들어왔거나 모방한것이라는 사대주의적경향이 지난 한때 일부 사람들속에 있었던 수치를 우리는 뼈아프게 돌이켜보게 된다. 이것은 민족문화유산과 력사에 대한 논문 외곡이며 사대망상의 헛소리이다. 무릇 소설에서 작자와 작중인물과의 관계는 극히 밀접하다는것은 상식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작자의 리상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그는 곧 작자의 리념세계를 반영한 인물이다. 력사상으로 널리 알려진 허균은 그의 생애로 보나 의식활동으로 보아 《홍길동전》의 주인공 길동을 방불케 하는바가 많다. 물론 그는 작중인물인 길동과 같이 서얼출신도 아니였고 집을 탈출하여 《도적떼》를 못고 활

동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부정의 의식이 강렬하였기때문에 정변을 기도하였던것이다.

《역적》이라는 어마어마한 딱지가 그의 이름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후 《문장독보일세》, 《기이한 재주》, 《천재》라고 세상이 아낌없는 호평을 받은것은 그의 뛰어난 천재적재능과 높은 리념세계를 찬탄하여서였다. 서죽출신의 스승에게서 배웠고 서얼출신 벗들을 동정하여온 허균이었고 정의감과 의협심이 남달리 강한 허균이었으며 번쩍이는 재능과 박식을 자랑하였을뿐더러 사색과 행동이 사회발전의 한단계를 앞선 진보적취향을 지닌 허균이었으니 모순과 부패, 사회악에 찬 당대사회에 어찌 불만이 없었랴. 제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서죽은 과거를 치를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전도가 막혔으며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면서도 어머니가 후실이라 해서, 천민이라 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으며 배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종의 립장에서 《도련님》, 누이에게는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되는 신분제도의 불합리를 규탄한것이 《홍길동전》이다.

《홍길동전》은 허균의 선진적사상과 숭고한 인도의정신 그리고 능란한 수완과 불굴의 투지에 의하여 신분해방의 서광을 뿜는 허균자신의 리상세계의 형상물로, 실패한 정변의 산아로 당대사회에 태어났던것이다. 광을 뿜는 허균자신의 리상세계의 형상물로, 실패한 정변의 산아로 당대사회에 태어났던것이다.

고전소설 《홍길동전》이야말로 허균의 이름과 더불어 우리 나라 문학사에 큰 좌표를 찍은 걸작이다.

우리는 마땅히 단군시조 이래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문화유산의 주체사관에 확고히 서서 옹건하게 승발전시켜 더욱 빛내야 할것이다.

※ 룡지처참을 당하였다는 허균이 구성허씨의 족보에 시조로 기록되어있을뿐더러 구성허씨는 양천허씨(허균일가가 속한 허씨의 원래의 본관)의 본파라는것까지 밝혀져있으니 세상에는 희한한 일도 있다. 그런데 그 족보에 허균은 이름과 호까지도 사실그대로이다.

그리고 《구성군지(하)》에는 허균의 비석이야기도 있다. 즉 구성의 남사에 을사(1785)년에 구성부사 리진만이 세운 허균의 비가 지금도 있다는것이다. 지사 허균이란 사람이 구성에 와서 산천경계를 바라보고 크게 감동되어 창동에 거주를 정하였다는것과 그후 허씨는 변성하여 구성고을의 갑족(가계가 훌륭한 집안)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서궁투서사건이 있은후 허균을 규탄하는 소리가 물끓듯하는 어지러운 속에서 정권의 실권자인 리이첨이 두해동안이나 묵인하고 체포하지 않은것은 공모자라는 의미에서 그러했을수도 있지만

그를 동정하였기때문이다. 더 로출시켜 말하자면 당시의 당파적세력관계상으로 보아 대북파의 참모역을 시켜오던 허균을 잃는다는것은 그자신에게 불리했기때문이었던것이다. 그리고 리이첨이 허균에 대한 비호는 그가 책임진 의금부(리조때 《역적》을 비롯한 중죄인을 취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의 여러 관리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투옥 및 사형집행에서도 두루 눈감아주거나 관대히 처리해줄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리고 리이첨이 어째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의금부책임직을 담당하였겠는가 하는것도 의심스러운것이다. 그가 의금부 판사로 취임한것이 허균의 모반사건직전이라는것, 연년이상 비어있던 판사(의금부 우두머리)자리에 홀연 그가 나타났다는것 이것들이 어찌 우연한일이였겠는가, 사건 취조중에 체포된 김개(평시에 리이첨의 비호를 받음)가 최후까지 불복하였다는 사실, 구성군지의 전설같은 기록을 두고 생각할 때 리이첨-의금부-김개-허균이 일맥상통하는 그 무엇이 엿보이며 허균의 탈출가능성이 보이기도 하는것이다.

그리고 체포된지 여드레만에 사형을 집행했다는것은 룡제가 드문 일이다. 모반건치고도 큰 모반건인데 어떻게 여드레만에 형집행을 할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을 누구나 품게 되는것이다. 관련자들적발을 위한 무시무시한 고문, 련관자들 하나하나의 공술을 들기 위한 고문, 진상규명을 위한 증인들의 확인, 련관자들을 밀뿌리채 나포하기 위한 조치 등등으로 흔히 지정된 법적기일을 초과하는것이 상례인것이다. 당시의 형전에 의하면 사형은 체포된지 30일안으로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체포후 8일만에 사형을 집행했다는것은 그야말로 전격적인 처사인것이다. 허균의 경우는 체포된후 아주 완만한 추세로 내버려두다가 갑자기 급변해서 사형을 집행하였다는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봉건왕조실록이나 야사들에서는 허균과 리이첨의 관계문제로 보고있다. 리이첨이 허균에 대한 공개심문을 오래 끌면 자기에게 불리한 말이 나올것을 염려하였던것이다. 그래서 왕을 은근히 협박하여 처형을 서둘렀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심문도 없이 처형하였다는것이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형전에는 모반자에 대하여서는 엄문추궁하여 직접 본인의 공술을 받아서 결안을 작성하게 되어있으나 무시되고만것이다. 국왕은 심문에 참가할것을 바랐고 대간까지도 자기가 직접 심문하겠다고 간청하였으나 리이첨은 기어코 듣지 않고 말 한마디 매한대 없이 갑자기 부리나게 사형을 집행하더니 무슨 연고이겠는가? 허균을 사형했다는 날보다 하루 앞선 날 처형했다고 하는 허균파의 황정필도 옥중에서 죽이고도 보고서에는 백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시에서 정식사형을 집행했다고 한 사실로 보아 리이첨이 허균일파에 대한 형집행에서 무엇인가 숨기는것이 있었으니 누구를 위해

그러했겠는가?

그리고 허균에 대해서는 연좌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형전 대명률에는 모반, 대역죄에는 주범은 물론 공모자들까지도 다 롱지처참하게 되어있고 가족들에게도 엄하게 연좌법이 적용되게 되어있다. 본인의 아버지와 아들(16세이상)들은 교수형에 처하고 15세이하의 아들과 할머니, 어머니, 처는 물론 형제의 배우자, 자매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신집의 노비로 보내게 되어있고 재산도 몰수하게 되어있다. 허균을 처형했다는 기록뒤에는 연좌법이 실시되고 재산도 다 몰수했을 뿐더러 집을 파괴하고 그자리에 연못을 만들었으며 출신지방의 고을원은 파직시키고 고을청호도 한급 내려 마치 연좌법이 적용된듯이 써여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다. 다만 증인으로 허균의 기생첩과 노복 하나가 심문을 받았다는것이 있을뿐이다. 일방야사에는 이 사건으로 연좌법이 적용된것은 리국량과 김우성(처가편이나 외가편인듯)뿐이라는 기록이 있다. 기실 허균일가에는 그 누구도 피해를 본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허균이 투옥되던 날 옥문을 짓마쓰고 허균을 끌어내려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기록에는 《역적의 무리가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중에는 조정의 관원들도 많이 들어있다. 그들은 공공연히 돌로 국청의 문을 깨마쓰고 캄캄한 밤에

옥리들의 머리에 돌벼락을 안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소동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으니 왜 그러했겠는가? 실로 의심되는 바가 많은것이다.

한편 《구성군지》에 허균의 아버지 허엽이 허승으로 되어있고 구성에 들어온 동기가 왕에게 바른 말을 한탓으로 이곳에 류배된것으로 되어있으며 허균도 아버지따라 함께 온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구성에 들어온것을 사실과 어긋나게 하여 세상의 이목을 가리우기 위한것일수도 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된바와 같이 《구성군지》에 을사(1785)년에 구성부사 리진만이 세운 허균의 비석이 있다고 한 사실과 그 사실을 신해(1911)년 가을에 당시의 구성군수 김용해가 기록에 담긴 사실들이 모든것을 종합하여 볼 때 허균이 롱지처참을 당한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리이첨의 비호밑에 형장에서 처참당한것으로 남의 이목을 속이고 몸을 구성으로 피신시켜 구성허씨의 시조로 된것이 아니겠는지... 하는 의문이 갈마드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해오는 《구성군지》에 수록된 허균의 사실과 당시의 여러 사료들을 놓고 고찰한 력사학계의 일부 견해라는것을 첨부한다.

끝

제자의 눈빛

리정화

휘날리는 꽃테프 울리는

환영곡

모교의 마음들이 너를

축복한다

어서 걸으라 제자여

6년세월 가꿔온 효녀의 마음

걸음걸음 교정에 별처럼

새기며

지나온 중학시절 충효의

순간들은

그윽히 빛나는 눈동자에

어려있고

장군님께 기쁨드린 너의 소행

수줍은 그 눈빛에 비끼였구나

그윽하게 빛나는 그 눈동자

내 마음 비추이는 거울이런가

가슴속에 간직된 삶의 보람

서정의 샘줄긴양 이 심장

적셔주네

순간의 명예를 바람이라면

너의 눈빛 그 어이

심장불태우라

환영의 이 순간 위함이라면

내 마음 그 어이 궁지로

부풀라

오직 장군님께 드리는 큰 기쁨

그것이 네 희망의 전부

가슴속 끓는 피로 맹세다지며

배움의 충성답을 높이높이

쌓은

사랑스런 제자 순회야

강반석녀사의 존함으로 빛나는

모교의 이름 자랑으로 떨치자

지덕체로 다져온 추억많은 그

시절

칠골생가 트랙에서 솟는 해

맞으며

입속말로 아뢰인 아름다운

이야기

천이더냐 만이더냐

아, 달리는 필수 없는

너는 칠골땅의 효성화

영광의 모교에서 한껏 품은

질은 향기

풍년별에 마음껏 터칠 그 소원

장군님의 기쁨 되고 힘이

되었나니

작별을 보내는 너의 유정한

눈빛

뜨거이 올려주네 내 마음속에

래일로 기약된 더 큰 충효의

노래

미더운 농촌혁명가 충신의

노래

반일애국문학인 신채호

김룡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은 비록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일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작품으로 창작되어 인민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인민의 소유물로,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학작품은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작품으로 창작되어 인민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인민의 소유물로,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

열렬한 반일애국투사, 계몽사상가였으며 역사학자이고 이름있는 작가였던 단재 신채호.

1936년 7년간의 옥중고문의 후과로 뇌출혈이 된 신채호가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림종의 시각을 보내고있었다.

이제는 영원히 일제의 꼴을 보지 않게 되었고 생각하니 단재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해졌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의식은 점점 흐려왔다. 음력으로 2월 21일, 남편과 아버지를 목메여 부르는 처와 아들의 목소리에 간신히 눈을 뜬 그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었다.

《내 시체가 더러운 오랑캐 왜놈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화장을 해서 저 대양에 뿌려주소.》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 그토록 애국충정을 끓이면서 남북산야를 달렸고 그처럼 간고분투하던 신채호는 일제에 대한 한을 품은채 56살을 일기로 이 세상과 하직하였다.

실로 그는 이름있는 애국지사들중의 한사람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반일애국의 한길에서 고심 참담하여 쌓은 투쟁로정과 함께 정력적으로 문학 창작활동을 진행한 사실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9세기말 조선은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운 것으로 하여 숨가쁘게 비탈길을 쫓아가고있었다.

이런 가운데 1880년 11월 7일 충청북도 연의군 문의지방의 한 유생가정에서 신채호가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 신광식은 한문서당을 차려놓고 어지러워 개탄할 세상과는 담을 쌓고 후대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조용히 살아가고있었다.

신채호는 여섯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하에서 자랐으나 엄한 할아버지의 훈계밑에서 민

음성있게 공부하면서 성장하였다.

그가 아홉살때 중국의 시인 두보의 시문을 비롯한 이름있는 시인들의 시문들을 외워 그 소문이 림근에 파다하게 퍼졌다. 이러한 그를 마을에서는 신동이라 불렀다.

한편 나라의 국력은 점점 쇠약해갔고 정사는 어지러워졌으며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산다는것이 커다란 고통이었다. 일제를 비롯한 교활한 구미열강들에 의하여 《쇄국》의 문은 열어져 드디어 《강화도조약》과 불평등한 《조약》들이 연이어 체결되었다.

당대의 이러한 시대적환경속에서 성장한 신채호는 1898년에 성균관에 입학하여 만 5년간 공부하였다.

여기서 그는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비롯한 역사서적들과 고구려시조인 동명왕 그리고 우리 나라 명장들인 을지문덕, 연개소문, 리순신 등의 렬전들을 탐독하였다.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는 신채호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우리 나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나라를 사랑할수 없으며 따라서 애국도 할수 없다고 늘 교양하였기때문이었다.

이렇게 신채호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애국사상을 키웠다.

신채호는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많은 서적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슬기로움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그의 마음속깊이 자리잡은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국이 섬오랑캐놈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기 시작하는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다는것이였다.

성균관을 마친 신채호는 문등학원에서 교편을 잡았다.

세월은 숨가쁘게 흘러 1905년이 되었다.

청일, 로일 두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야수들은 극도로 오만해져 친일매국역적들을 내세워 이 역사국을 송두리채 삼켜버릴 흉계를 꾸미고있었다.

신채호는 이해에 《황성신문》 사장 장지연을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의 재능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필치의 예리성과 논리의 치밀성, 문체의 긴박성과 간결성으로 하여 그의 지식의 해박성은 당대의 문객들중에서도 단연 이채를 띠었다.

이 시기 쓴 글들인 《무능수론》, 《벗에게 절교의 서한을 주다》, 《력사와 애국심의 관계》,

《최도룡전》, 《을지문덕전》, 《리충무공전》 등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황성신문》 론설위원으로서 신채호의 활동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해 가을 강도 일제가 리완용을 비롯한 5적무리들을 내세워 황제의 수결과 옥새날인도 없이 강압적으로 《조약》을 날조한 그 큰죄가 드러나는것이 두려워 비밀에 붙이고있던것을 《황성신문》사 일군들이 들고일어나 이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하였기때문이다.

사장인 장지연은 지상에 《시일야방성대곡》(이날에 크게 울어 알리노라)을 써내어 강도 일제의 죄행을 고발하였다.

신채호도 민족적의분이 치솟는 여러편의 글들을 써내었다. 인민들은 글을 읽고 분노로 하여 치를 떨었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황성신문》을 강제로 폐간하였다.

다음해인 1906년(그때 그의 나이는 26살)에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 론설주필로 임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황실과 애국지사들이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신문으로서 형식상으로는 영국인을 내세우고있음으로 하여 외국인이 경영하는 신문으로 되었다. 이것은 일제의 출판검열을 거치지 않는 유리한 점이였다.

신문지상을 통하여 신채호는 인민들에게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애국심이 흘러넘치는 많은 글을 써냈다.

이때 그는 사람들에게 애국자가 있는 나라는 비록 지금은 약하다 하더라도 언제인가는 반드시 흥하고 힘이 센 나라로 되살아나게 된다고 말하였다.

신채호는 분명한 나날속에서도 가슴에 맺히고 서린 비통한 걱정, 애국의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붓을 달리고 또 달리였다. 참으로 그는 애국사상으로 인민들을 계몽하였으며 그들을 반일어로 적극 불러일으키는데 모든 힘을 다하였다.

이 시기 그는 애국적정론들을 집필하여 사람들을 고무추동하였다.

어려서부터 애국심을 키워온 그는 항상 애국과 대립되는것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인 싸움을 벌리였다.

그는 정론 《리해》를 집필하여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하였다. 이 정론에서 특징적인것은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노예적분리관을 반대하는 목소리와 강하게 합치되고있는것이였다. 그는 여기에서 사대주의로 하여 나라를 망쳐버린 우리 나라는 웅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론에서 어떤 시대에 있어서나 매국자보다 애국자가 더 많은

법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애국정신에 대하여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1907년 신채호는 독립운동자들인 안창호, 리동휘, 리승훈, 김구 등과 함께 우리 나라에 고조되고있던 계몽운동에 편승하여 나라를 진흥시킬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민회》라는 비밀모임결성에 참가하였다.

《신민회》는 나라를 정치, 경제, 교육, 문화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힘쓰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이였다. 이들은 자기 사업의 일환으로 평양과 대구에 각각 《태국서관》을 세워 문화운동을 벌리였으며 또 평양에는 《대성학교》 그리고 정주에는 《오산학교》를 세웠다.

1907년 2월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진것을 계기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였다. 나라의 황실로부터 선비들과 녀인들, 지어 기생들과 나어린 학생들까지도 이 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국채보상운동》의 앞장에는 《대한매일신보》가 서있었다.

주필인 신채호는 것처럼 좋아하던 담배와 술을 끊어버리고 밤에 낮을 이어가면서 이 운동에 호소하는 글들과 정론들을 써나갔다.

《국채보상운동》이 점차 반일투쟁으로 확대되자 일제는 이에 겁을 먹고 야수적으로 이를 탄압하였고 이 운동에 앞장섰던 《대한매일신보》도 폐간시켜버리였다.

신채호는 일제의 야수적탄압으로 문필활동을 정지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집에 있으면서 많은 독서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신채호는 정주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던 리승훈이 보내온 사람으로부터 한장의 편지를 전달받게 되였다.

편지에는 그가 오산학교에 와서 력사와 서양사를 가르쳐달라는 부탁이 적혀있었다.

원래 리승훈의 사람됨됨을 잘 알고있었고 일제에 의하여 문필활동도 못하고있었던차라 신채호는 그 즉석에서 승낙하였다.

그후 신채호는 도산 안창호와 정주 오산학교에 도착하였다.

두사람을 맞이한 오산학교는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특히 신채호가 가르치는 력사와 서양사는 학생들속에서 그 인기가 대단하였으며 또 그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1910년 새 아침은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신채호는 깊어지는 사색으로 하여 시 한편을 창작하고는 스스로 읊어보았다.

신채호의 생각은 참으로 착잡하였다. 이대로 교편을 잡고만 지내기에 그의 정력이 너무도 차고넘쳤던것이다.

이때 그의 뇌리를 강하게 치는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부른다고, 불러도 급히 부른다는 생각이였다.

얼마후 결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난 신채호는 조선을 송두리채 집어삼킨 왜놈들과 결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압록강을 건너 남북만주와 씨비리, 천진 등지로 걸음을 이어갔다.

신채호를 비롯한 독립운동자들은 청도에 모여 서리고서린 눈물을 뿌리며 어떻게 하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고 일제의 마수로부터 조국을 독립하겠는가를 토론하였다. 회의에서는 엇갈린 주장들이 계속되였다.

심중한 론의끝에 독립운동자들은 미국사람들이 경영하던 대동실업회사(밀사현)의 땅을 사들여 그것을 개간하고 사관학교도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이런 《리상촌》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자금도 해결하고 인재도 키우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물적, 인적,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자는것이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류산되였다.

그후 신채호는 도산 안창호 등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올라지위스도크로 가서 교포들을 위한 《해조신문》을 발행하였다.

신채호는 그사이 손을 놓았던 역사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고구려의 옛 비석이나 무덤들이 없는가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동방 천년대국의 역사를 가진 고구려의 위업을 제눈으로 직접 보고 제발로 직접 밟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만주벌에 흩어져있는 고구려의 유적을 찾아서 이때까지 잘못 알려져있던 역사를 바로잡는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였다.

1914년부터 그는 남북만주를 본격적으로 답사하였는데 고조선의 옛 유적들과 싸움터, 성터며 룡묘들을 많이 발견하였고 이것을 《삼국사기》를 비롯한 역대 자료들과 대비연구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역사자료를 연구하는것과 함께 많은 시작품도 창작하였다.

고려영 지나가니 눈물이 가리워라
나는 서생이라 개소문을 그리랴만
가을풀 우거진곳에 교적을 설어하노라
...

이것이 답사과정에 고려영이라는 도회지를 지나면서 쓴 시 《고려영》이다.

1915년 베이징에 도착한 신채호는 자기의 현

지답사과정을 총화정리하고는 이미전부터 계획하고 추진시켜온 《조선상고사》를 본격적으로 집필하여 마침내 끝을 보았다.

이 시기 그가 쓴 역사저술들인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등은 역사전문가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신채호는 조소앙, 정인보, 박은식, 문일평 등과 《박달학원》을 세우고 여기서 조선 청년들을 교육하는데 모든 힘을 바쳤으며 김규식과 함께 《신한청년회》라는 청년단체를 조직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선청년들에게 빼앗긴 조국을 일제야수들로부터 되찾기 위한 사상을 주입시키는데 기본을 두었다.

1916년 3월부터 그는 소설창작에 전념하였다. 이 시기 창작한 작품이 중편소설 《꿈하늘》(몽천)이다. 이 소설창작에 앞서 신채호는 정론 《인도주의 가애》를 집필하였다.

신채호는 아직은 막연하나 미구에 도래할 위대한 미래를 확신하는 생활신조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축적한 생활체험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랑만적인 환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쳤다.

그의 소설 《꿈하늘》, 《룡과 룡의 대격전》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꿈하늘》에서 장소의 선택, 주인공의 설정 그리고 사건의 발생, 발전 등은 모두 환상적으로 되고 랑만적으로 형상화되였다.

신채호는 《꿈하늘》의 주인공 한놈에게 슬기로운 조선민족으로서의 전형적의의를 부여하면서 그로 하여금 전국과 지국, 신계와 지옥을 마음대로 순례케 하며 다양한 생활국면들을 펼쳐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놈이 체험하는 다양한 인간관계들이라든가 사건들은 모두 애국사상과 튼튼히 연결되어있다.

한놈은 신계에 올라 비통한 조국의 실정에 대한 심각한 체험속에 자기 결의를 다지면서 애국명장 을지문덕으로부터 조국의 영예를 쟁취하기 위한 생활의 철리를 듣는다.

여기에서 을지문덕은 승리는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원쑤와의 싸움을 끝까지 진행하는데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상들은 두말할것 없이 신채호자신의 미학적리상의 토로인것 이다.

이 소설은 주로 환상적인 사건, 환상적인 정황 등에 의거하고있다.

작가자신도 이 작품을 《꿈이 지은 글》이라고 말하는것은 리유없이 한 말이 아니다.

실로 신채호는 복잡한 현실속에서 부대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새 세계를 꿈의 형식속에, 꿈의

세계속에 담아보려고 이 소설을 창작하였던것이
다.

작가는 소설에서 한놈의 형상을 통하여 열렬한
애국주의사상을 보여주고있다.

다시 말하여 이 소설은 《두팔로 태백산을 안으
며 한입으로 동해물을 말리울...》 호담한 기개와
함께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를 가진 우리 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 애국정신으로 사람들을 교양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신채호가 이 중편소설의 서문에 쓴 다음의 글
을 보면서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와의
모순속에서 몸부림치고있는 당시의 그의 정신세
계를 엿볼수 있다.

소설의 서문에서 《자유못하는 몸이니 붓이나
자유하자고 이 글을 쓴다》라고 하였다.

이 시기 신채호가 창작한 역사소설 《일목대왕
의 철퇴》, 《류화전》 등에서도 우리 민족의 유
구성과 슬기로 빛나는 인민들을 보여주려고 노력
하였다.

1919년 3월 신채호는 《상해림시정부》의 평정
관으로, 뒤이어 의정원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거족적인 3.
1운동이 벌어지고있던 때이므로 신채호는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에 한몫 바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상해는 그가 생각하였던것과는 판이하
였다.

그것은 《상해림정》에 기여든 사대매국노 리승
만이 미국대통령 윌슨의 소위 《민족자결론》을
제창하여 윌슨에게 조선을 위임통치해달라고 청
원서를 내는 얼빠진 놀음을 벌리고있었다.

이에 격분한 신채호는 《위임통치청원》을 단호
히 반대하면서 우리 나라를 제함으로 독립시켜서
건설했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한 사대매국적인
행동을 한다고 리승만을 질책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상해림시정부》 초창기 이름난 력
사가이며 문장가인 단재 신채호는 손정도목사와
뜻을 같이하였다고 하시면서 로선상으로 보면 신
채호는 무력항쟁의 제창자였다고 회고하시였다.

신채호는 리승만의 외교론과 안창호의 준비론
은 다같이 현실성없는 위험한 로선이라고 보았으
며 조선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강도가 한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된 정황에
서 우리 2천만 민중은 단결하여 폭력파괴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사람들이 리승만을 《상해림시정부수반》
으로 내세웠을 때 신채호가 분격을 참지 못하고
정면으로 반대하여나선것도 평소부터 리승만의
《위임통치론》과 《자치론》은 현실성이 없는것으
로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기때문이었다.

《리승만은 리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리완용
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리승만은 아직 나
라를 찾기도전에 팔아먹은 놈이다.》

이것은 신채호가 《림시정부》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같은 언성으로 내뱉진 유명한 말이
다.

그는 《림시정부》를 탈퇴한후 발표한 《조선혁
명선언》에서도 리승만이 내놓은 《독립》의 본질
을 발가놓으면서 호되게 비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손정도목사가 신채호에 대하여 한
이야기를 회고하시였다.

손정도목사는 신채호에 대하여 그는 성미가 먼
도날갈고 주장이 무쇠쪽같은 사람이였다, 그가
리승만을 리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라고 탄핵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통쾌감을 금할수 없었다, 신
채호의 말은 민심을 대변한것이였다, 단재의 심
정이자 내 심정이였다, 그래서 나는 신채호와 함
께 립정을 결별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손정도목사의 이러한 발언을 보면 당시 신채호
의 정견을 충분히 가늠할수가 있는것이다.

이어 신채호는 상해를 떠나 진보적인 애국지사
들이 있는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기에서 그는 리운제, 손정도 등과 함께 구국
의 방도를 모색하였고 력사서적을 저술하였으며
작품도 계속 창작하였다.

이 시기 소설 《룡과 룡의 대격전》을 창작하였
다.

소설은 전국과 지국의 대립으로 되는 환상적수
법에 의거하고있기는 하나 《꿈하늘》의 경우와는
달리 그속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내용들은 어디
까지나 당시 현실생활에서 진행되고있는 계급관
계와 정치투쟁을 직접적인 비유로써 반영하고있
다.

말하자면 작품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인간관
계, 현실적인 생활정황들이 직접 비유되어 형상
되고있다.

이러한 사상적내용들을 작가는 짜인 구성과 예
리한 갈등, 부합되는 정황과 계기들에서 설득력
있게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고있다.

이 작품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일제침략자
들의 악랄성과 교활성을 폭로하면서 일제에게 항
거하는 조선인민의 정신을 찬양함과 함께 그 최
후승리를 확인하는데 그 중심을 두고있다.

참으로 작가는 미래에 대한 긍정과 옹호의 사
상을 작품에서 힘있게 제시하였다.

실로 이 작품은 3.1인민봉기 이후시기에 이르
러 신채호의 민족주의의 사상적거점이 점차 새로
운 시대사상의 영향과 자리를 바꾸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으로 되였다.

실제로 신채호는 로씨야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제까지 들고있는 민족주의사상이 사회주의사상에 대한 공감으로 이행하고있다는것을 어쩔수 없이 느끼었다.

이 시기 그는 력사소설 《백세로승의 미인담》, 서정시 《너의것》, 《매암의 노래》, 《나비를 보고》, 《임술년 가을에》, 《고향이 그리워》 등을 창작하였다.

이와 함께 신문지상에 사람들을 애국으로 불러 일으키는 글들을 수많은 집필하였는바 《선언》, 《도덕》, 《문예계청년에게 참고를 구함》, 《정육과 애국》, 《금전, 첩포, 저주》 등 기백있는 정론들이 바로 그러하다.

신채호의 명성은 국내뿐만아니라 해외에도 걸잡을 수 없이 널리 퍼져갔다.

1921년 4월에 신채호는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결심하고 또다시 상해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김창숙 등과 함께 사대매국노 리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을 규탄하는 《리승만성토문》을 발표하고 위임통치의 반동성을 또다시 까밝혔다. 그가 리승만과 맞서자 많은 독립운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이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정주 오산학교에서 함께 교편을 잡았던 리광수가 찾아와 리승만을 지지하는것이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이라고 은근히 말하자 신채호는 분연히 리승만은 남의 힘을 빌어 나라의 독립을 찾겠다는 쓸개빠진 작자라고 규탄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런자를 두면하는 자네와도 상종하지 않겠다고 분격에 넘쳐 말하였다.

그리고 안창호에 대해서도 그를 여지껏 좋게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마음밖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그가 국민회장으로서 리승만을 대표로 임명파견하였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후 신채호는 리광수, 안창호와 서슴없이 절교하였다.

1929년 4월부터 그는 국내에 독립운동선전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조직의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그러던 신채호는 1929년 5월 8일 류명택의 가명으로 돈 1만 2천원을 가지고 대북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리다 일본인 수상서원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재판하는 장소에서 우리 동포가 나라를 찾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은 모두가 정당한것이며 설사 도적질을 해도 나라와 민족만을 위한다면 부끄러운것이 없다고 뽕뽕이 말하였다.

일제는 1930년, 신채호에게 10년징역언도를 내리고 려순감옥으로 이송하였다.

옥중에 갇힌 신채호는 반일활동을 더는 할수

없다고 생각하니 비통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 철창속에서도 반일투쟁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문필활동을 계속해나갔다.

그러나 모진 고문과 악형으로 그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생명의 마감이 다가온다는것을 깊이 느끼었다.

그러던 1935년 여름, 기자가 서울에서 려순감옥까지 찾아왔다. 그것은 그의 저술인 《조선상고사》를 자기네 신문에 내기 위해서였다.

기자의 말을 들은 신채호는 그 즉석에서 《나는 일본번호를 박은 신문에는 글을 안낸다》고 하면서 그 제의를 단호히 일축하여버렸다.

이뿐이 아니다.

이해말 어느날 그의 먼 친척되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로 말하면 매우 잘사는 사람일뿐아니라 일제의 동척회사에 근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로부터 멸시의 눈총을 받고있는 사람이였다.

그 사람은 보석료를 가지고 와서 신채호를 보호하겠노라고 하였다.

이에 신채호는 《내가 평생을 왜놈과 싸우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찌 왜놈에게 붙어사는 너에게 몸을 맡긴단말이나.》 하고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해에 또한 위당 정인보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이 그의 건강을 념려하여 감옥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신채호의 몸을 념려하면서 그에게 부락할것이 없는가를 물었다.

그때 신채호는 정인보에게 다음과 같은 한마디 말을 하였다.

《위당, 내가 죽더라도 지금까지 쓴 나의 글들에 대해 관심해주게.》

그 다음해 2월 21일(음력)에 신채호는 가족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으면서 일제에 대한 영원히 지울수 없는 한을 품고 려순감옥에서 세상을 하직하였다.

신채호가 세상을 떠난후인 1937년 만해 한룡운에 의하여 그의 유고집이 발행되었다.

만해 한룡운은 고생스럽게 생활하여나가는 형편이었으나 신문사에서 보내온 원고료를 자신의 생활에는 조금도 보태지 않고 신채호의 유고집 간행에 바쳤다.

참으로 신채호의 죽음은 국내외의 애국지사들과 인민들에게 한없는 슬픔을 가져다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고록에서 신채호에 대하여 회고하신것은 그의 지나간 삶에 눈부신 후광이 비치게 한것으로 되었다.

회고록에 기록됨으로써 신채호는 죽어서 반세기 지나 민족의 정사에 당당히 자욱을 남기게 되었다.

고향길

주광남

고향말씨

러행길에 처음 만난 사이여도
쉬이 통성되더라
텔레비존에서 처음 보는 얼굴도
유심히 살펴보게 되더라
내 고향말씨로 말하는 사람은

아이적 몸에 배여
떠나 한생 살아도 버리지 못하는
고향말씨
그것은 고향이 준 녀이던가

그것은 고향을 못잊는 사랑이던가

아 기쁘더라
영웅이 그 말씨로 위훈담 나눌 때면
절로 뿌듯해지는 가슴

아 무서워라 생각만해도
만약 역적이 그 말씨로 말한다면
수시로 내 얼굴 얼마나 붉어지랴!

어머니 사랑앞에

1

철들면서 짓고싶었네
어머니에 대한 노래

청춘은 나를 위해 다 바치신듯
백발과 주름만 남아있는 어머니
철없이 애태운 아이적 내 잘못이
그 백발 더 늘인듯 죄스러워지는 마음

나이가 더해갈수록
그 생각 더 간절해
더더욱 짓고싶은 어머니에 대한 노래
못짓겠네, 정이 사무칠수록
그 정을 다 노래할 말이 모자라서

아, 어머니사랑을 다 담을 말
세상에 정녕 그런 말이 있을가...

2

이 아들 애태운다 지청구하시다가도
막상 아버지가 엄한 때 들려 하면
황황히 막아 몸으로 막아
품에 꼭 안아주던 나의 어머니

전선나간 아버지 못돌아오자
그 엄한 사랑도 함께 품으셨던지...
작은 잘못 저질러도 아픈매 안기며
눈물 흘리셨지, 어머니 먼저

홀어미 자식소리 들을가봐 타이르던
그 목소리 철들수록 더 가슴치네
아 서리엿힌 머리 폭 숙이고
오늘에 그 매 한번 다시 맞고파

나서자란 고향거리 찾아걸을 때

나서자란 고향거리 찾아걸을 때
반겨맞는 얼굴들 적어졌다면
생각말자 오랜 날 떠나산때문이라고
영웅은 영영 돌아오지 못해도
고향사람들 자랑스레 외우지 않던가

나서자란 고향거리 찾아걸을 때
생각깊은 한자옥에
재여보자 걸어온 한생의 가치를
참말로 고향거리는
우리 삶이 비껴지는 거울 아닌가

말로 하지 말라네

고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하지 말라네
고향떠나 어데 살든 그 무슨 상관

자주 오지 못한들 그 무슨 상관
나타나라네 고향사람들앞에
조국이 자랑하는 그 모습으로만!

강화도를 바라보며

강화도! ... 제 몸의 멍든 한부분처럼
바라보기조차 가슴답답한 저 꺼먼 섬
군복입은 심장에 통일맹세 품고
이 기슭을 떠나던 흥안의 시절은 언제였던가
그날 다름없는 원한의 섬앞에
반백의 머리칼 날리며 예 다시 섰노니
뛰여산 내 한생은 공회전을 한듯싶어...

아 지맥으론 하나로 잇닿아있는 땅
삶의 피줄 하나로 잇대이지 못한탓에 강화도여
너는
민족의 이 한가슴에
아픈 옹이로 박히는구나
흥안의 그 걸음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되는구나!

고향길

휴가의 가벼운 걸음으로 들어섰다가
부득히- 새 자각과 흥분을 안고 나는 떠난다

고향사람들의 수고를 한눈에 깨우쳐준
황홀히도 변모된 넓은 거리 높은 집들이여
다 못하는 효도를 가슴저리게 느끼며
눈물 그리히 지켜보던 어머니의 백발이여
이 순간도 나를 지켜보는
검푸른 저 바다우 남녘의 섬이여

아, 내 이제 몇곶절로 달음쳐살면
내 이제 얼마나 높은 위훈 덧쌓으면
가슴벅찬 이 뜻을 다 이룰수 있을것인가...

정녕, 순수한 휴식이란 없는것
고향길이구나
휴가의 단 며칠에
끓으며 뛰여살
한생의 큰 과업을 가득 안고 가노라!

신선이 사는 금강산

옛날에 조순이라는 중이 있었다.

어느날 금강산유람을 떠난 그는 금강산어구의 한 농가에 들러 하루밤을 묵게 되었다.

저녁을 먹은 뒤에 조순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앉아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시절이 가을이라 만산이 단풍으로 붉고 소슬한 바람에 락엽이 쓸쓸히 흩날리었으며 석양빛이 누리에 퍼져가니 하늘 땅이 온통 황금빛을 띠었다.

그것을 본 조순은 금강산부근에 들어서니 가을 풍경 역시 여느곳과는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며 감탄하여마지 않았다.

그럴 때 주인이 들어와 인사치레로 귀한 손을 소홀히 대했다고 두어마디 하고는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조순도 그에 해당하는 인사말을 하고나서 금강산에 대하여 이것저것 물었다. 주인은 묻는대로 거침없이 다 말하더니 내친김에 묻지 않는 말까지 자랑삼아 한바탕 하였다. 보아하니 이야기하기를 펴 즐기는 로인같았다.

《...금강산은 하두 절승이라 그 이름도 한두가지가 아니외다. 우선 산이 금처럼 빛나고 굳다고 하여 <금강산>이라 하지요. 가을에는 온 산이 붉은 단풍으로 뒤덮이니 <풍악산>이요, 겨울에는 나무잎이 다 진뒤 기묘한 바위들이 천태만상으로 드러나는지라 <개골산>이요. 또한 달리 보면 메부리들이 서리처럼 희고 산뜻하여 <상악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신선들이 살고있는고로 <선산>이라고도 한답니다.》

조순은 청산류수로 엮어대는 주인로인의 말이 무척 재미있었다. 듣기만 해도 금강산의 웅장하고 수려하며 기묘한 경치가 눈앞에 보이는것 같았다.

《허허, 로인장의 말씀을 듣고보니 금강산이야말로 천하명산이 틀림없소이다. 과연 금강산보다 더 경치좋은 산은 세상에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풍악산>두 보고 <개골산>, <상악산>두 다 볼 작정입니다.》

《거참 생각을 잘하셨소. 네 계절을 다 보지 않고서는 금강산을 유람했다고 할수 없지요. 또한...》

로인은 또 기다란 이야기를 펴놓을 심산이었으나 말을 끊고말았다. 한것은 조순이 무엇인가 묻고싶어하는것을 눈치챘기때문이었다.

《헌데 로인장께 한가지 물어보십시오. 이자 신선이 살고있어서 <선산>이라 부른다고 하셨는데 실은 옛날에 신선이 내려와 살았다고 하여 그렇

게 말씀하신것지요. 로인장은 참말로 금강산에 신선이 산다는걸 믿으십니까?》

조순이 이같이 물으니

《아, 내가 하는 말은 옛날 신선말이 아니요.》

하고 로인은 화를 내었다. 《금강산에는 지금도 신선이 살고있소.》

《아니, 지금 신선이 정말 있단말입니까?》

조순은 로인이 하는 말을 도무지 믿을수 없었다. 신선이라면 하늘의 무릉도원에서 세월이 가도 늙지 않고 산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지 실지 사실은 아니리라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로인은 상대가 자기 말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제편에서 《그래 손님은 이 금강산에 신선이 산다는걸 믿지 못하겠소?》 하고 물었다.

《예. 아무려면 진짜 신선이 있단말입니까? 신선을 딱히 보았다는 사람두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조순의 이 말에 주인집 로인은 《나도 보았소.》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보지 못하고야 내 왜 그 말을 할가...》

《그게 정말입니까?》

조순은 그래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게 정말이 아니구.》

로인은 마치 말다툼을 할 때처럼 상대의 말을 되받아외었다.

《허허. 로인장, 안됐소만 내 믿기가 어려워 그러는겁니다. 아무튼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그래 신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제야 로인도 미안한듯이 웃으며 말했다.

《신선의 생김새는 사람과 다름이 없대요. 내 어릴 때 마을로인들에게서 푸른 옷을 입은 신선을 가끔 보곤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 넘어서 나도 결국 그 선인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구 얼마전에도 신선을 보았소. 내가 본 신선도 과연 푸른 옷을 입었고 생김새 또한 어릴적에 들은 그대로였소.》

조순은 로인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니 더 할말이 없었다.

《허- 로인장께서 그 푸른 옷 입은 신선을 실지루 보았다는 말씀이지요?!》

《정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찾아가보시우.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수 없지만 내금강 심왕봉근처에 있다는 말도 있고... 여하간 신선을 찾아다니느라 하면 만나게 될거요. 헌데 듣자니 험하고 깊은

산이라야 신선이 산다오.》

주인과 손은 공교롭게도 이 신선말이 나와서
싱개이질을 하다싶이 한참 말을 주고받다나니 어
느새 밤이 깊어진줄도 모르고있었다.

그래 이를 먼저 깨달은 주인집 로인은 신선이
야기를 하느라고 손님을 지나치게 대한것이 미안
하여 루루히 사과한후에 편안히 쉬라는 인사를
남기고 곧 물러갔다.

이튿날 아침 조순은 주인집 로인에게 하루밤
신세진것을 사례하고 길에 나섰다.

금강산은 로인에게서 듣던것보다 훨씬 더 아름
다웠다. 하지만 이제는 산수풍경을 즐기는 유람
보다도 신선을 한번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더 간
절하였다. 로인이 금강산에는 신선이 있다고 화
를 내면서까지 말한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사실처
럼 느껴졌고 꼭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싶었다.

그는 푸른 옷을 입고있다는 신선을 만나보려고
험한 계곡을 찾아 헤매며 안가본데가 없었다.
로인이 말하던 십왕봉부근만 해도 두번이나 돌아
보았다.

그러던 어느날 내금강을 한바퀴 돌아 다시 십
왕봉근처의 강가에 이른 그는 너럭바위우에 잣송
이가 수북이 쌓여있는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모두 잣을 까낸 빈송이들로서 분명 짐승이 한짓
은 아니였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물기있는
땅우에 사람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나있었다.

조순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발자국을 따라 슬
금슬금 골짜기로 들어갔다. 얼마 안가서 확 트인
골안에 들어서니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성큼성
큼 걸어가는것이 보이였다.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아, 저 사람이 바로 신
선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쳤다.

신선은 가벼운 걸음으로 날듯이 걸어가고있었
다.

조순은 한달음을 놓으면서도 자칫하면 놓칠것
같아서 《여보시오!》 하고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들은 신선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
아보았다.

급히 달려가 신선앞에 이른 조순은 눈이 휘둥
그래졌다. 신선은 푸른 옷을 입고있는것이 아니
라 온몸이 한자는 실히 될 푸른 털로 덮여있었던
것이다.

조순은 신선에게 공손히 절을 하였다.

《인간세상사람이 신선을 뵈옵고 문안드리옵니
다.》

《하하. 신선? 나는 신선이 아니요.》

《이 무슨 말씀이오니까.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
신 신선이 아니란말이오니까?》

《그렇소. 나는 그대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요.》

《예?!》

그 말에 조순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
다.

《아니. 그럴리가... 신선이 아니시라면 어찌하
여 온몸에 푸른 털이 돋고 걸음 또한 그렇듯 가
벼울수가 있으오리까. 이고장 로인들은 아이적에
신선님이야기를 마을어른들에게서 듣고 또 더러
는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신선님을 보니
듣던바와 조금도 다름이 없거늘 왜 아니라고만
하십니까?》

《하긴 그대가 보는바와 같이 내몸에는 푸른 털
이 돌아있고 이고장 사람들이 말하듯이 여기서
백수십년을 살고있는것도 사실이나 나는 하늘에
서 내려온 신선은 아니요.》

신선은 이런 말을 하고나서 우렁찬 소리로 절
절 웃었다.

조순은 정신이 얼떨떨하여지며 꼭 무슨 홀림수
에 드는것 같았다.

《인간세상사람이라면 몸의 털은 웬 털이며 백
수십년을 넘어 사신다고 하셨는데 몸이 어찌 그
리도 정정하시오니까?》

그 말에 신선은 또 한번 절절 웃었다.

《그 사연을 정녕 알고싶다면 저리로 가서 이야
기합시다.》

푸른 털이 돋은 사람은 손을 들어 골안의 깊은
숲속을 가리키더니 조순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갔
다.

울창한 숲을 지나 맑은 시내물이 흰바위를 적
시며 흐르고 해빛이 밝게 비치는 아늑한곳에 이
른 그 사람은 걸음을 멈추었다.

《자, 이제 다 왔으니 여기에 앉으시오.》

조순은 푸른 털사람이 가리키는 너럭바위에 올
라가 우선 다리를 쭉 펴고 앉았다. 사방을 둘러
보니 기암들이 병풍처럼 둘러있어 경치도 좋거니
와 누구도 감히 들어설념을 못낼만큼 지세가 험
한곳이였다.

《하하. 이런 험한데서는 사람이 살것 같지 못
한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것도 무리는 아니지.》

푸른 털사람은 조순의 심정을 알아차리고 혼자
소리 비슷하게 말하더니 너럭바위우에 성큼 뛰어
올라 조순의 곁에 나란히 앉았다.

너럭바위우에는 솔처럼 생긴 돌확이 나있고 그
안에 누룩덩이같은것들이 가득차있었다.

《자, 우선 이것부터 맛보시우.》

그 사람은 커다란 덩어리 하나를 꺼내여 그것
을 두쪽으로 가르후 그 하나를 조순에게 주었다.

조순은 누룩덩이같은것을 조금 뜯어 조심스럽
게 입에 넣어보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입안이 향
기로워지고 신선하면서도 달콤한 그 무엇이 스르
르 녹아넘어가는것이였다.

《그 맛이 어떠하오? 이게 바로 잣을 찢어서 만
든 나의 밥과 같은 주식이요.》

푸른 털사람은 자기도 한조각 떼어 입에 넣고 우물거리 넘긴다음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원래 전라도땅에 살고있던 그는 먹고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머리깎고 중이 되어 얼마간 지난후에는 금강산에 들어왔다. 그러나 금강산에 들어와서도 처음에는 먹을것이 없어 고생스럽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산열매와 산나물들을 뜯어 끼니를 이어가며 이것저것 시험삼아 음식을 만들어먹거나 저축을 하던끝에 점차 살아갈 방도를 찾게 되고 잣을 까서 산열매, 산나물들과 같이 짓찜어 마침내 늘 저장해두고 먹을수 있는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어내었다.

그 음식을 먹으며 지내느라니 점차 힘이 솟고 온몸에 잣나무잎과 같은 푸른 털이 돋아났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혈기가 왕성해지면서 젊음이 되살아나는것 같았다.

푸른 털사람의 말을 끝까지 다 들은 조순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아아, 말씀을 듣고보니 진실로 신선이 분명하오이다.》

《신선이라... 그런즉 하늘이 아니라 금강산이 나를 신선으로 만든셈이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천하절승 금강산의 그 정기는 절경속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선이 되게 하니 이고장 로인들이 말하는것처럼 금강산에 신선이 산다는 소문은 과연 헛소문이 아니었소이다.》

조순은 못내 감탄하여 말하니 푸른 털사람은 허허 웃었다.

조순은 그날저녁 그 사람의 아담하고 조촐한 초막에 들어가서 밤새껏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피곤을 못이겨 잠간 쪽잠이 들어 눈을 붙이고 깨어보니 푸른 털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조순은 그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금강산에서 잣을 따먹고 산채를 캐어 때식을 이어가면서 살았다. 하지만 그가 언제 어디서 일생을 마쳤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김정설

우리 집 총계

리연옥

버들숲 푸른 보통강반에
하얀 추녀를 엮은 고층살림집
나는 거기 5층에 사는
평범한 수도의 시민

날마다 밝고 오르는
높지 않은 총계
그 계단계단에
나는 얼마나 많은 생각 실어왔던가

더듬으면 여기엔 있으리
새집들이 입사의 날
행복한 우리 가정 네식구
가지런히 새긴 크고작은 자옥들

쫄고닭아도 지울수 없구나
꽃들이 내리던 설달 그밤에
애어린 팔애의 손목을 잡고
소년궁전무대에서 돌아올 때
아 나는 이 세상 제일로 행복한 어머니라고
소리쳐 부르며 오르던 그 자옥이

희망으로 깔린
이 총계를 뚫아
군대나간 아들이
금별메달 절령이며 돌아왔고

행복으로 고인
이 총계를 딛고
나날이 늘어가는 우리 집 기쁨
나날이 높아가는 우리 집 행복이
방이 비좁도록 차올랐구나

소리없이 솟구치는 고마움에
때로 눈물로 적신 때도 있어라
한단 두단
내 오르는 행복의 높이를 가늠하여
목매여 어루쓸던 이 총계!

여기에 새겨진 자옥을
아름아름 안아 펼쳐보이고싶구나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가
인민을 어떻게 떠받드는가를
이 총계를 들어 보여주고싶구나

웁기는 걸음걸음에
만복이 깔린 우리의 제도
들가의 한송이 꽃도
인민을 위해 향기로 풍기는 이 땅에서
내 딛고 오르는 평범한 총계조차
아 무심히 볼수 없구나!

이런 때 이런 순간에는 외 1 편

리 영

또 한그물 들었다
지그시 권양기로 바줄 감아올려
갑판위에 터치니
온통 정어리꼭포로다

이런 때, 이런 순간에는
할바를 몰라 미쳐 몰라
저마다 잔소리가 많아지는 때
어장이 철철 넘쳐날가봐
공연히 걱정스러워지는 때

툭툭 꼬리치는 서늘에
구리빛얼굴들에 튀어오르는 고기비늘
아무런들 어찌랴 정어리 정어리
우리 장군님께 기쁨드릴
만선이로다

이런 때, 이런 순간에는
파도도 멀미도 다 잊는 때
여름바다라 달아오른 갑판 열기뻐 가슴
고기물결에 풍덩 빠져
한바탕 헤엄이라도 치고싶어지는 때

탄전이라 먼 두메라
갑판에 고기가 부글거릴 때이면
바다 먼 고장까지 다 안아볼듯싶구나
이 바다 환희가
물의 기쁨으로 합쳐지는듯싶구나

참으로 이런 때, 이런 순간에는
바다도 시간도 다 잊는 때
기름진 인민생활 안아보시며
환히 미소지으시는 장군님영상이
온 바다에 해살처럼 보여오는 때

성미 세차다 말하지 마오

이 바다기슭에서
목청 센 처녀들을 보거들랑
성미 세차다 말하지 마오
바다에서 일하느라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걸 어찌겠소

때로는 부두에서 배전으로
흠쩍 뛰어내리며 깔깔거리는 처녀들
그런 담이 없이야
파도속에서 어떻게 떼장줄 지킬수 있겠소
찬겨울 물결우에서 씨불임 할수 있겠소

성미 세차다고만 생각지 마오
물매 고운 저녁이면
미역이며 섭조개 떠실은 배길에
청고운 노래로 노을을 불러온다오
무도장에선 분내 향긋이 춤도 잘 춘다오

영예게시판에 사진이 붙으면
해당화처럼 얼굴 붉히며
사업소 후문으로 예돌아가는 처녀들
백사장의 물결처럼
밤새도록 사랑을 속삭일줄 아는 처녀들

성미 세차다 말하기엔
너무도 다감한 바다처녀들이라오
천해양식 잘한다 신문에도 크게 소개된
얼굴 곱고 키가 미칠한
물결푸른 동해바다 딸들이라오

이 처녀들 없이야
이 바단 한적한 바다
바다농사로 당의 뜻 물결우에 꽃피가는
이 처녀들이 있어
이 바단 사시절 아름다운 바다라오

팔월추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추석을 비롯한 민속명절의 유래를 잘 알고 그와 관련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인 풍습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팔월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다.

추석은 한해 민속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맞는 명절의 하나였다. 크게 맞는 명절의 하나였다.

추석은 무르익은 햇곡식을 거두어들이기에 앞서 우리 선조들이 생산활동에서 이룩한 노력의 열매를 기쁨으로 즐기는 명절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추석을 가위날, 가배날이라고 하면서 큰 명절로 맞았다.

추석을 가위날이라고 한것은 팔월한가위가 달 밝은 가을밤이라는데서 온것이였다. 이날에는 7월백중 다시말하여 호미씻이 다음날부터 시작된 공동길쌈을 끝내고 총화도 하였다.

선조들은 한해에도 여러차례씩 시조왕의 무덤이 있는 사당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가운데는 8월 추석의 제사도 들어있었다.

시조무덤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는것은 인민들속에서도 팔월추석에 조상무덤에 제사를 지냈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추석날 조상무덤을 찾는것은 오랜 옛날부터 전하여오는 풍습이였다.

다른 기록들에서 전하는데 의하면 8월 보름이 되면 연회를 차리고 놀이를 하면서 군신들이 활쏘기를 하는데 말이나 천을 상으로 주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지배계급들의 추석놀이를 적은것인데 후세의 추석놀이와 대비하여보면 인민들속에 있었던 풍습을 본따서 지배계급들도 그렇게 논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보면 세나라시기에도 추석날 연회를 베풀고 재미있게 놀면서 활쏘기도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추석은 세나라시기, 발해, 고려시기 등 오랜 력사기간을 거쳐오는 과정에 명절행사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리조에 이르러 그 행사들이 고정되였다. 리조시기에는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 추석맞이의 여러가지 풍습을 더 잘 알수 있게 전하고있다.

리조시기에 굳어진 추석명절풍습으로는 추석음식, 놀이, 행사 등이 전해지고있다.

추석에 만들어먹는 철음식으로는 햇곡식으로 만든 술과 송편, 시루떡, 밤단자가 이름났으며 풍성한 여러가지 과일도 추석음식의 한가지로 되였

다.

송편은 오월수리날이라면 쑥떡을 생각하듯이 팔월추석이라면 송편을 생각할만큼 추석을 장식하는 음식이였다. 그것은 햇쌀, 햇밤, 풋콩으로 만든 송편이 초가을의 특색있는 음식으로 되기때문이었다.

송편은 멥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밀어 속에 여러가지 고물(햇밤, 햇콩, 햇팥, 햇록두, 햇깨 등)을 넣고 반달모양으로 빚어 시루에 찌내어 만들었다. 송편이란 솔잎을 사이사이에 퍼고 그사이에 떡을 놓고 찌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였다. 떡사이에 솔잎을 퍼는것은 떡의 형태를 보존하고 솔잎에서 나는 고유한 향기와 여러가지 영양성분을 송편에 더하기 위한것이였다.

시루떡에는 흔히 무우나 호박오가리를 넣어 만들었다.

찰떡은 찹쌀을 찌서 떡판에 놓고 쳐서 떡을 만들어 쿡가루, 깨소금 같은것을 묻혔는데 이렇게 한 찰떡을 인절미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인절미로서 이름난 고장은 연안, 배천 일대이다. 그것은 이고장에서 나는 찹쌀이 차지고 맛이 있기때문이었다.

밤단자는 찹쌀가루를 찌서 닭알처럼 둥글게 빚어가지고 삶은 밤을 꿀에 갠 고물을 곁에 묻힌것이였다. 이것은 밤고장들에서 흔히 만들어먹었는데 밤으로 만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것은 쉽지 않은것이므로 추석음식으로서 특색이 있는것이였다.

추석때의 과일로서는 밤, 대추, 감, 배가 기본이였다. 이러한 과일들은 맛도 있고 약재로도 되는 좋은 식료품이였다.

추석날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민속놀이도 하였다.

추석날의 놀이로는 녀성들의 그네뛰기, 남성들의 씨름과 같은것이였다. 곳에 따라 줄당기기, 소놀이, 거북놀이, 강강수월래, 길쌈놀이도 하였다.

그네뛰기와 씨름은 수리날과 마찬가지로 판을 크게 벌려 마을마다 부락마다 그네터를 마련하고 놀거나 씨름경기도 하였다. 추석에 줄당기기를 하는곳도 적지 않았다.

강원도의 양구, 고성, 경기도의 양평, 충청도의 아산, 전라도의 옥구, 경상도의 량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8월 보름에 줄당기기를 하였다. 남녀가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다가 두편으로 갈라 줄당기기를 하

였다고 한다.

소놀이, 거북놀이는 소탈, 거탈을 만들어 쓰고 소나 거를 앞세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춤추고 노는것이였다. 이 놀이들은 경기도, 충청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소와 거를 등장시킨것은 농사일에 큰 몫을 담당하는 소와 수백년씩 사는 거의 형상을 통하여 풍년과 장수를 념원한데서 생긴것이라고 한다.

강강수월래는 남해안일대의 부녀자들이 8월추석을 계기로 부르면서 원무형식으로 춤을 추는 놀이였다. 강강수월래는 그 유래가 임진조국전쟁시기와 관련되어있다.

임진조국전쟁때에 적들에게 해안을 지키는 우리의 군사가 많다는것을 보여주며 적이 상륙하는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남해안일대의 부녀자들이 때를 지어 해안부근의 산에 올라가 《강강수월래》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후부터 달 밝은 8월추석이면 부녀자들이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는데 이것이 점차 전해지면서 남해안일대에서 하나의 풍습으로 되였다고 한다.

길쌈놀이는 근로인민들속에서 널리 즐겨온것이였다. 집안식구들의 옷가지, 이불, 포단은 모두 길쌈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므로 여럿이 모여 공동으로 길쌈하는것은 전국 각지에서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길쌈놀이도 널리 퍼져있었다. 길쌈놀이에는 민속무용과 인민들이 부르던 수많은 로동민요가 전하여 온다. 전형적인 민속가무로 오늘날까지 전하여오는것은 함경남도 홍원지방에 전해지고있는 《삼삼이》와 평안남도 성천지방에 전해지고있는 《길쌈놀이》를 들수 있다.

길쌈노래도 수많이 전하여오는데 그가운데서 한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삼삼은 소리 (함경도)

전령: 삼을 삼아요 삼을 삼아
보름새 오리를 삼아가요

- 1: 삼을 삼아요 삼을 삼아
삼동 석달을 삼아보세
- 2: 한사리 두사리 사래가요
이내 마음도 사래가요
- 3: 겨릅대등에 불달아놓고
한밤 삼을 삼아보세
- 4: 님 오는 자친가 문을 여니
어느새 첫눈이 내리네요

이것은 함경도지방에서 공동길쌈을 하면서 부른 민요이다. 이 민요를 통하여서도 지난날의 길

쌈작업의 모습을 상상할수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고된 로동이였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녀성들은 것처럼 힘겹고 품이 많이 드는 길쌈을 호미씻이 다음날부터 8월추석까지 여럿이 힘을 합쳐 함으로써 일을 보다 흥겹게 하면서도 빨리 할수 있었으며 동시에 이웃간에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었다. 따라서 길쌈놀이는 근로녀성들의 생산활동에 일정한 긍정적인영향을 주었다.

추석맞이에서 가장 중요한 행고 할수 있는것은 조상의 무덤을 돌아보는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한해 농사를 다 짓고 가을걷이를 앞둔 시기에 햇날알로 음식을 정히 지어가지고 조상들의 무덤을 돌아보았다. 여름내 무성하게 자란 잔디를 깎고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한다음 그자리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먹었다. 그것은 한해농사에서 이룩한 햇곡식을 조상에게 드리고야 먹을수 있다는례의풍속이였다. 그러므로 이때의 음식은 제일먼저 여문 곡식들을 골라 거두어서 지었다.

추석은 계절도 좋고 산에 가기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때는 산소에 못가도 추석에는 꼭 가보곤하였다.

추석은 가을철의 풍만한 시기에 맞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 어느 명절보다도 크게 맞았으며 잘 쇠였다. 그러므로 음식도 다양하고 놀이도 여러가지였다.

우리 선조들은 추석명절을 즐겁게 쇠고는 가을걷이에 들어갔다.

추석무렵에는 무덤돌아보기와 함께 종로보기를 하는데도 있었다.

종로보기는 말그대로 길가에서 만나본다는것으로서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 또는 사돈끼리 두 집사이의 중간에서 만나보는것이였다. 추석이 가까와오면 사돈집사이에 미리 연락하여 추석날 두 집사이 종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면 이날 시집에서는 며느리에게 떡과 여러가지 음식을 차려주어 친정으로 가는 중간에서 친정어머니를 만나게 하였다.

길 중간에서 만난 딸과 친정어머니는 그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보고 싶었던 모녀사이에 잠시나마 즐거웠다. 일부 지방에서는 사돈끼리 만나 즐겨놀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고 한다.

종로보기는 봉건사회에서 녀자들이 일단 시집가면 마음대로 친정에 가보지 못하는 불합리한 생활에서 생긴 풍습이였다.

이러한 종로보기는 근대에 들어오면서 불필요한것으로 되여 자연히 없어지고말았다.

선생님

김سن지

학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누구나 만나면
존경어린 어조로 부르는
선생님

오랜 혁명선배도
새 세대 청년들도
학생들과 유치원어린이도
언제나 정겹게 부르는 이름
선생님

그 부름속에
날을 따라 깊이 새겨지는 뜻
하나를 가르치자면
열백을 알아야 한다신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교시

그 부름속에
날에 날마다 새로이 받아안은 뜻
후대들을 키우는 한결음이 늦으면
조국의 전진이 열백걸음 떠진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가르치심

아, 교단에 서는 사람이라면
나이많은 사람도
애젊은 처녀도
언제나 선생님으로 불러주신

어버이수령님
이 세상에
후대를 키우는 사업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은 없다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가라고 불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기대속에
조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선생님들이 한없이 부럽다 하신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믿음속에
오늘도 교단에 오르는 이 마음

아, 생각할수록
그 사랑, 그 믿음 너무도 커서
신성한 교단에 오를 때면
질로 무거워지는 마음
심장에서 뿜어번지는 충성의 열정

선생님!
오늘도 그 이름 입속말로 외우며
나는 교단에 다가선다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사로
한생을 빛나게 살기 위해

새봄을 불러 외 2 편

박정애

땅이 숨쉬는 봄
얼음밑에 흐르는 실개천이
봄노래 돌돌 굴리며
나를 부르는가

퍼런 날 선 보습 지나자
한겨울 간직했던 흙향기
진하게 풍기는 포실포실한 땅
살결 부드러운 모란우에
난생처음 뽕상모 씨앗을 묻는 날

배우면서 묻고
묻으면서 배우는 기쁨
말 못하는 씨앗을 땅에 품어주고
귀염성스러운 애기도 키워내는
여기에 내 넋을 묻어가는 기쁨이어

내 도지에서 살 때는

움터나는 유보도의 푸른 잎으로
봄을 맞았다면
땅이여 이 봄엔
들에서 씨앗을 묻으며
나는 새봄을 불러오노라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벌판에 회오리치건만
붉은기 나뭇기는 뽕상모란
내 가꾸는 씨앗에서
이해의 봄은 움터나리

여기서 봄이 시작되고
여기서 여름이 꽃피고
여기서 가을이 무르익으리라
아 농장의 봄 땅의 봄
수령님 유훈을 꽃피워갈
나의 봄아!

저녁의 한때

날은 저물어
하늘가에 노을은 빨강게 타고
불은 황금빛을 엮어
층층 짜놓은 비단구름아래
또 하루 땀들인 날은 가는가

뜨락에 들어서니
둘레둘레 콩꽃내
채마전에 고추꽃내
울담에는 호박꽃내

꽃향기로 그윽한 마당가에는
우리 함께 뿌리내린 목란꽃
나를 반겨 웃는데
뒤따라 들일 끝내고 들어서는 딸애
꽃보며 웃는 그 얼굴 그보다 더 고와

도시에서 살 때는 응석도 많아
언제면 철이 들가 했더니
저것 보지 복슬강아지 안고서 등실등실
당콩넌출 손질도 제법이다
이제는 다 자란 처녀농장원

초소에서 아들의 소식이 왔다고
흰 봉투 내흔들며 들어서는
검실검실한 남편의 얼굴에도
함박웃음 벅그는
이런 때는 영화의 한장면인듯

웃마을 뜨락뜨르운전수총각
발동소리 높이 마당가에 다가오니
왜서인지 고추밭에 뛰어드는
딸의 얼굴에 노을빛이 물들어
멋이로다 행복한 저녁의 한때

햇쌀밥

내 땀으로 무르익힌 옥백미로 지은
찰찰 기름도는 햇쌀밥을 담노라니
바람찬 현지지도 이름없는 들길에서
장군님 드시였다는 그 췌기밥
더운 물기 서려오는 눈가에 어려오더라

아, 내 여기로 떠나온다고
대견하시어 감사까지 보내주신
아버이 우리 장군님께
이런 때 내 지은 햇쌀밥 드린다면
가슴속에 쌓인 소원 봄눈처럼 녹아내리리라